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6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2월 23일(음력 11월 8일) 수요일(주간)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왼쪽)과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반환된 석가탑 사리장엄구 전체를 불단에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석가탑 사리장엄구 '귀가'

조계사서 17일 고불식… 성보문화재 40건 83점 돌아와

1966년 출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온 불국사 석가탑 발견 사리장엄구 전체(국보 제126호)가 12월 17일 조계종에 반환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7일 조계사에서 석가탑사리장엄구의 반환을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으로 돌아온 유물은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해 금제사리외함과 은제 사리를 봉안하는 사리장엄구, 녹색유리병, 구슬 등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만 40건 83점에 달한다. 여기에는 고려시대 중수한 중수기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성보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43년 만에 반환이 결정된 불국사 석가탑 발견 사리장엄구는 발견 이듬해인 1967년, 보존관리를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관돼 왔다. 2006년부터 문화재청과 사리장엄구 반환을 협의해 온 조계종은 2007년 3월 반환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반대로 미뤄져왔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소유자가 불국사임이 재확인됐고, 12월 10일에야 반환이 결정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한국불교의 정수가 담긴 성보 중의 성보가 새 보관처를 찾은 오늘은 종단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전체가 43년 만에 조계종에 반환되는 것은 성보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오게 된 뜻 깊은 일"이라며 "이번 반환을 계기로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성보가 종단에 반환된 것은 종단이 그동안 불교문화재 관리 · 전시 역량을 축적해온 결과"라 평가했다.

이번 반환의 뒤에는 불교중앙박물관을 설립하고 시설과 전문인력을 최고수준으로 확보하려는 조계종의 노력이 있었다.

범하 · 성타 스님의 말처럼 이번에 석가탑 유물이 반환된 것을 두고 조계종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문화재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당시 관장 김홍남)은 석가탑 유물의 반환 거부 이유를 "문화재 보존 · 관리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2010년 조계종 예산안 규모는 210여 억원 규모. 이 중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중앙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기관의 예산은 40여 억원에 달한다. 종단 예산 총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일각에서는 "자체 발굴과 조사, 관리에는 전문인력 확보 등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날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축사에서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재인 석가탑 발견 유물의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해 조계종의 문화재 관리 능력에 대한 못미더움을 드러냈다. 같은 날, 국립중앙박물관은 석가탑 발견 유물의 반환 · 이운에 앞서 2년 여의 보존처리 과정 결과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국가기관에 위탁된 국보급 성보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의 경사인 것은 확실하다. 이번을 계기로 조계종 문화재관리 능력도 국보급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자승 스님 서민 정책 개발 주문 투명 선거 사회 귀감 이명박 대통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명박 대통령과 첫 조찬 회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조찬 회동을 갖고 환담을 나눴다. '소통'과 '화합'을 표방한 제33대 집행부의 대정부 관계개선의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자승 스님은 경제난 극복에 대한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정책 개발 등을 주문했다. 또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불교 ·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이 조찬 회동에서 '소통'의 정치를 발원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회동에 배석한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담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승 스님은 회동에서 "경제가 어려웠는데 정부와 대통령의 노력으로 국민 근심이 덜고 있다"며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겨울이 다가오는데 서민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서민 정책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례 없는 종단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그 지지 속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하며 "이번 불교가 보여준 조화롭고 투명한 선거가 사회에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민정책 개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미소금융 사업의 관련 일화 등이 오갔다. 취임과 경제난 극복에 대한 대담 이후에는 평창올림픽 개최와 G20정상회의와 연계된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G20정상회의로 한국에 각국 정상들과 주요 경제인사들이 방문하는데 G20회의를 기해 새 국가동력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또 전통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불교계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에 정부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총무원 예방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교계 지원 요청과 정부의 추진 요청 등도 진행됐다.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15분간 회동 후 약 15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 대담을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원담 스님은 대담 내용 공개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께서 청와대 초청에 응하신 이유는 대정부와 종단 등의 갈등구조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단 집행부의 기조상 이러한 만남의 면적이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회동에는 자승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청와대불자회 회장)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02)2004-8200 팩스: (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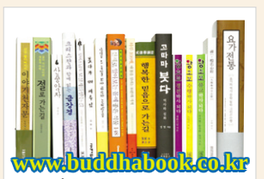
▶8 인터뷰-현응 스님 ▶9 사찰풍경-간월암 ▶14 선지식-현산 스님 ▶23 설법전-심산 스님

법구경

니르바나,
저 불멸을 향한 수행의 힘은
결코 늙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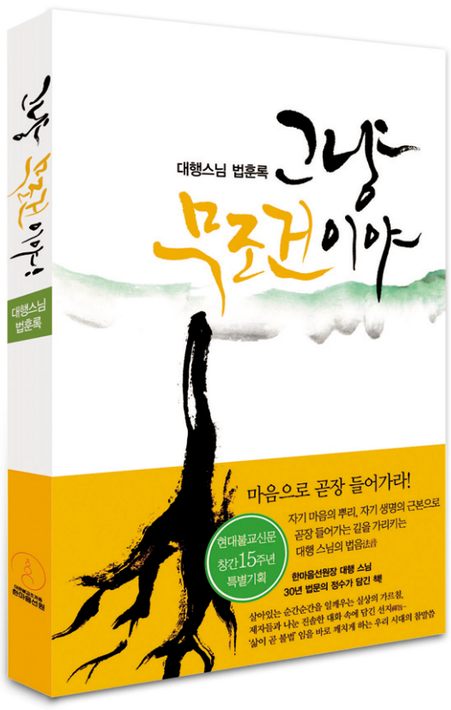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 60 - 700 -1080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아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10년만의 불자 한의사 법회

12월 15일 저녁 8시. 조계사 극락전 2층에서는 10여 한의사들이 동참한 조촐한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돈각 스님의 집전에 따라 <금강경> 독송까지 여법하게 진행됐다. 날씨가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리 넓지도 않은 극락전 법당은 법회 내내 썰렁했다. 10월 10일 창립기념법회 이후 열린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이수완)의 첫 정기법회였다.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모임치고는 첫 법회의 참여율부터 저조했다. 참가자들도 아직은 서로가 어색해 보였다. <금강경> 독송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였다.

법회를 마친 한 참가자의 "불자 된 지 10년 만에 <금강경> 독송을 처음 해본다"는 말은 법회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비록 '처음' 열린 법회였지만 창립법회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불교와 한의학의 사상체계는 비슷한 면이 많다. 불교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다루는 현실 중심적인 종교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왔다. 한의학도 그 시대마다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발전했다. 또 한의학은 인체를 구조와 기능의 측면, 육체와 정신의 측면을 균형 있게 살피며 어느 한 면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드라망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옛날 스님들 중에는 한의학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불교와 한의학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스님들은 중생들의 마음과 육체적인 병을 함께 고쳐왔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의사 중에는 절반 이상이 불교를 선호한다고 한다. 포교원에서 올 초부터 조직한 직장직능 단체인 한의사불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될 것은 회원의 확보가 아닐까? 또 조직을 구성하고라도 끝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와해됐던 대한불교한의사회의 전철을 밟게 됨은 물론이다.

이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진실된 불자로 거듭나고자 10년 만에 다시 모인 한의사 불자연합회의 첫 걸음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불교와 한의학, 성불(成佛)과 의도(醫道)는 모두 마음자리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수완 회장의 말처럼 신심으로 다져진 불자 한의사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길이 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출가권유부터 특수교육까지 '변화' 물결

조계종 교육원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 "내용·환경 개선에 주력"

12월 13일 "캐나다에서 수녀 모집 광고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보도처럼, 국내에서도 출가를 권하는 글과 동영상을 만나게 된다. 또, 전통경학 위주의 승가교육이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출가자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의 골자는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전략과제로 △기초교육(행자교육) △기본교육(예비승교육) △전문교육 △재교육(연수교육) △특수교육 등 5대사업의 교과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 각 교육단계는 2·3·4·5급 승가고시 등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강제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했다.

먼저, 기초교육부터 크게 바뀐다.



'출가를 권하는 글'과 출가권유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을 비롯한 젊은 층이 이용하는 매체에 노출시켜 적극적으로 승가인력 확보에 나서는 것부터가 큰 변화다. 또, 출가행자 입문 교육과정(3박4일)을 개설해 승가의 비전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행자교육을 위해 '일상교육지침'을 마련해 각 사찰에 하달하기로 했다. 행자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자료를 교육원이 지원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사진)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출가선호 분위기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입문·전문·회향의로 나눠 단계별로 내실 있는 기초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중앙승가대·강원 등 기본교육체계도 전통적 승려상에 21세기 교육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전통경학 중심의 강원교육을 점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승가대학원 등)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본교육은 출가자로서 불교적 소양과 가치관을 갖춘 인재 배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기본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연구한 결과를 공청회를 거쳐 최대한 종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면서 "교육내용 개편과 교재 개선, 교수진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기본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교재의 한글화와 교수진 확보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재가 현대화·한글화 되면 현재 승가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될 것"이라며 "교수진은 교육원이 직할로 별도의 그룹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교육은 승가 전문역량 향상과 교수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전문교육 진학비율이 2~3%인 것을 20%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 형식적이라 비판 받는 재교육(연수교육)도 호스피스, 청소년 상담, 인터넷 활용, 기획력 향상과정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보충해 진행한다.

교육국장 태경 스님은 "사회법 등 사회와 관련한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교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춘 재교육 과정을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화를 대비한 영어학교, 불교미술을 전문 수학할 불화학교가 설립되는 등 특수교육도 강화된다.

하지만 교육원의 발전계획이 시행되려면 갈 길이 멀다. 당장 조심스레 일고 있는 전통강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부터 문제다. 행자교육원령을 비롯해 재교육·특수교육법 제정 등 법률적인 단계도 거쳐야 한다. 다행히 재정적인 부담은 총무원 측에서 상당부분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이다.

법인 스님은 "일본 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만해 스님도 인문학을 강조했다"며 "1994년 교육원 별원화 이후 '선교육 후득도'를 체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실천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의 맛을…

천태종 명락사 13일 체험코너 마련

국내 최초의 다문화모자가정을 위한 자립 공간인 '명락빌리지'를 개원한 천태종 명락사(주지 무원)가 12월 13일 경내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의 장을 열었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이 이주민과 떡메치기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무원 스님, 김희철 민주당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의원과 다문화가족 등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은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문화가족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한국사회 적응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명락사는 앞으로 1회로 그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을 체험하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 담그기, 떡메치기(인절미 만들기), 김치전 만들기 등 체험코너가 마련됐으며 다문화가족들은 직접 김장담그기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월(조선족·48)씨는 "내년 2월이면 쉼터에 온지 2년째 되는데 이런 행사에 처음 참여해 한국과 연변의 김장담그기도 비교해보고 재밌는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담근 김치 1000포기는 서울 관악구청을 통해 인근 독거어르신과 저소득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02)873-3405

이나은 기자

"대화합의 길 가자"

자승 스님 성탄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09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탄생 축하와 종교화합 다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16일 '소통과 화합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메시지를 통해 "경제난 의 이때 사랑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며 "종교인이 먼저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념과 사상,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대화합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은 21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현수막을 게시했다. 조계종의 성탄절 축하행사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가까이 지내며 소통하고파"

자승 스님, 종로 이웃 종교인사 초청 오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종로지역 이웃종교 인사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총무원이 소재한 종로 인근 종교인들과의 오찬모임에는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광준 신부, 견지동 중앙교회 강광석 수석장로, 천주교 혜화동 카톨릭 신학대학 박문성 신부, 원불교 종로교당 정숙현 교무, 성균관 정한기 사무총장, 민족종교협의회 이찬구 기획부장,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태고종 법륜사 보경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에서는 사회부장 혜경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이 배석했다.

자승 스님은 오찬에서 "지난 11월 5일 취임해 종로구에는 제일 늦게 입성하게 되었다. 이웃종교간 화합은 진짜 이웃사촌인 지역 종교인들과의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11월 18일 , 12월 15일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5층 '바루' 등에서 7대 종교 대표들과 공양을 한 바 있다.

조계종은 "향후 종교간 소통과 화합,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며 종교화합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나누우리' 시동

태고종 첫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혜산)는 12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위원장에 충남교구종무원장 혜산 스님을, 위원으로 前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등 20명을 위촉했다.

이날 준비위는 창립에 앞서 △나누우리 자원봉사단 결성 △정기후원 500인 모집 △홍보지 발간을 진행키로 했으며 2010년부터 라오스와 캄보디아 초교 1개소 설립 등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02)739-3458

노덕현 기자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2554(2010)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귀의 삼보하옵고
낙목한천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회향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2554(2010)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코저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뜻있게
원만회향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1월 6일 (음력 11.22) 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6동 843번지)
■ 문 의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02)735-0501~2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 052)262-6857,6859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 051)467-3316



▶ 금수사 오시는 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민추본 15일 대북지원물품 상차식

최근 화폐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정지돼 의약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불교계가 인도적차원으로 북한에 약과 쌀 등의 물품을 지원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12월 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지원물품 상차식’을 열었다.

민추본이 연말을 맞아 조선불교도연맹에 쌀 300가마(40kg), 의약품 115박스(감기약, 구충제) 총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자 한 것.

이날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신종플루치료약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추본이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조계종의 대북교류기금, 봉은사, 도선사 등 각 사찰들의 보시금, 구례 화엄사가 지역 농민들과 함께 경작한 ‘통일쌀’ 등으로 마련됐다. 상차식에는 화엄사 부주지 영관 스님과 구례농민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자승 스님은 “특히 화엄사와 지역농민들이 경작한 ‘통일쌀’은 의미가 깊다”며 “이번에 준비한 물품이 북한에 잘 전달되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추본 본부장 명진 스님은 “이번 대북지원이 통일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물품은 12월 18일 금강산에서 인도인수식을 통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된다. 인도인수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민추본 사무처장 진효 스님 등이 대표단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민추본의 대북 물품 지원은 지난해 4월 28일 쌀과 의약품 등을 육로로 전달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주 기자**

전통사찰에 도로 ‘반발’

옥련사 경내지 관통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반대



고속도로에 의해 경내지가 관통될 위기에 처한 의성 옥련사에 고속터널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1300여 년 역사와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에 고속도로가 관통될 계획이어서, 조계종 제16교구 본말사 스님들의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2월 18일 기공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2015년까지 총연장 110.6km으로 4차선으로 완공된다.

이 고속도로가 경내지를 관통하는 의성 고운사 말사 옥련사(주지 석우)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천년고찰을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소식에 옥련사는 2000여 사부대중의 반대 서명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등 심의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옥련사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옥련사 측은 “몇 차례 반대공문을 보냈지만 담당기관은 사찰을 관통해 길을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옥련사의 반대 의지 표명이 무색해지자 제16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도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준비 중이다.

주지스님들은 성명서에서 “문화재사찰인 동시에 전통사찰보존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찰 경내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과 문화체육관광부장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 마저도 무시했다”며 고속도로 건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특히 스님들은 “옥련사는 지방문화재 제355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돼 있고, 고속도로 터널 공사 시 터널이 사찰과 100m 거리 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 훼손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문화재법에는 문화재 인근에 건축 · 도로를 설치할 경우 문화재로부터 300m 이상을 이격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동산문화재는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상 규정된 300m의 절반을 조금 넘는 180m 거리 이격에 고속도로 건설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현장답사를 실시한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옥련사 인근에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신라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수행환경 훼손과 생태환경 파괴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진흥원 · 불교방송 ‘파국’

조계종 종회·진흥원·BBS 토론회 개최 결의

불교방송이사회서 진흥원이 추천한 사장후보에 대한 선임이 무산돼 두 기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12월 17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70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출 △사장 선출 △2010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영담 스님은 사장 선출에 관한 건이 상정되자마자, “사장 후보에 관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증해 본 결과 함량미달이었다”며 진흥원이 추천한 후보 중 사장 선임할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스님이 두 후보를 함량미달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김정학 후보자의 선교방송 전력과 윤태원 후보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경영능력과 부족한 방송경력이다.

영담 스님은 “현격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불교방송 사장으로 추천한 진흥원의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담 스님의 문제제기에 진흥원 상임이사인 김규칠 이사를 비롯해 송석구 · 이용부 이사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비공개로 전환된 이사회는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인사 각 2인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장복무규정, 정관상 나이제한 문제 등을 전면 검토하자는 결의안을 내고 마무리됐다.

한편, 이에 앞서 불교방송 이사로 현직 이사 중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춘광 스님(천태종), 무외 정사(진각종)의 연임과 도후 스님의 사퇴로 추천된 정념 스님(前 낙산사 주지)이 새 이사로 선임됐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는 12월 14일 2차 실무회의에서 “1월 28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 대한불교진흥원 · BBS 3개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결의했다.

토론회에는 특위위원장 의연 스님이 발제를, 선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사회를 맡으며, 각 토론자로는 조계종 기획실장 스님과 진흥원 상임이사, BBS불교방송 사장권한대행이나 상임이사 등 실무책임진이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12월 21일까지 공문 등을 송부하고,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토론자를 섭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우 스님(서울 금강사 주지) 등 증언과 관계된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Hello, 달마” 영어법회하자

조계종 포교원 ‘헬로 달마스쿨’ ‘워크북’ 출판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가 첫선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2월 11일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 <헬로 달마스쿨(Hello! Dharma School)> <워크북>등을 출판했다.

본 교재인 <헬로 달마스쿨>은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 핵심적 교리 등으로 선별 구성됐다. 교재는 쉬운 영어 문장으로 집필됐으며 다채로운 삽화의 과감한 사용으로 어린이들의 시각을 끌도록 했다. 본 교재에는 원어민의 영어 발음이 실린 플래시북 CD를 부록으로 만들어 법회 현장이나 가정에서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부교재인 <워크북>은 비교적 쉬운 내용과 그림 그리기, 파닉스 연습, 본문 이해와 평가, 사회 · 과학 · 수학 활동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들을 실었다.

<영어법회지도안(Teacher’s Guide)>도 함께 제작됐다. 지도안은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나 지도사가 어린이 법회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그림, 찬불동요, 율동, 만들기, 그리기 등 통합교육적인 면까지 고려했다. 또 지도안 내에는 <설법지도안>이 있어 법회에 앞서 기본적인 불교의 개념과 교리이해 수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포교원은 전국 62곳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위주로 새 영어교재 설명회와 지도자 워크숍을 통해 지도법 등을 교육,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사찰로 지정된 대각사, 옥천암, 상도선원, 비로자나국제선원 등은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매주 영어법회를 진행 중이다. 교재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매가능하며 포교원을 통한 구매와 지원도 가능하다. (02)2011-1895 **이상언 기자**

“생명의 강 온전히 흐르게 하소서”

종교환경회의, 15일 4대강 사업저지 ‘4대 종단 공동기도회’

수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강행되는 현시점을 생명의 위기로 진단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4대강사업 저지를 발원하는 ‘4대 종단 공동 기도회’를 진행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회개하고 자신과 시대를 정화하기 위해 4대 종단 공동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기도회의 1부는 오영숙 수녀(사랑의씨튼수녀회)의 사회로 효림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의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해 △생명의 노래 △4대 종단 입장발표 및 기도회 △팔당댐 주변 유기농업자들 입장발표 △공동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15일 국회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교단 공동기도회에 동참한 스님들.

2부는 종교인 행진 및 한나라당 대표 면담 자리가 계획됐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각 종단 대표자들만 국회에 가서 종교평화회의의 입장을 전달했다.

종교환경회의는 4대종단공동선언문에서 “4대강사업 예산심의를 즉각 중단시키고 민생예산으로 전환시켜야한다”며 “종교인들은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의 사찰, 교회, 성당, 교당에서 온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각 교단은 4대강 순례 · 홍보지 제작 및 배부(개신교), 4대강 사업 반대 플랭카드를 게재하겠다(가톨릭, 원불교)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지율 스님과 함께하는 4대강 순례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4대강 사업 반대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지율 스님은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낙동강 전 구간을 걸어서 답사한 뒤 지금은 경북 상주시에 정착해 주말마다 경북지역 4대강사업구간(낙동강)을 감시하는 등 ‘낙동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백옥불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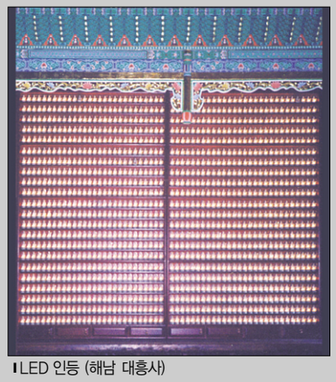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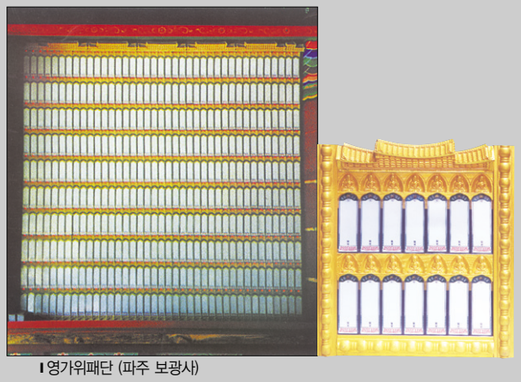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등


공단등 바리등 영가등 금 등

正宇불교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영문 암송대회

국제포교사회 1월 23일

어린이 · 청소년들의 불교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영문 암송대회가 개최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2010년 1월 23일 '제 3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암송대회는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www.idia.or.kr)에 게재된 5가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외국인 스님, 국제포교사 등이 심사하며 표현력, 전달력, 발음, 태도 및 협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본다. 참가는 초 · 중등생으로 개인 혹은 2명이 한 팀으로 참가가능하다. 참가신청은 2010년 1월 5일까지 인터넷(ipogyo@buddhism)이나 팩스(02-722-2203)로 하면 된다. 예선은 1월 9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처님 일생과 불교에 대한 기초 상식을 중심으로 하는 퀴즈 등의 레크리에이션도 함께 진행된다.

박상필 회장은 "암송대회를 통해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 보다 깊게 공부하고 영어 실력도 향상 될 것"이라고 전했다. (02)722-2206

이상언 기자

'동지, 나눔의 날' 팥죽에 사랑 솔솔

조계사 · 중신회 · 봉은사 · 명락사 등 자비나눔 실천해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冬至).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兒歲)이라고 해 팥죽을 이웃과 쒀 먹으며 액운을 털고 새해를 맞이했다.

사찰에서도 동지는 여름결제(結夏), 여름해제(解夏), 연조와 함께 총림 4절이라 해 중시 여겨왔다. 동짓날이면 동지법회를 열고 팥죽 공양을 하고 동지 전날 밤은 '동야(冬夜)'라고 해 연말연시를 맞아 은사스님이나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풍습도 있어왔다.

또 불자들에게 팥죽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광명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컸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遠禍召福)'는 민간 신앙을 넘어 동짓날에는 이웃과 팥죽을 나누며 지난해를 참회하고 희망찬 새해를 서원해왔다.

최근 불교계는 동지를 단순한 민간풍습을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 풍토로 정착시키고 있다.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계 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알리기,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등으로 동지를 보내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02-732-2183)은 21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떡과 차를 돌리며 '정(情)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동짓날인 22일에는 12월 초부터 팥과 찹쌀을 판매한 수익금과 신도회 사회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불 400채(1600여 만원)를 지원, 서울지방경찰청 · 종로경찰서 전 · 의경들에게 컵라면 간식 1600여 인분(160만원)을 보시했다. 또 이날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는 인사동 일대에서 조계사 신도와 인근 시민과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500여 인분의 팥죽을 제공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02-733-7277)와 산하기관 단체들은 19일 인사동 북인사마당(붓광장)에서 '밝은 기운 가득한 작은설 동지'를 주제로 지신밟기, 소원지 태우기, 팥뿌리기, 팥죽 나누기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02-3218-4821)는 22일 동지기도를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교복과 내의 지원을 위한 자비의 동전모으기, 새해맞이 서원지 행사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31일 봉은사 송년의 밤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02-873-3405)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으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팥죽만들기를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김치를 전달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031-426-2348)는 21일 의왕시와 성남지역에서 2500여 명분의 팥죽을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장애인재활작업장, 보육원 등에 나누는 무차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대표 원광 · 심향사 주지, 061-334-2880)는 나주 심향사와 함께 21~22일 동지를 맞아 '잊혀져가는 전통의 맛' 팥죽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및 군부대,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동지 팥죽을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팥죽을 먹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에 앞서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 불교대학은 12월 13일 백양사 상가 번영회 후원으로 지역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노인인 장수군 북하면에 700인분 팥죽을 28곳 마을 · 노인회관에 포장 배달했다. 특히 백양사 강원 학인스님들이 팥죽 보시 울력에 동참해 더욱 의미가 컸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와 김천사암연합회는 15일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시민과 함께하는 동지맞이 자비나눔 팥죽공양' 행사를 진행했다. 성웅 스님과 신도들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광장 시민들과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팥죽을 나눠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상언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직지사 스님과 신도들이 12월 15일 김천역 광장에서 지나가는 시민과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팥죽을 나눠주고 있다.

"어르신 편안하세요?"

군종교구 · 성보회 파라밀 요양원 위문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오른쪽)과 각현 스님, 성보회 불자들이 어르신 생일잔치를 열어 흥겹게 축하하고 있다.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한 군종교구 관계자들과 불자장성 부인회 '성보회'는 12월 11일 연말을 맞아 노인전문요양시설 안성 연꽃마을 파라밀 요양원을 방문해 자비행을 펼쳤다.

성보회 소속 20여 회원들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생일잔치를 여는 한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과 요양원 시설을 견학하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11일 호국 원광사에서 2010년도 군승 43기 파송요원 평가 및 2009년도 요원 응시자 평가를 진행했다. 2010년도 국방부 선발에 앞서 우수한 자원을 확보, 관리하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는 군종교구 국장 스님들을 비롯한 심사위원 6인이 지원자들의 기본설법과 제의식 실수 등 교리 및 의식 집전과 가치관 등을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양천경찰서 법당개원

성민 스님 등 경승 활동

전국에서 불자 경찰들이 가장 많은 곳 양천경찰서에 법당이 마련됐다.

양천경찰서 경승실(실장 성민)은 12월 12일 법당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양천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해 정은식 서장 등 경찰 간부 등 양불회 불자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천경찰서는 9월 경승실장에 서울 장안사 주지 성민 스님을 위촉했다.

이상언 기자

첫 발 떼고 본격 가동 '부릉'

한의사불자련 15일 첫 정기법회 봉행

10월 창립된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이수완) 첫 정기법회가 봉행됐다.

12월 15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구원 돈각 스님의 집전아래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회장 인사말, <금강경> 독송, 사홍서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수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8월 15일 발기대회, 창립기념법회에 이어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0여 분간 진행된 <금강경> 독송까지 법회를 마치고 이 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오늘은 첫 법회인 만큼 시범적인 자리였다. 몇 차례 법회를 진행하고 지도법사를 초청 하는 등 법회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불자연합회는 매달 셋째주 화요일 저녁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이상언 기자

'부처님' 색다르게 토론한다

실상사 1월 4~9일 재가불자 겨울학림 개최

지리산 실상사에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이색 겨울 수련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실상사(주지 재연)는 올해에 이어 2010년 1월 4~9일 출가 수행자와 재가 대중들이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재가불자 겨울학림을 개최한다.

제2회 겨울학림은 교재 <혁명가 붓다>(DJ 깔루파하나 지음, 재연스님 역, 도서출판 숨), <내가 본 부처>(도법 스님 지음, 도서출판 호미)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토론과 강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상강례, 간경 등 사찰에서의 공부방법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생명평화 100대 서원'의 뜻을 음미하고 상기하는 절 명상, 주교재 역자인 재연 · 도법 스님과 만남의 시간, 울력, 자율 수행, 새벽 · 저녁 예불, 발우공양, 다담, 자체 논강, 수계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12월 30일까지 성인남녀 20명 선착순 접수받는다. 참가비는 25만원이다. (063)636-3191, www.silsangsa.or.kr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서울 성북구 정릉동 보림사 보림선원 선방에서는 12월 28일 오후 8시부터 2010년 1월 3일(일) 오전 7시까지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을 개최한다. 철야정진은 거사 선풍을 일으킨 백봉 거사의 테이프 법문을 들으며 진행한다. 참선복과 간단한 세면도구를 준비하면 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9만원. (010)6332-4096

●청소년 겨울수련법회=성주 도솔암은 2010년 1월 1~3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겨울수련법회를 진행한다. 불경 암송(한글 반야심경), 도량 가꾸기, 사불(寫佛)과 이야기, 법구 암송대회, 산속에서 즐기는 전래 놀이 등 깊은 산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신청은 12월 25일까지이며 참가비는 3만 5000원. (054)931-0175

●영어담마스쿨 겨울특강=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10년 1월 4일부터 성인 영어담마스쿨 겨울특강을 1개월 진행한다. 강의는 월, 수, 금 진행된다. 3일부터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영어담마스쿨'을, 9일 오후 3시부터는 어린이영어담마스쿨을 진행한다. 그밖에 매주 일요일 영어일요참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토론, 초기불전강독 '영어 니까야' 등을 진행한다. 한편, 2~3일 경기도 용인 법주사에서 중 · 고등학생 겨울 캠프를 실시한다. (02)6012-1731 cafe.daum.net/cosmicbuddha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새터민 송년법회

경산경찰서 보리수회

경산경찰서 불자모임인 보리수회(회장 유장재)가 북한 이탈주민을 위로하는 송년법회를 열었다.

보리수회 소속 경찰관들은 12월 9일 저녁 석정온천호텔에 북한 이탈주민 50여명을 초청해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송년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경산성당 정홍규 신부 등 불교와 천주교 성직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새터민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자비와 사랑을 전했다.

돈관 스님은 "새터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홍규 신부는 "자비가 곧 부처라는 열반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비행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장기기증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11일 대구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생명나눔실천본부 간부들이 대거 참여해 부처님의 생명공양 정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장기기증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캠페인에 앞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일 대구 달성군에서 '골수기증 희망등록의 의미와 실무'를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골수기증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는 부처님의 생명공양 정신을 실천하는 장기기증 운동과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난달 7일 창립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파계사 풋살대회

대구 팔공산 파계사(주지 법광)는 주지스님배 풋살대회를 12월 13일 대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다. 6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능인중 교직원 · 졸업생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법광 스님은 "2010년 봄에는 지역 각 신행단체까지 참석범위를 넓혀 불자들의 건전한 스포츠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국제선원 건립으로 세계화 시동

천태종 청주 명장사서 기공법회… "웰빙문화 선도 초석 되길…"

천태종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발맞춘 국제선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청주 명장사(주지 용암)는 12월 13일 오전 11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선원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명장사 관음전 자리에 들어설 천태종 국제선원은 지상 3층에 연건평 3185㎡(964평) 3층 규모다. 2010년 완공까지 총공사비는 60억 원(국가보조 30억원, 종단자체 조달 30억원)이 소요되며 1 · 2층은 철근 콘크리트, 3층 목조로 전통사찰형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종정 도용 스님은 기공법회에서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니 흰 소 끄는 장엄한 수레에 올라 열반의 저 언덕에 오른다. 청정한 불심이 모여 극락정토를 이루나니, 시절인연 도래해 상서롭고 밝은 자리 천태일승 묘법 도량에 대작불사 깃발 오르는구나"라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국제선원 건립으로 국가의 위대한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웰빙문화를 선도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 홍재형 국회의원 등 종단 내외빈이 참석해 불교문화 증진을 발원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12월 13일 천태종 청주 명장사에서 봉행된 천태종 국제선원 기공식.



천태종 국제선원 조감도. 사진제공=금강신문

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영주 봉황사서 법회… "불법인연으로 성불하길"

화엄종 종무원 영주 봉황사는 12월 12일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2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12월 12일 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 대법회 모습.

이날 행사에는 종정 법정 스님과 총무원장 혜상 스님 등 종단 지역 교구원장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총무원장 혜상 스님은 봉행사에서 "창종 후 종단은 스스로 기도하고 기원할 수 있는 귀의처가 돼야 했다"며 "종단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은 각자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을 모시고, 번뇌고통이 소멸되고 지혜복덕이 구족돼 즉신성불 하길 바란다. 또 복연과 인연공덕을 지어가길 당부한다"고 기원했다.

식후 행사로는 축하공연으로 가릉빈가 문화예술 단장의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 공양과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무용, 춤사위 한마당 잔치가 열려 즐거움을 함께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사 기금 마련에 진력"

조동종 정기총회 도선사서 열려

대한불교조동종은 12월 14일 노원구 상계동 총무원 도선사에서 부원장, 종회의장, 감찰원장 등 각 교구원장 및 임원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불기 2553년 후반기 정기 총회를 봉행했다.



12월 14일 서울 도선사에서 조동종 종도스님들이 정기총회를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종단 계획을 검토했다. 사업추진은 종회협의를 통해 추진하며 종단 임원을 중심으로 종단화합과 청사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또, 예산은 수립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전년도 결산금을 토대로 집행할 것을 결의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회장에 김동권 경위

경불회 정기총회



옥천경찰서 관내 불자 경찰관들의 모임인 경불회(회장 전동호 경위)가 12월 16일 옥천읍내 한 음식점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서는 2009년을 결산하는 결산보고와 활동사항 보고가 진행됐다.

또, 3대 회장에는 중앙지구대 군서치안센터 민원담당관 김동권 경위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또, 부회장에는 주경종 경위(부청문감사관), 감사에 오명식 경위(동이파출소 순찰팀장)가 선출됐다.

김동권 회장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계도를 많이 해야한다"며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고 서로 묻고 배워서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탁발로 모아 이웃에 쌀로 보시

옥천사암련 불우이웃돕기 탁발정진

옥천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12월 15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탁발정진에 나섰다.



옥천사암연합회 회원들이 12월 15일 탁발정진을 시작하기 전 기념촬영을 했다.

행사에서 회원들은 목탁과 발우를 들고 군청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탁발을 펼쳤다.

이어 옥천 5일장과 구세군 모금행사 등을 찾아 시민들의 따듯한 정성을 모았다.

혜철 스님은 "5년째 계속하고 있는 탁발정진은 해마다 군민의 전폭적인 호의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힘이 솟는다"며 "탁발정진으로 모여진 정성은 옥천에서 나오는 쌀을 구매해 나누어 드리므로 옥천 쌀을 소비도 하고 정도 느끼며 서로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탁발정진으로 모여진 금액은 500여 만원으로, 군내 결손가정 60가구에 40Kg들이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탁발정진에는 청주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 만오 스님, 옥천불교연합신도회 박영학 회장, 전수하 청년회장을 비롯한 옥천지역 각 사암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예술혼 담은 승무

법우 스님 17일 공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법우 스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그 속으로부터 용솟음치는 예술혼을 어김없이 쏟아냈다.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97호 살풀이 춤, 50호 영산재 작법무 이수자인 대전 현불사 주지 법우 스님은 12월 1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공연을 펼쳤다.

법우 스님의 춤은 한국 춤의 살아있는 전설 우봉 이매방(82) 선생으로부터 전승되어 공간미적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절제된 내면의 멋과 흥을 담고 있으며, 구도의 정신에서 묻어 나오는 그만의 춤 세계와 겸허한 마음자세가 숙명적으로 춤을 추기 위해 태어난 자의 몸부림이라 표현할 만하다.

특히 승무는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민속춤의 모든 기법이 집약 되어 있으며 품위와 격조가 가장 높은 춤으로 춤사위에 따라 업에 의한 번뇌는 염불 등으로 승화된다.

혜철 충청지사장

자비의집 백미 보시

대구불교합창단연합

대구불교합창단연합회는 12월 14일 노숙자 무료급식소인 대구 반월당 동화사포교당 보현사 자비의 집을 방문해 20㎏ 백미 30포를 전달했다.

김미자(여실화) 회장은 최근 취임식 행사장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성금을 청소년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면서 동화사 기획국장 학해 스님에게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대구불교합창단연합회는 진각종 대구지역 19개 사찰 합창단이 가입한 연합단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자비실천 송년법회

대불련 대경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는 12월 12일 오후 6시 대구종합사회복지관 평리별관에서 자비실천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회는 지역대학생불교연합회 6개 지회에 15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문자녀 4명에게 70만원의 장학금도 수여했다.

또, 금용사 부설 은아어린이집 원생들과 보림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도 문구와 김장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웃 종교 RELIGION

“법신불전에 일생 바치겠나이다”

원불교 새 교역자 출가서원식 11일 중앙총부서 열려

원불교는 12월 11일 전북익산 중앙총부에서 원불교 새 교역자 38명의 자격을 승인하고 축하하는 출가서원식을 가졌다.

4~6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검정을 통과한 출가 서원자들은 서원식을 통해 법신불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교단의 발전과 교화에 헌신 봉공하기로 다짐했다.

불교의 수계식에 비교되는 출가 서원식은 원불교 선배 교무들로부터 법락을 수여받고 법신불전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서약의식과 경산 장응철 종법사의 설법으로 진행됐다.


원불교 중앙총부(전북 익산)에서 원불교 새 교역자들이 출가서원식을 올리고 있다.

출가 서원자 38명은 원광대 원불교학과, 영산선학대학 4년 과정과 원불교대학원대학교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교화에 전무할 교무 35명과, 예비도무 4년 과정을 거쳐 교육 · 행정 · 자선 등 전문분야에 전무할 도무 2명, 예비덕무 4년 과정을 거쳐 근로와 기능 분야에 전무할 덕무 1명 등이다.

한편, 이날 출가서원한 자들은 내달 초 교단의 인사발령에 따라 정식으로 교당과 기관에서 성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친환경 삶으로 절약해 기부

가톨릭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녹색나눔운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봉사단체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가 2010년 1월 말까지 녹색나눔운동(Eco-Sharing)을 펼친다.



가톨릭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I DO’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배부한다.

녹색나눔운동은 친환경 생활습관으로 절약된 돈을 기부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요일에는 지구와 달을 생각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걷는 BMW족이 되자, 화요일에는 에너지와 열을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플러그를 모두 뽑자, 수요일에는 물을 생각하면서 양치질과 세수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하자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중 홍보를 위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2월 20일 명동대성당 앞에서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 얻어지는 에너지로 트리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김운회 주교는 “우리가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생명경시 타파”

추기경 성탄메시지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12월 15일 성탄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예수성탄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타파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추기경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 중심적 삶이 팽배해 다른 모든 가치관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우리 삶의 중심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추기경은 “성탄은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구원 사업의 시작이며, 모든 사람들을 예외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추기경은 24~25일 명동대성당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집전한다.

이나은 기자

보험으로 나눠?… ‘기부보험’ 눈길

승가원, 교보생명과 ‘참사랑 기부보험’ 업무 협약 맺어

최근 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기부하거나 사후에 전 재산 또는 일부를 기증할 것을 서약하는 유산기부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아 유산 기부라는 개념이 낯설게 다가오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도 사실.

이런 가운데 성인이라면 하나씩은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통해 손쉽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시할 수 있는 후원방법이 생겨 눈길을 끈다. ‘기부보험’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기부가 그것이다. 기부보험은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서 수익자를 자선, 공익단체로 지정하는 형식을 일컫는다.



승가원과 교보생명이 승가원 발전기금을 위한 기부보험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은 12월 10일 교보생명과 ‘참사랑 기부보험’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참사랑 기부보험’은 참사랑종신보험, 정기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보험계약자가 비율을 10~100%로 지정해 지정단체에 보험금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35세 성인남성이 주계약 1천만원, 만기 20년의 보험을 만기 시까지 납입할 경우 사망 시에 1000만원이,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305만원의 보험금이 승가원에 기부된다.

2년 전 기부보험 판매를 시작한 교보생명은 현재 16개 비영리법인과 후원협약을 맺었으며, 이 가운데 불교계 법인은 승가원이 유일하다.

또한 승가원은 교보생명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승가원의 운영상 신뢰도도 인정받게 됐다. 기부보험은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측근이 아닌 제3의 수익자여서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 교보생명은 이를 재정 투명성, 운영 신뢰도 및 도덕성을 적합한 기준으로 검증해 보험계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승가원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대상 단체를 계약자로 해 기부보험을 체결했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 공제 혜택이 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승가원만의 기부보험 상품을 별도로 개발해 자체적인 홍보를 함께 실시 할 계획이며 기부보험을 계약할 경우 승가원을 위한 기부보험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수여하고 승가원에는 보험가입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교보생명 자산관리팀 강연 재무설계사는 “기부보험을 통해 교보생명은 고객을 유치하고 기부자는 손쉽게 새로운 기부방법을 선택하고 승가원은 안정적인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삼자공영을 추구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고 성숙한 선진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인 기부보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가원 법인 사무국장 동욱 스님은 “이번 교보생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보험의 보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한 은행가가 개인 사진전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1500만원 전액을 기부 하기도 했다. 이상원 신한은행 준법지원 부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시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부곡·용문복지관 프로그램 ‘우수’

진각복지재단 후원의 밤 14일 열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 정사)이 사회복지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원의 밤을 12월 14일 서울 AW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진각복지대상 시상식 및 회향의 밤에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불교계 복지기관이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불교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행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은 독창성 · 모델 활용 시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여성 · 아동 · 노인 · 장애인 · 지역사회 부문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들이다.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학교 적응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마음바루기 교실’로 청소년부문상을,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인 ‘행복날개 달기’-우리가족 부처나래를 통한 지역사회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날 진각복지재단은 2010년 사업계획을 통해 △산하신규시설 개원 △사회적기업 설립 △진각상조회 설립 △진각사회복지연구소 개소 △진각혜민서 사업확장 등 5개 사업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생활 휴양 의료 지원 나선다

송파노인요양센터 17일 개원

전국 최초로 1 · 2 · 3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노인요양센터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개원했다.

송파구가 건립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박찬정) 개원식이 12월 17일 열렸다.

센터는 다세대 복합복지문화 시설로 21세기 전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실현을 위해 어르신 복지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생활 · 휴양 ·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7149㎡(2166평) 규모인 센터는 노인요양센터로만 따지면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센터는 151명(요양센터 130명, 주간보호센터 21명)을 수용하며, 요양보호사 55명을 포함한 89명의 직원을 둔다.

운영지원사찰로 선정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수탁에 대해 “고령사회를 대비해 수도권에서도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노인요양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요양센터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안고 해결하는 불자들의 실천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복지사업은 3개 기관의 사업특성에 맞게 전개된다. 3~5층은 요양센터로 주간보호센터, 1~4인용 요양실과 일광욕실 및 휴게실로 갖춰졌고, 2층은 송파복지센터, 체력단련실, 컴퓨터교실 등 복지시설을 갖춤으로써 전 세대의 문화와 건강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02)415-0056

이나은 기자

경 축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년 동계방학 특강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어느 듯 시간의 강이 흘러서 한해의 마지막 달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선정 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짓소리, 법고무,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개설 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짓소리 과정 (교수 김구해 스님, 중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유자)			
개 강 일	2010년 1월 4일 (월요일)	기 간	6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법고무 과정 (교수 이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조교)			
개 강 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기 간	4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불교일용의식과정 (교수 조인각 스님, 중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유자)			
개 강 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기 간	6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화요일, 수요일		

* 주의 : 각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특강수강신청서 1부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문의 전화 02)392-3234 FAX 02) 392-3239

옥 천 범 음 대 학 장 이 기 봉 합장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빙의 치료 대가’ 혜봉스님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치료이며 그중의 하나가 병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병을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골 지장선원’

◆구병시식 다른곳에서 치렀으나 차도가 없는분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 않고 아프신 분
◆신병, 무병으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분
◆영가장애로 사업실패를 자주하는 분

비법전수 받으실 분
한국심령과학연구회
http://www.jijang999.com 〈전국지원, 지회 모집〉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번지
전화 : (054)383-8553, H·P : 011-9585-4908
홈페이지: www.jijangsw.com

세계불교 지장선원종 총본산
동산 혜봉 대종사

‘몸’ 마음공부의 기반 vs 장애


12월 12일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에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오른쪽)와 좌장 김종욱 교수.

밝은사람들 12일 학술연찬회

‘욕망 대상’ ‘지혜 통로’ ‘수행 자체’

몸을 몸답게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

몸은 삶의 토대이며, ‘나’라고 집착하는 한 물건이다.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 간주한 플라톤, 개신교 금욕주의를 비롯해 불교의 부정관(不淨觀)에서도 몸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됐다. 마음공부의 기반이라기보다 마음공부의 장애로써 정신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오염의 진원지로 취급되기도 했던 몸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를 주제로 제8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좌장인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초기불교), 성태용 건국대 교수(대승불교 · 동양철학), 변희욱 서울대 교수(선불교),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서양철학), 우희종 서울대 교수(생물 · 면역학), 강신익 인제대 교수(동서의학)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초기불교=정준영 교수는 주제발표 ‘몸, 놓아야 하는가 잡아야 하는가’에서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몸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몸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통로였다”고 말했다.

붓다는 “육체로서의 몸은 뼈로 만들어지고 피와 살로 덧칠해진 무상(無常)한 것’으로 몸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 설했다. 오온(五蘊)중 색(色, rupa)으로 구성된 몸은 물질 자체가 변괴성을 본질로 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다.

정준영 교수는 “색으로서의 몸은 수(受, 느낌)를 낳고 ‘수’는 애(愛, 갈망)를 불러오며, ‘애’는 취(取, 집착)를 야기한다”면서 “몸을 전제로 한 느낌과 갈애는 집착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야기하는데 매우 현저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몸에 대해 바르게 알고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수행 특징이 됐다. 사념처 수행이 그 예.

정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몸은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놓아야하는 대상으로 이해했다”면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불교=변희욱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 ‘선, 몸으로 하라’를 통해 “몸이 수행과 공부 그 자체의 표현임을 설명했다. 변 교수가 주장하는 몸에 대한 선불교의 시각은 공부의 깊이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변희욱 교수는 “조사들이 침묵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했다”면서 “언어 이전의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선정”이라 강조했다.

선정의 대표적 형태는 좌선이지만, 몸의 형식을 우선시한다면 선이 아니게 된다.

혜능 스님이 “좌선의 핵심은 다리 꼬고 앉는 것이 아니라 양변(兩邊)을 떠나 본래면목을 보는 것”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변 교수는 “선은 본래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게 함이다. 본래성품 혹은 본래면목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선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몸이 없이 내 본래면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희욱 교수는 “선도 악도 생각 않듯이 몸도 마음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부가 깊어지면, 몸이 저절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동양철학=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수신과 양생’에서 “유학에서의 몸은 군자와 소인의 분기점이며, 도덕성 실현의 준거가 된다”고 말했다.

유가에서는 몸 수양이 마음 수양의 기반이지만, 도가에서는 몸에게 자연성을 돌려주는 것이 양생의 길이다.

성 교수는 “유가처럼 몸을 덕과 예의 차원에서 보건, 도가처럼 몸을 무위와 자연의 시각에서 대하건 중국철학은 몸을 통한 부지런한 연마속에서 마음닦음도 함께 이뤄짐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서양철학=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는 ‘몸과 살, 그 신비하고 불투명한 토대’에서 “몸은 인간 활동과 인간의 온갖 바람들이 근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론적인 토대였다”면서 “인간의 모든 가치들이 발원하는 근원”이라 강조했다.

#동서의학=강신익 인제대 교수는 주제발표 ‘의학, 의술, 의덕’에서 몸이 마음까지도 포섭한다는 몸 일원론적인 입장에서 의학을 탐색했다.

강 교수는 “몸을 역동적 생성자로 보는 지혜가 의학이며, 항상 새로워지는 몸의 규범인 의덕(醫德)을 실천적 행위의 체계로 구현하는 것이 의술”이라 설명했다.

이어 강신익 교수는 “의(醫)는 몸에 대한 몸을 통한 몸의 공부”라며 “몸은 마음을 포함하므로 몸 공부는 마음공부이며, 몸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치유”라 주장했다.

#생물 · 면역학=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 ‘창발현상으로 깨어있음의 몸’에서 “몸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진화발생생물학과 정신신경면역학의 입장에서 규명했다.

우 교수는 “깨달음은 몸과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며, 그 하나됨을 통해 그 하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돈오(頓悟)”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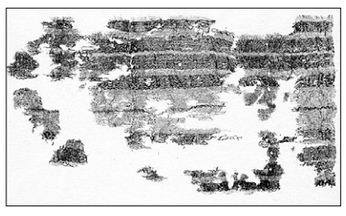
이어 우희종 교수는 “돈오의 바탕이 된 그 하나됨이 실체 없는 창발적 현상이듯, 이때의 돈오라는 깨어있음 역시 완전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창발적 현상”이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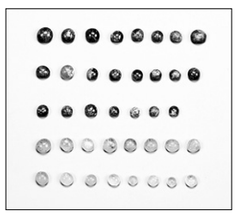
#정리=좌장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되 집착 않고 놓아야한다는 식으로 초기불교에서처럼 몸을 관찰하건, 선불교식으로 온몸으로 의심하건 몸은 기계적 실체가 아닌 복잡계적 창발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몸을 몸답게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마음공부의 튼튼한 기반”이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국내 최고 문양 비단·구슬 등 공개

국립중앙博 “순수 국내 기술로 석가탑 유물 보존처리 완료”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석가탑 사리장엄구 유물 중 금제사리외함과 최고 문양, 새로 발견된 구슬들.


석가탑 발견 유물을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고(最古) 문양의 비단과 370여 점의 유리구슬이 발견됐다. 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이어 제2의 다라니경으로 오인돼 온 지류 뭉치는 1038년 1월 정균이라는 스님이 납입한 향봉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7일 “석가탑 발견 유물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6년 도굴로 훼손된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 다수를 일괄 인수해 보관해왔다. 1988년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보존처리해 공개한 데 이어 2007부터 2년 여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머지 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 작업을 해 왔다.

그 결과,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묵서지편에서 <보협인다라니경>과 불국사 석가탑의 중수과정을 비롯해 고려 초기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중수문서가 확인됐다. 금동제 사리외함 등 사리장엄구의 제작기법을 비롯해 청동으로 알려졌던 청동제 비천상이 금동제(金銅製)인 사실과 은제 매화판이 청동제(靑銅製)인 것도 밝혀냈다.

1967년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당시 흙덩어리 상태였던 매납품 속에서 37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재질의 구슬을 새로이 확인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고대 직물 중 최초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금(錦)과 라(羅), 주(紬), 능(綾) 등 다수의 고대 비단을 찾아내어 복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 동안 제2의 다라니경으로 오인돼 왔던 지류뭉치를 해체해 이 유물이 1038년 1월 정균(正均)이란 스님이 납입한 향 3봉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보존처리는 1988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일본 기술자에 의해 처리된 것인데 반해 순수 국내 보존과학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를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국사 석가탑유물 04-보존처리 · 분석>에 수록해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금오 스님 사상·정화운동 재조명”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발표회서 김광식 교수 주장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인 금오 스님(1896~1968)은 한국불교의 태두로 주목 받는 선지식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큰 비중을 지닌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님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는 미흡했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사진)는 12월 15일 선학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9차 월례발표회에서, “금오 스님에 관한 사상과 정화운동 등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 스님은 명망을 떨치는 수행을 하면서, 불법의 근원에서 이탈하는 불교를 걱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의 최일선에 나선 선지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식 교수는 “문도 외에 스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자료가 전무하다”면서 “금오 스님의 △생애 △사상 △법맥 △정화운동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금오 스님에 관한 자료는 문도회가 발간한 <금오집>과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손신영 전북대 연구교수가 ‘경기도 남양주 흥국사의 불전과 조선후기 왕실’을 주제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불국사 경내 등 사적

문화재청 7개소 재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2월 15일 ‘경주 불국사 경내’ 등 6개소를 7개소의 ‘사적’으로 재분류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주 불국사 등 7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관리돼 오던 곳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분류 기준에 따라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사찰의 경내지역 등은 ‘사적’으로, 사찰의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수림지역 등은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경주 불국사 경내는 구역전체가 사적으로, 그 밖의 사찰은 경내지역과 주변 수림지역은 각각 사적과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 경내’는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으로 재분류됐다.

조동섭 기자

봉행

법인설립 간부초빙 입종안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곳에 입종하세요!

가. 우리종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비 법인종단을 통합하고 찬란한 불교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각 사암 종도들에게 정보교류를 제공하여 근본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애국 애민하는 호국불교 정신을 구현하는데 전념을 다한다.

나. 전 종도 및 사부대중은 현 시대에 발맞추어 찾아오는 종교, 은둔생활을 벗어나 찾아가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면서 이 사회에 봉사한다.

다. 한국 불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미술대전과 국제교류전, 초대전등을 개최하여 초야에 묻힌 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다.

■ 입종안내 : 비구 비구니 작가스님 법사(무속인 제외)
■ 재야작가 :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소, 공예, 불교미술(건축포함) 등
■ 등록서류 : 본종의 소정의 양식,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해 드림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 23-3번지 미송사 총무원
연락처 : 055)747-8006 / 010-5518-0108 / 팩스 : 055) 754-8004

사단법인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법인설립추진위원장 人化堂 知道 外 一同

한국의 명찰시리즈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한국의 명찰시리즈는
불교 전문학술서가 아닙니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사찰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형태의 사지입니다.

사찰이 산중의 수행처만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임을 우리나라 전통사찰 중 대표로 손꼽히는 명찰, 전등사 · 화엄사 · 월정사 편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전등사 1 숱한 외침에 맞섰던 최후의 보루지역 강화도, 전란의 한가운데서 호국사찰로서 면모를 유지해옴과 동시에 독창적인 각종 축제로 대중과 함께하는 오늘의 전등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 · 신대현, 신국판/172쪽/올컬러/18,000원 |

화엄사 2 6.25전란 중 폐허로 변한 주변 암자와 달리 화를 면하고 문화재의 박람회라 할 만큼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해오고 있는 화엄사! 질곡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각종 법회와 교육사업 등으로 대중 속에 파고드는 화엄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 · 신대현, 신국판/228쪽/올컬러/20,000원 |

월정사 3 오대산의 중심사찰로 개산조 자장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암, 탄허스님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 월정사! 국보 팔각구층석탑 등 문화재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단기출가’로 유명한 헌재의 모습과 각종 행사 등을 일목하게 소개하고 있다. | 저자 · 한상길, 신국판/232쪽/올컬러/20,000원 |



※ 한국의 명찰시리즈는 계속 발간됩니다.

발행 및 보급: 대한불교진흥원
☎ 02-719-2606

일주문



불우이웃에 쌀 보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12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쌀(20kg) 50포대를 기증했다.



직지사 청소년 동안거 체험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2010년 1월 5일 어린이 동안거 산사체험을 개최한다. (054)436-6084



해인사 동안거 봉사자 모집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2010년 2월 28일까지 동안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5)934-3088



송광사 구산 스님 26주기 추모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2월 28일 조계총림 초대방장 구산 스님 2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대구불교방송 이사장 선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2월 15일 열린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회에서 제4대 운영이사회 이사장에 선임됐다.



심향사 다문화 템플스테이

나주 심향사 주지 원광 스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12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4차에 걸쳐 개최한다. 참가비 무료. (061)334-2880



강원승마연합회 회장 취임

강릉 녹유사 주지 성인 스님은 12월 3일 강원도 승마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고 사회체육활성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취임

완주 용문사 주지 일허 스님은 12월 11일 태고종 전북교구 4대 종무원장에 취임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 겨울특강

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2010년 1월 3일까지 성인영어 담마스쿨 겨울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012-1731



불교상담개발원 제4대원장 선출

담교 스님은 12월 17일 제18차 임시이사회에서 불교상담개발원 제4대 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육원장 비전 공유하고파"

20년 만에 '깨달음과 역사' 개정판낸 교육원장 현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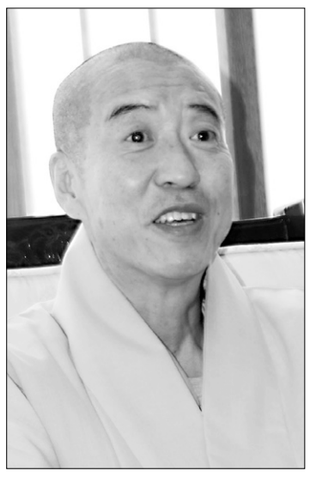
"취임을 맞아 교육원장으로서 종도들과 내가 가진 마인드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출간을 결심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최근 20여 년 전 자신의 저서 <깨달음과 역사>(불광출판사 刊) 개정판을 펴냈다.

<깨달음과 역사>는 1980년대 중후반 스님이 각종 매체에 연재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현응 스님의 깊은 인문학적 소양을 오롯이 담은 책은 출판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인스님들 사이에서는 필독서로 꼽혀왔다. 절판된 지 오래지만 입소문을 탄 책은 복사본까지 만들어져 돌려보는 절집 안 스테디셀러가 됐다. 개정판에는 현응 스님의 시사칼럼이 더해져 불교적 안목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 완성도를 더했다.

스님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중·민주·통일 등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가 드세던 때 작성한 글들"이라며 "불교의 깨달음을 근간으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깨달음과 역사>라는 책 제목도 '보살(菩薩, Boddhi-sattva)'을 현응 스님의 시각에서 풀어 놓은 것이다. 스님은 "보살(Boddhi-sattva)이란 단어는 깨달음(Boddhi)과 유정물(Sattva)의 합성어이다. 유정을 중생의 삶에 관한 총체적 모습을 상징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역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보살은 '깨달음과 역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현응 스님.

지금까지 보살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 정도에 머문 것을 볼 때, 현응 스님의 접근 방식은 파격적이다.

스님은 "현실과 연계한 고민이 초기 불교에서는 미흡했다. 상대적 세계관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고민한 것은 대승불교에서 비롯됐다"며 "<반야경> 등 대승경전에서 연기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관해 물은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응 스님은 "10바라밀 가운데 지혜(智慧)바라밀은 연기적 시각을 갖추는 것을 말하지만, 지(智)바라밀은 사회를 구체적으로 파악·이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역사·철학·사회이론·윤리 등에 있어 불교적 사고를 갖춘 것이 가장 유연한 삶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불교적인 시각으로 사회·역사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계종 승가교육의 방향을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강조했다.

"명석한 두뇌에 경학도 깊이 공부했고 자기사상과 입지가 분명한 사람", "마음 씀이 부러우나 일을 함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외유내강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는 현응 스님. <깨달음과 역사>는 스님의 독서와 사색·수행·실천행의 결정체이다.

한편, 이날 교육원은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언론 내적 성장 발원"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성료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고흥길 국회의원(국회방통위원장), 문광부 조창희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본지 임연태 부국장이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자타불이 자비실천의 불교이념을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가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과 함께 TV·신문·라디오·인터넷 각 부문에 걸쳐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시상됐으며, 불교언론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상이 수여됐다.

유자효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장은 이번 수상선정 심사평에서 "TV와 신문이 두각을 나타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였다"며 "라디오부문이 다소 약세를 보여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의 임연태 부국장은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 기획기사로 신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연태 부국장은 "부도밭은 제2의 설법전"이라며 "앞으로도 불교문화를 대변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이은정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승가교육 전반 총체적 점검할 터"

조계종 교육원 제8기 교육위원장 법안 스님



조계종 교육원 제8기 교육위원회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안 스님(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사진)은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승가상을 정립하는데 교육위원회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교육 원력이 큰 선배스님과 주변인이 많음에도 좁은 식견과 작은 전문성을 갖춘 채 교육위원장 소임을 맞게 돼 책임이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안 스님은 "평소 승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던 차에 NGO 활동을 한 자신의 경험을 종단 교육체계 발전에 활용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조계종 승가교육 정책 기조를 세우고 이를 가시화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나온 "위원회 인사 구성에서 강원이 지나치게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스님의 발언은 장차 제8기 교육위의 활동 범위와 성격을 짐작케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구성을 두고 강원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이를 극복하겠다. 다만 통합종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면면이 이어온 승가교육을 재평가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체적인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법안 스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 부분은 교육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스님은 "교육과정을 점검 하고 일선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도와 법령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위의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스님은 "'세상과 소통하는 승가상'을 위해서는 승가교육이 출가자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구도자다운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원주불교대학 졸업식 봉행

36사단 백호정사서 300여 사부대중 참석

원주불교대학(학장 적천·치악산 구룡사 주지)은 12월 12일 육군 36사단 군법당 백호정사에서 2009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적천 스님이 졸업자들에게 졸업장과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있다.

행사에는 강원영서남부 각 신행단체장, 불교대학 졸업생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적천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한 졸업생들의 원력이 이어져 강원영서지역의 불심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불교대학은 해마다 늘어나는 불교대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9학년도부터 군법당을 이용해 불교대학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강원지역에 이 대학을 졸업한 포교사들은 부족한 군포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졸업식에서 이 대학 동문회(회장 김효열)가 효율적인 군포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법당에 빔-프로젝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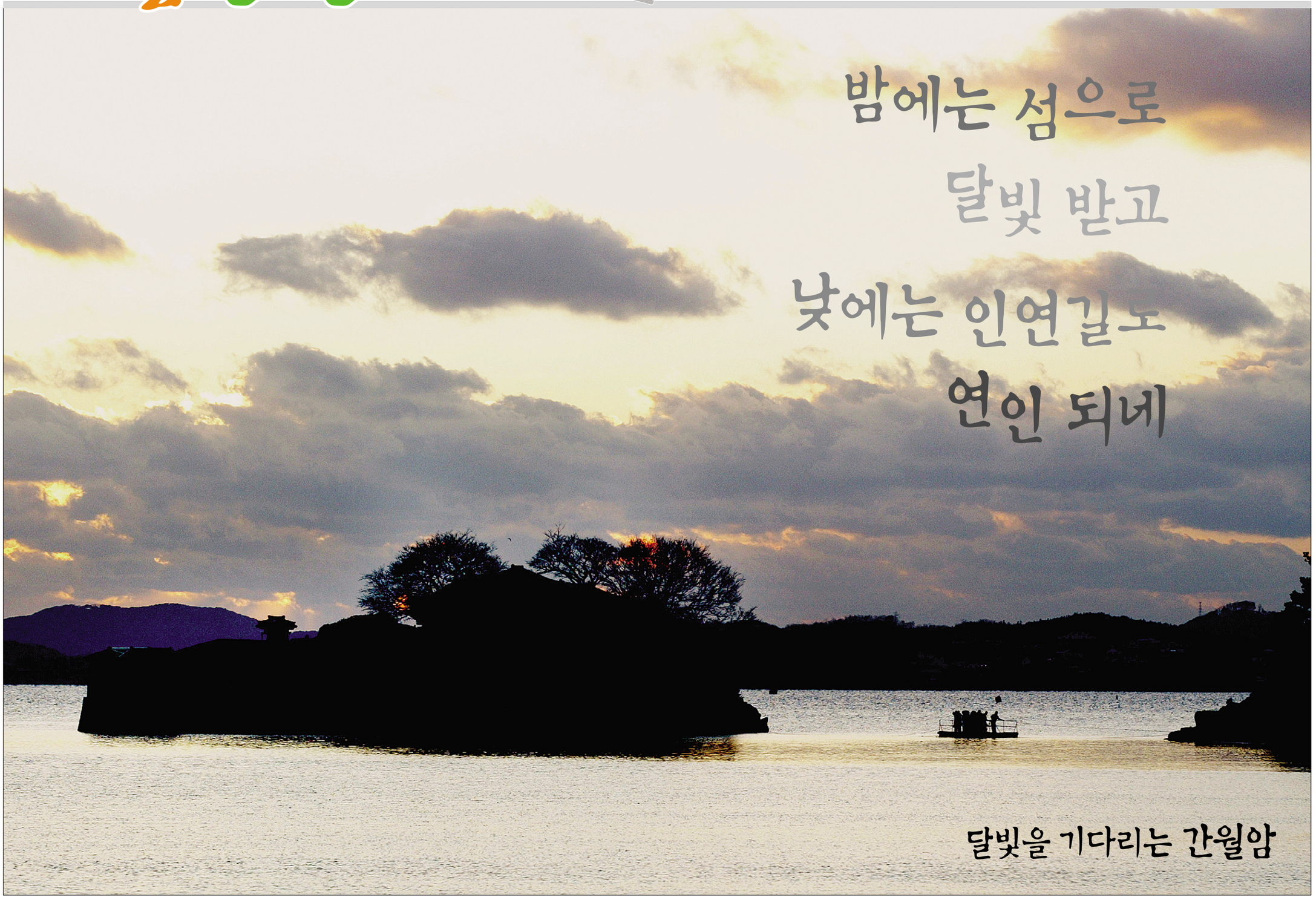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 (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간월암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있는 작은 섬에 자리잡고 있으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 스님이 창건한 암자다. 무학 스님이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서 간월암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조선초 무학 스님이 작은 암자를 지어 무학사라 부르던 절이 자연 퇴락해서 폐사된 절터에 1914년 만공 스님이 다시 세우고 간월암이라 불렀다. 간월암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은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된다.

어제 저녁 작은 섬이었던 간월암은 물길을 거두고 육지에 다가와 있다.
아담한 도량이 한 눈에 들어온다.
달빛으로 물들었던 사철나무가 아침햇살에 꿈을 깨고,
바다에서 불어온 겨울바람이 '간월암' 법당 현판을 소리 내어 읽고 있다.

갈매기가 지나간 지장전 지붕위로 뒤 늦게 갈매기 그림자가 따라간다.
지장전 외벽엔 불자들이 써 놓은 서원들로 가득하다. 누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는 누구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누구는 어제 간월암을 다녀갔다고. 멀어진 바다가 쉬지 않고 파도를 보내온다.

주지스님이 차를 한 준 주신다.
허공에서 머뭇거리던 시선과 시선이 각자의 찻잔 속으로 떨어지고, 마주치던 짧은 침묵들이 허공으로 돌아간다.
"간월암엔 처음이세요?"
처음 온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온 것과 같았다.
"예, 전에 몇 번 밖에서만 보고 갔습니다."

구름 속을 들락거리던 붉은 해가 간월암 뒤로 사라진다. 누군가 지장전 낙서들 사이에 또 한 줄 서원을 남기고 있다.
일몰의 바다 위로 태양의 아쉬움이 번져가고, 육지 길로 간월암에 들어갔던 불자들이
뗏목을 타고 간월암을 나오고 있다. 다시 섬이 된 간월암은 어제처럼 달빛을 기다린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전법2010 전진!
도심포교 전진대법회

부산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2010년 1월 4일부터 도심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선지식을 초청해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법2010, 도심포교 전진대법회'를 봉행한다.

도심포교 활성화와 부산지역 불자들의 신심증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개월간 계속된다. 1월 4일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을 시작으로 2월 2일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3월 16일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4월 6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5월 4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등이 차례로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친다.

한편, 법회 일정 외에도 하루 찻집, 교계지도자 소장품 경매전, 일일 생명나눔가게 등이 운영된다. (051) 853-8539

박지원 기자

'나는 영화매니아'
실버시네마엑스포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범산)은 영화와 UCC를 주제로 한 제2회 실버시네마엑스포를 개최했다.

12월 17~18일 수영구복지관 전관에서 마련된 이번 영화축제에는 UCC경연대회,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2일간 10시간 연속으로 추억의 명작과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나는 영화매니아'와 '다함께 영화봐요' 가 진행됐다. 또,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추억의 일일찻집, UCC 제작체험관, 영화박물관, 추억의 영화포스터 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관장 범산 스님은 "부산에서는 최초로 노인복지관 분야에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만큼 보다 전문사회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051) 759-6070

박지원 기자

생명 · 자비 · 나눔 · 보시를 노래하다
제1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 20여 불교합창단 참가해

2000여 개 사암, 200만 사부대중을 자랑하는 불교도시 부산에 전국의 불교합창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 · 자비 · 나눔 · 보시'를 노래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제1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가 12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윤순) 주최로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20여 불교합창단이 참가해 8개 연합합창단을 이뤄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를 뽐냈다.

부산 영주암(주지 범산) · 황정사(주지 황정) · 금련사(주지 각범)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 '금강'은 <사랑하는 마음이여>와 <아리랑 연곡>,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 · 미룡사(회주 정각) · 진각종(부산교구청장 혜명) 유가합창단의 '화엄'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와 <방갓에 죽장짚고>,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금강암(정만), 내원정사(주지 정련)의 '천수'는 <거위의 꿈>과 <마음>,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 · 부산불교교육대학(이사장 강선태) · 정각사의 '아미타'는 <길>과 <이 날개를 달고서> 등 찬불가 뿐 아니라 대중가요, 국내 · 외 가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선보였다.


12월 10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전국불교합창제 모습.

지역 연합인 전북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송영효) 대전 · 충남불교연합합창단(단장 임응옥) 대구불교연합합창단(회장 김미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등도 차례로 무대에 올라 <붓다의 노래>와 <나무아미타불>, <어느 암자의 사계절> 등의 주옥같은 우리 찬불가를 노래했다.

또,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메들리, 붓다중창단의 <라데츠키행진곡>, 뮤지컬 '남태평양', 도신과 색즉시공, 소프라노 정서영의 <사라의 찬사> <풍년타령> 등 특별공연이 곁들여져 한층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끝으로 모든 합창단 참가자가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합창하며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불교합창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윤순 회장(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대회사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지는 법당과 도량이 온 중생의 귀의처가 되어 병든 자에게는 완치를,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고통 받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전해준다는 일념으로 음성공양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여 스님(부산시불교연합회장, 범어사 주지)은 법어를 통해 "관음의 현신이며 가릉빈가의 공양이 이곳 법석을 통해 사해시방(四海十方)에 점점하니 두두물물 불성"이라며 "스님들의 주야조석 염불 드림도 찬불이며 합창단에서 음성을 고르며 궁상각치우를 노래함도 넓은 의미의 찬불이고 범음범패"라고 설했다. 이어 "이번 합창제가 찬불가의 보급과 불교음악의 대중화의 계기가 되어 부처님의 노래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하는 음성의 예술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김치는 사랑을 싣고~
범어사,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


12월 15일 범어사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정여 스님(오른쪽)이 김장을 담그고 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12월 15일 설법전 앞 마당에서 주지 정여 스님과 스님 40여 명 및 신도 등 100여 명이 모여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해 김장을 담갔다.

주지 정여 스님도 이날만큼은 앞치마를 두른 채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이른 아침부터 미리 절여 둔 배추를 작업대로 옮겨와 양념을 치대어 각 세대에 나눠줄 반찬통에 담아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범어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직접 담근 7000포기의 김장김치는 금정구 관내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 500여 세대에 전해졌다.

정여 스님은 "절에서 담그는 김치는 젓갈이나 마늘 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과일과 고구마 등으로 맛을 내 특유의 맛깔스러움이 있다"며 "여기에 우리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비로운 손맛이 더해져, 이 김치 드시면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인생 잘 사는 길이 바로 봉사"
용호복지관, 첫 자원봉사수기집 '따뜻한 동행'



"내 몸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어르신과 함께 하기로 나 자신과 굳게 다짐했다. (중략) 나도 곧 늙게 될 것이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바로 봉사라 확신한다." (김정순 · 73 ·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봉사자)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도 하나 없이 홀로 쓸쓸히 맞으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극락에 왕생하시라고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다." (양현진 · 63 · 도시락배달 봉사자)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진솔한 눈물과 감동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자원봉사수기집 <따뜻한 동행>을 발간하고, 12월 18일 복지관 내 강당에서 열린 '2009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 책에는 부산 지역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300여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감동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응모된 80여 편의 봉사활동 수기와 활동사진 등 총 36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이춘성 관장은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을 할애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숭고한 뜻을 널리 알려 자원봉사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어 "이번 <따뜻한 동행> 수기집의 발간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넓게 확산돼 또 다른 봉사자들의 간접경험을 통해 향후 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질적 풍요와 나눔과 봉사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일까. 물질적 풍요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그치지만, 나눔과 봉사는 주변사람들은 물론 사회전체로 행복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수기집 <따뜻한 동행>은 현대인에게 삶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참다운 자신의 삶으로의 길을 열어줄 인생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051) 628-6737

박지원 기자

"꽃처럼 고운 천진불을 위하여"
동련 제4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개최

동련 제4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12월 12~13일 양일간 경주 사조마을 콘도미니엄에서 개최됐다.

'해처럼 밝고 꽃처럼 고운 천진불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지도자 250여 명이 참가해 어린이포교의 열정과 원력을 나눴다.


동련 선임이사장 심산 스님(왼쪽)에게 전임이사장 지현 스님이 기를 전달하며 인사하는 모습.

특히 첫날 오후 3시 강당에서 열린 입제식에는 동련 신임 이사장 심산 스님을 맞이하는 이 · 취임식도 함께 마련됐다.

지현 전임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소임을 맡은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감사한 마음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고, 스스로 부족했던 것을 알기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심산 이사장은 "그간 어린이포교에 열정을 가졌던 분들의 실천과 그 당위성을 바탕으로 내년이면 동련이 15주년을 맞는다. 어린이포교라는 끊임없는 원력으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가 동련으로 거듭나기까지 지현 스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임 이사장님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 동련이 한국불교의 근본이 될 천진불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제식에 이어 본격적으로 이어진 연수회는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대한불교교사대학장)의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김영일 차장(조계종 포교원)의 '어린이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오산 대각사 어린이회 지도교사단의 '헬로, 달마스쿨!', 이소정 교사(동국대부속유치원)의 '명상놀이', 사공정규 교수(동국대 의과대학 및 불교상담학과)의 '어린이 정신건강',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부처님의 노래' 등 5가지 주제의 어린이포교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051) 864-4569 박지원 기자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

호남 사찰들 군내 33개 마을회관에 겨울나기 물품 전달

맹추위가 절로 움츠리게 하는 겨울이다. 한해를 마감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때, 호남지역 사찰에서 지역민 등 이웃을 위한 행사가 줄이어 눈길을 끈다.

강진 용문사(주지 혜종)는 신도회, 거사회, 자비신행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14일 군내 33개 마을회관에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대부분 시골노인들이 한겨울을 마을회관에서 기거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도들과 후원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담근 김치와 생필품이 각 마을회관에 전달됐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김치 500포기, 쌀 1000kg, 감귤 30박스 등으로 신도회 회원 100여 명이 매월 1만원씩 사회를 위한 봉사금으로 적립해 마련됐다.

혜종 스님은 인사말에서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며 "불교의 가치는 나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시골의 작은 사찰이지만 이곳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문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과 연말에 불우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 지역 학생들 장학금과 해외 어린이를 위한 물품보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강진 용문사 사부대중이 12월 14일 겨울나기 물품전달을 준비하는 모습.

같은 날, 강진 보은산 금곡사(주지 보각)는 강진 장날 버스터미널에서 '불우이웃돕기 1일 탁발수행 및 자선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비정사 영담 스님, 선암사 선원장 상명 스님, 용문사 혜종 스님을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통기타팀 '소리좋아', 손세창의 판소리, 정인순 살풀이 춤이 이어졌다.

보각 스님은 "지역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강진군내 불교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12월 16일 대웅전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비의 밭' 치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의 밭'은 비전사 신도들이 지난 3월 처음 시작한 기부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 중 일부인 200만원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에 전달됐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달받은 금액을 신경모세포종 4기를 받은 김민석(남 · 5세)군과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다가 완치 치료중인 김종원(남 · 12세)군에게 10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보혜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도들이 자비의 밭을 일구듯 많은 복밭을 만들어 사회가 자비의 복밭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특히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비의 밭에 동참한 비전사 신도는 총 98명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과 한국에 와 사망한 티벳노동자 가족에 대한 생계비, 티벳 지혜학교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앞선 11일, 나주 심향사 비단고을 지혜나눔사랑회(대표 원광 · 심향사 주지)는 나주시내 다문화 가정 및 독거노인들에게 라면 150상자를 전달했다.

원광 스님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따뜻한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을 내실있게 이끌어 가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단고을 지혜나눔실천회는 2005년부터 나주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무료 배달을 매주 월요일마다 펼치는 단체로, 동지나 눔행사, 다문화 아동 교육 및 장학사업, 초등학교 무료공연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인 한자리 모여 학술 · 전시회 열어

광주전남지역 불교문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남도불교문화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열렸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회장 정선종)는 12월 15~18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과 기획전시실에서 '남도 불교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와 기획전시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영호 관장(단국대 박물관장)이 '남도 석조 미술문화의 특성'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이어 정선종 회장(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의 '실상사 수철화상탑비의 음기와 중건에 대하여'를, 황오균씨(전남대 학예연구사)가 '운주사의 사찰 창건과 천불천탑의 조성 배경론'을 각각 주제발표 했다.

행사기간 동안 용지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금석문 탁본전, 문화재 사진전, 연구활동 사진전, 불교 모형 유물전 등이 진행됐다.

정선종 남도불교문화연구회장은 "이번 행사는 남도 불교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에게 남도불교문화의 진수를 전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불교문화연구회는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1989년에 창립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윤경숙 간사

"마음으로 세상보는 능력 생겼어요"

광주불교회관에는 '의지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불자가 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의 윤경숙 간사(사진)이다.

윤 간사는 매일 집에서 사무실을 오가는 30분 남짓한 거리를 2시간 남짓 걸리는 걸음마로 출근을 한다. 200여 포교사가 활동하는 광주전남지역단의 많은 일들을 도맡아 가며 일을 진행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단은 사찰문화해설, 교도소, 군포교, 어린이, 염불봉사 등 7개 총괄팀과 17개의 소팀으로 나누어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포교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간사는 이런 많은 일들을 쉬지 않고 꾸준히 처리해 나가는 살림꾼이다.

윤 간사는 한때 농협에 20여년 근무하며 금융계의 배테랑으로 지냈다. 현재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금융계 베테랑이 아닌 마음으로 일을 하는 불교인.

윤경숙 간사가 불교인이 된 데는 계기가 있었다. 윤 간사는 2002년 광주에서 강진으로 오가는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맞았다. 사고 후 보름 가까이 의식불명에 빠진 그녀는 그 후 2년간 병원 생활을 했다. 그 사고는 그녀에 큰 변화를 주웠다. 감각과 기억상실을 앓게 된 것. 그녀는 지금도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 거기에 일부 시력과 운동능력을 상실했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그녀가 큰 슬픔에도 울지 못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윤경숙 간사는 지금이 새로운 삶을 받았다고 말한다.

"세상을 보는 감각기관은 많이 소멸되었지만, 불교를 통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겼어요."

윤 간사의 새로운 삶은 바로 불교에서 시작됐고, 포교사단의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도구를 선사했다.

"사고 후 몸을 가눌 수 없었지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 남편과 같이 절을 했고요."

처음은 힘들었다. 남들은 잠깐이면 할 수 있는 108배를 윤경숙 간사는 하루 종일 해야 다 할 수 있었다. 소실된 기억력은 불교음악과 명상음악을 듣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좋아졌다.

이런 그녀에게 남편 장송기 포교사는 도반이자 부처님같은 존재이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감정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녀이기에 대답은 짧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온다.

두 부부는 지난 2001년에 최초 부부 포교사로도 알려져 있다.

포교사단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일이 됐고, 그녀는 도반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윤경숙 간사는 아픈 몸이지만 많은 자격증을 따내는 그야말로 노력파가 되었다.

그 후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자격을 얻었다. 또, 건강 가정사, 요양보호사, 풍선아트 지도사, 폼아트 지도사,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섬문화 해설사 등 수많은 자격증은 그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다.

"자원봉사 하는 삶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맑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7공수여단' 3층석탑 조성

13일, 호국천마사에 진신사리 모셔

익산 제7공수여단(여단장 홍병기 준장) 호국천마사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3층석탑이 조성됐다.

호국천마사(주지 지수)는 12월 13일 송광사 도영 스님, 익산 사암연합회 총무 정산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중근 익산신도연합회장, 천마사 금강회장 서종록 중령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천마사 개산 22주년 기념법회 및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3층석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12월 13일 호국천마사 3층석탑 제막식 모습.

호국천마사 법당 개원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송광사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제밤 꿈속에는 머리 마다 부처이더니 이른 아침 눈을 뜨니 물건마다 보살이더라"는 게송을 설했다.

이어 스님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노인들 위한 '만발공양'

대해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대상 어르신들 100여 명 초청

연말을 맞이하여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한 불교계의 온정이 전달되어 큰 감동을 주고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는 12월 14일 센터 2층 강당에서 지역경로당과 주간보호대상 어른 100여명을 초청하여 '만발공양' 행사를 개최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공양하는 모습.

만발공양은 부처님 생전 발우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데서 유래된 자비나눔 실천수행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른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듯 준비한 음식과 위문공연, 연말선물을 제공했다.

무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는 어른들에게 힘든 일이 많았다" 며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돌보듯 어른들에게 '만발공양'을 올리니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지원1동 경로당(백조, 석천, 장수), 지원2동(내지, 용연) 경로당을 비롯해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대상 어른 20명과 일자리사업 어르신 20명, 밑반찬지원을 받는 어른들이 참석해 자비공양을 나눴다.

대해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0세대의 불우노인에게 생필품과 쌀, 연탄을 무료로 나누고 있다. 또 매월 지역 신행단체(한국철도 연등회, KTX 기장모임 보현회)들이 참여해 온천나들이, 목욕봉사, 점심공양을 진행하고 있다. (062)234-221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BORYUNG 보령제약
www.boryung.biz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국내최초 전립선건강기능식품소재

전립선건강! 이제 보령 복합쏘팔메토골드로 관리하십시오.

"소변을 시원하게! 남성을 더욱 남성답게!"

하루 한알로 멋진인생을 즐기세요!

전립선건강에 좋은 보령복합쏘팔메토골드가 출시되어 남성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전립선은 남성들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호두만한 크기의 호르몬기관, 방광출구와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전립선액을 분비해 정액을 만들고 정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남성들은 대다수가 살아가는 동안 한번은 전립선건강이 나빠지는 경험을 갖고 있을것으로 추정될만큼 전립선건강은 중요하다.

전립선은 한번 불편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고 회복하더라도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잦은술, 담배와 스트레스 등으로 자칫 건강을 잃기쉬운 40대이상 남성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것이 전립선 건강이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는가 하면 소변을 보아도 뒤끝이 깨끗하지 않아 늘 불쾌한 기분이 든다. 운전이나 사무직 등으로 오래 앉아 있는 분이라면 수시로 일어나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움직여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전립선건강을 유지하려면 전립선 마사지와 온수 좌욕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거나 전립선건강에 좋지않는 성분인 카페인, 알코올, 짜고 매운 음식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쏘팔메토란?

쏘팔메토는 국내최초 전립선건강 기능식품소재로 북아메리카 대서양 해안을 따라 야생화처럼 자라는 작은 야자나무의 일종으로 잎사귀의 밑부분에 있는 톱니바퀴처럼 생긴줄기로부터 그이름이 유래되었으며, 수명이 700년이나 되는 쏘팔메토는 가뭄과 해충에 강하고 불에도 거의 파괴되지 않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옛부터 인디언들이 남성건강을 위해 먹어온 천연야자수로 전립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다.

현재 유럽국가에서는 전립선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자의 고민, 전립선건강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저하되어 현대남성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현대인의 수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서구화된 식생활이 전 연령에 걸쳐 보급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찾는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해결방법으로 음주와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남성전립선 건강은 주황색등을 지나 적색등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40세이후 남성들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립선이 안좋아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없으면 정말 짜증난다. 힘을 주어야 나오는가 하면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아 있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짜증만 난다. 소변이 가늘게 나오며 시원하지 않고 힘을 주어야 하는 분이라면 보령 쏘팔메토골드를 눈여겨 보자.

쏘팔메토+옥타코사놀+아연+비타민B2 등 복합형건강기능식품

전립선제품의 힛트상품인 보령복합쏘팔골드는 전립선건강에 도움을 주는 쏘팔메토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옥타코사놀, 정상적인 면역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에너지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2등이 복합함유된제품으로 더욱 좋아진 보령 복합쏘팔메토 골드!

특히 이제품은 식약청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써 소변속도개선 등 전립선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50년 전통의 보령제약에서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해 출시한 보령 쏘팔메토! 주문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립선건강이 남자의 건강입니다. 하루 한알로 멋진 인생을 즐기세요!

300셋트 할인한정판매

전립선 건강정보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 배뇨 후 소변이 남은 느낌이 든다.
- ☑ 소변이 끊기거나 가늘게 나온다.
- ☑ 소변을 참기가 힘들고 자주 본다 .
- ☑ 소변이 마려워 잠을 자주 깬다.
- ☑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 ☑ 오래 앉아 있는 분

쏘팔메토골드출시!

「옥타코사놀 · 비타민B2 · 아연」
네오젤(제10-0575199)공법 특허캡슐로 차별화
- 쏘팔메토 –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 옥타코사놀 – 지구력 증진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_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제품명 : 보령복합쏘팔메토골드
- 제품의 유형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내용량 : (600㎎×180cap)
- 섭취량 및 섭취방법 : 1일 1회, 식후 섭취

BORYUNG 보령제약
주문전화 080-830-3300

‘기연’이 작용하여 발심출가 정진하니 ‘법연’이 숭고하네

㉕ 중생심이 멈춘 곳 강릉 보현사

백두대간의 유장한 산맥이 굽이쳐 흐르는 대관령. 영동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서의 대관령은 큰 고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내리뻗는 산맥의 기상은 동해의 푸른 물을 배경으로 웅혼하기만 합니다. 보현산은 대관령에서 동쪽 면으로 자리하여 아름드리 소나무와 각종 관엽수로 단장한 웅숭깊은 산입니다. 만월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동해에서 솟아 오른 달빛이 산을 가득 채우는 풍경이 그려지는 이름입니다.

보현사의 원래 이름은 지장사(地藏寺)였고 지장사의 중심은 지장선원이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지장사는 보현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절 이름이 보현사이고 그 중심인 선원은 그대로 지장선원입니다. 선원도 오래 빈 터로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 중창되었습니다. 산과 절은 둘이 아닙니다. 산 이름이 절 이름으로 변하는 동안 산은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절의 이름이 바뀐다고 하여 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산 일 수 없고 이름이 절일 수 없을 뿐입니다.

솔향기와 푸른 바람의 속살을 헤치고 들어가는 보현사 가는 길은 보현보살의 품 일 것만 같습니다. 그 아늑한 공간에 서 있으면 푸른 이끼를 덮은 고목도 나의 몸이 되고 겨울바람에 온 몸을 맡겨버린 바위너설도 내 몸이 됩니다. 새로 단장된 지장선원 마당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도량을 연 낭원(郎圓)대사를 생각해 봅니다.


낭원 대사 오진탑비.


보현사 부도 밭. 한 어린이가 스케치를 하고 있다.


낭원 대사 부도.

낭원대사는 신라 흥덕왕 8년(834)에 태어나 고려 태조 13년(930)에 입적한 고승입니다. 사굴산문의 개창조 범일국사의 제자인데 그의 시대는 나라가 바뀌는 혼란기였습니다. 그가 활동한 강릉지방은 그 당시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 사이에 교집합처럼 끼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호족세력을 흡입시키는 과정에 복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혼란한 때에는 소인배와 무뢰배가 횡행하기도 하지만 덕이 높은 스승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인륜이 피폐할 때도 높은 가르침이 드러나 사람 사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법입니다. 혼곤한 민초들에게 한 그릇의 따뜻한 국과 밥 같은 선지식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이 바로 범일국사와 낭원대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보현사 사역의 중간에 낭원대사의 탑비 오진탑비(悟眞塔碑 보물 제192호)가 있고 삼성각 뒤쪽으로 100m 가량을 걸러 올라 간 곳에 낭원대사 부도(보물 제191호)가 있습니다. 먼저 탑비를 어루만져 봅니다.

절의 당우들이 석축 위 너른 터에 지어져 있는데 비해 오진탑비는 석축 아래에 서 있습니다. 때문에 석축 위에서 비를 감상하면 이수의 현란하고 씩씩한 문양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주위에 놓인 여의주를 향해 네 마리의 용이 다투는 헌걸찬 모습은 탑비의 조형미와 격조를 무척이나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낭원대사가 입적하고 난 뒤 10년 째 되는 해(고려 태조 23년, 940)에 세운 오진탑비에 비문을 쓴 사람은 구족달(仇足達)로 고려 초기 태조의 신임을 얻었던 학자의 필명인 것 같습니다. 비문에는 낭원대사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원대사는 신라 사람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낭원대사의 어머니는 신승(神僧)이 금으로 된 도장을 주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대사를 낳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 학문에 힘썼고 어느 날 스스로 출가를 결심합니다. 부모님께 출가 의사를 밝히자 부모는 범상치 않던 꿈을 되새기며 출가를 허락합니다.

세간을 떠나는 출가는 모름지기 발심출가여야 합니다. 스스로 지대한 발심을 하여 생사의 옷을 바꿔 입을 각오로 첫 발을 내디뎌야 수행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도 다생의 기연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옛말은 숙세의 기연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법문중에 들어오기가 어려움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낭원대사가 출가하는 대목을 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에 큰 뜻을 품고 소천(所天, 아버지)에게 여쭈어 입산수도를 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더니, 대답하되 “전일(前日) 태몽을 생각하니 완연히 맞는 일이다” 하면서 사랑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하고, 그의 뜻을 막지 않았다. 그리하여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떠나 절을 찾았다.

오진탑비 축대 아래 있어 이수 감상하기 편해

신라 말 고려 초 혼란기 중생들에게 따뜻한 귀의처로 존경받아

화려함과 웅장함 절제한 부도에서 ‘가풍’ 보여

출가를 향한 간절한 뜻을 품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청년의 모습과 끝내 사랑하는 아들을 산문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등에 책을 짊어지고 ‘큰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 등이 애잔한 영상으로 떠오릅니다.

지리산 화엄사를 본사로 출가한 대사는 진주의 엄천사 등 남쪽지역의 절들을 찾아다니며 구법에 매진하고 계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의 금산으로 들어가 ‘화엄의 일음교(一音敎)를 읽고 금강삼매를 성취’ 합니다. 그의 정진은 100일 동안의 단식과 3년간 솔잎만 먹는 치열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간절하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 부처님의 수행이력에서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보입니다.

지리산 권역에서 정진하던 낭원 대사가 북쪽 끝 강릉으로 와 법석의 당간을 세운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즉, 남쪽의 낭원 대사가 북쪽의 범일국사에게 입실하여 제자가 된 계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문을 읽어 봅니다.

부지런히 참선하던 중 홀연히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쳐다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선객으로 변하였는데, 그는 선풍도골로서 찬란함이 마치 옥광(玉光)을 발하는 듯, 흰 서리를 드리운 듯하였다. 대사에게 이르되 “스님은 마땅히 이 길의 끝까지 가되 먼저 굴령(堀嶺)을 찾아 가십시오. 거기에는 시대를 탄 대사이며 세속을 벗어난 신인(神人)이 계시니, 능가보월의 마음을 깨달았고 인도제천의 종성(宗性)을 모두 통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사는 그 길로 불원천리하고 오대산에 이르러 통효(通曉 범일국사)대사를 친견하였다. 대사가 말씀하시되 “어찌 그리 늦었는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곧 입실을 허락하였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하는 사람끼리는 멀고 가까움도 이르고 늦음도 관계가 없나 봅니다. 범일국사의 문하에 들어 간 낭원 대사는 스승의 맥을 이어 제방에서 찾아오는 운수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중국의 마조와 서당지장에 비유했습니다. 서당지장으로부터 선종의 법맥이 한반도로 들어와 구산선문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니 보현사 지장선원은 바로 서당지장의 법맥이 정통으로 이어져 온 사굴산문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낭원 대사의 부도가 있는 산 중턱은 아늑합니다. 올라가는 오솔길에서 만났던 매운 겨울바람이 부도 앞에는 없습니다. 부도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뭔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생략하는 마음은 이미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아는 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되 복잡하지 않게 하는 마음, 장엄함을 강조하되 최대한으로 절제하는 마음은 바로 도의 경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낭원 대사의 부도가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팔각의 지대석에 덤덤하게 연꽃을 표현하고 역시 팔각의 몸돌에 문비만 슬쩍 표시해 둔 무심한 솜씨가 낭원대사의 치열한 구도역적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절제로 읽히는 것입니다.

보현사 입구에 자리하는 부도밭에 들어섭니다. 20여 기의 석종들이 엇비슷한 키로 서 있습니다. 몸돌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지만 주인의 생애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끼가 곱게 덮은 석종들을 자세히 보면 윗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색의 옷을 입고 한 절에서 밥을 먹고 한 법당에서 예불하고 정진하면서 사는 수행자들이지만 각자의 성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개성이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면모임을 말하고자 부도들도 제각기 모양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줄로 늘어선 부도 사이에 1m가 조금 안 되는 높이의 돌절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곡식을 빻던 절구인지 입적한 스님의 유해를 빻던 절구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은 그 절구가 부도밭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절구라도 공양간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곡식을 빻던 것이라 여길 텐데 하필 부도밭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용도가 사뭇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심인 줄 알면서.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佛 불광승복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복 주문하시면 사찰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가사불사
(2)장삼불사
(3)승복일체
(4)손 누 비
(5)모시께끼
(6)수 련 복
(7)소품일체
[향,모자,가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1-29 103호 한빛아크빌
02)383-3681 / 010-3879-3681 윤병대 합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5

일체를 생동케하는 법음

[원문]
용음고목유생희(龍吟枯木猶生喜)
촉루생광식전유(觸髏生光識轉幽)
뇌락일성공분쇄(磊落一聲空粉碎)
월파천리방고주(月波千里放孤舟)
–희양산 봉암사 조사당

[번역]
용은 고사목이 살아있는 듯 소리를 읊고
해골에서는 그윽한 알음알이의 빛이 생기네.
선선한 한 마디 하늘 부스러뜨리며
달그림자는 작은 배를 천리나 멀리 띄워 보내네.

[선해(禪解)]
산사의 겨울나기는 참으로 힘들다. 전기와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암자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요즘에야 사찰에도 전기와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편안하지만, 60 ~70년대만 하더라도 겨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행(苦行)이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음력 10월 15일이 되면 세 달간의 동안거에 들어간다. 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스님들은 겨우내 땔 장작을 마련해야 하고, 매끼니 공양할 메주도 떠놓아야 한다. 이것 자체도 하나의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물자가 풍부하지 못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동안거는 하안거보다 수행하기가 더욱 힘들다.

봉암사는 한국 사찰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선불교 수행도량이다. 일제시대 때 왜색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해방 후에도 한국불교는 선불교의 전통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의 회복을 위해 봉암사는 한국 근대 선원으로 부활하게 된다. 즉 '봉암사 결사'가 바로 그것이다. 1947년 성철 스님을 필두로 청담 · 자운 · 우봉 스님 등 네 분의 큰 스님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 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고쳐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는 원을 세웠다.

그 후 청담 · 행곡 · 월산 · 종수 · 보경 · 법전 · 성수 · 혜암 · 도우 스님 등 20인이 결사에 참여했는데 당시 결사대중은 공주 규약을 제정해 추상같은 법도를 세워 오늘날 수행의 근간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결사정진도 1950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된다. 그 후 1970년 초부터 다시 수좌들이 봉암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봉암사 희양선원은 1972년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5명의 납자가 정진했으며 1974년에 서옹 스님이 조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향곡 스님이 줄곧 조실 역할을 하면서 납자를 제접했다. 1980년경 서암 스님이 정식으로 태고선원 조실로 모셔지면서 선원은 청룡의 승천과 봉황의 날개짓 처럼 웅대한 자태를 희양산 자락에 펼치게 되었다. 1982년 6월 종단은 봉암사를 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해 성역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82년 7월 문경군에서는 사찰 경내지를 확정 고시하고 봉암사 지역은 특별수도원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동방제일 수행 도량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처럼 봉암사는 한국 선불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수행 도량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봉암사는 신라 헌강왕 때인 879년 지증도헌 국사가 창건하였다. 당시 심층 거사가 대사의 명성을 듣고 희양산 일대를 희사하여 수행도량으로 만들 것을 간청하였다. 대사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곳을 둘러보고 "산이 병풍처럼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흡는 것 같고 강물이 멀리 둘러쌓였는데 즉 뿔 없는 용의 허리가 돌을 덮은 것과 같다."며 경탄하고 "이 땅을 얻게 된 것이 어찌 하늘이 준 것이 아니겠는가. 스님들의 거처가 되지 못하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 라 하며 대중을 이끌고 절을 지었다.

지증 대사가 봉암사를 개산하여 선풍을 크게 떨치니 이것이 신라 후기에 새로운 사상흐름을 창출한 구산선문 중 하나인 희양산문이다. 그 후 후삼국의 대립 갈등으로 절이 전화를 입어 폐허화되고 극락전만 남았을 때인 고려태조 18년 정진 대사가 중창하여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다. 지증 대사가 봉암사를 개산하여 선풍을 크게 떨치니 이것이 신라 후기에 새로운 사상흐름을 창출한 구산선문 중 하나인 희양산문이다. 그 후 후삼국의 대립 갈등으로 절이 전화를 입어 폐허화되고 극락전만 남았을 때인 고려태조 18년 정진 대사가 중창하여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다. 조선조 세종대왕 때 험허당 기화 스님이 절을 중수한 뒤 머물면서 <원각경소>를 저술하였고. 1674년 다시 소실된 절을 신화 스님이 중건하였으며 1703년 다시 중건하였으나 이후 크게 쇠퇴하였다. 이후 태조 18년 정진 대사가 사찰의 소임을 볼때는 이 봉암사에 3천여 대중이 머물러 동방장과 서방장으로 나누어 정진을 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태고 보우국사'를 비롯한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정진하여 "동방의 출가 승도는 절을 참배하고 도를 물을 때 반드시 이곳 봉암사를 찾았다" 고 한다.

봉암사의 유적으로는 봉암사 3층 석탑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와 상부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의 비례와 균형이 조화되어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상륜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한국 석탑 중에서 매우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증 대사 적조탑과 마애보살좌상이 지방문화재로 등록 되어있다.

그럼 조사당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용음고목유생희 촉루생광식전유: 용은 고사목이 살아있는 듯 소리를 읊고 해골에서는 그윽한 알음알이의 빛이 생기네.'

용음이란 용이 소리를 길게 내 뿜는 것을 말하고 촉루는 해골을 뜻한다. 즉, 여기에서 용은 성스러운 부처님을 일컫는데 부처님의 위엄한 말씀을 듣고 고목의 잎과 나무 가지가 춤을 추고 죽은 사람들의 해골조차 광명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참으로 부처님의 용음은 이렇듯 생명체와 무생물까지 살아움직이게 할 정도로 광대하고 무변하다.

아니, 실상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법음을 한시도 멈춘 바 없이 들려주는 동시에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일체 존재 그대로가 부처의 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은 천지를 비춰 중생의 마음 적신다
봄 꽃과 가을 단풍도 알고보면 모두 부처님 법음

'뇌락일성공분쇄 월파천리방고주: 선선한 한 마디 하늘 부스러뜨리며 달그림자는 작은 배를 천리나 멀리 띄워 보내네.'

뇌락은 우둔한 근기를 가진 중생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선선하고 너그러운 말씀을 뜻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은 선선하고 너그러우나 하늘을 부술 정도로 위엄이 서려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때론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요하거나 우뢰와 같거나 말없음이 모두 모든 짐승을 두려움에 떨게하는 사자후인 것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그 말씀은 마치 천지를 비추이는 달처럼 널리 퍼져 중생의 마음을 적신다. 이렇듯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은 전생, 현생 내생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 지상 어느 곳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푸르른 나뭇가지, 가을에는 붉은 단풍, 겨울에는 벌거벗은 나무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장통 상인들과 손님간의 흥정과 말다툼 그대로가 불법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으니, 부처님 법은 시 · 공을 초월해 중생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5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라

[원문]
若不見性 講經 決無憑 說亦無盡 略標邪正如是不及一二也. 頌曰 心心心難可尋 覓時遍法界 猗也不容鍼 我本求心不求佛 了知三界空無物 若欲求佛但求心 只這心心心是佛 我本求心心自持 求心不得待心知 佛性不從心外得 心生便是罪生時. 偈曰 吾本來此土 傳法救迷情 一華開五葉 結果自然成.

성품을 보지 못하면 경론을 강설하여 주더라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리라. 설법을 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사됨과 바름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모두들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게송으로 말하리라.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찾기가 어렵구나. 너그러울 때는 법계에 두루 하지만 좁을 때엔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지 부처를 찾은 적이 없느니라. 삼계가 공(空)하므로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노라. 부처를 찾으려면 오직 마음을 찾아라. 이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내 본래 마음을 구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으니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니라."


채초(蔡超) 작, '달마 면벽도' (1980).

법을 전하는 게송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건지려 한 것이니/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열리어/ 열매가 저절로 맺으리라."

[해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즉, 우주의 근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설을 해주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달마 스님께서 삿됨과 바름, 정도와 외도를 말씀 하셨지만, 아직도 충분하게 알아듣지 못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찾기가 어렵구나.'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찾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면 되는 겁니다.

'너그러울 때는 법계에 두루하지만 좁을 때엔 바늘끝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부부 사이에도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포용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바늘구멍 만큼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제대로 쓰면 한량 없는 우주와 같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면 바늘구멍 보다도 더 좁은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도 지옥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지 부처를 찾은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본래 마음을 찾아야지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삼계가 공(空)하므로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노라. 부처를 찾으려면 오직 마음을 찾아라.'

색계, 욕계, 무색계가 다 공하고 마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으니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마음은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니라.'

불성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도 번뇌니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體)'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번뇌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건지려 한 것이니/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열리어/ 열매가 저절로 맺으리라.'

인도에서 오신 달마 스님께서는 부처님으로부터 28번째 법을 이어받으신 28조 조사(祖師)입니다. 여기서 '한 송이 꽃'은 달마 스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禪)을 다른 말로 꽃이라고 말합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들어가는 화(華)자에 '빛날 화'자를 쓰기도 하지만 '꽃 화(花)'자로도 씁니다. 진리 차원에서 보면 이 우주가 모두 꽃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자신을 스스로 한 송이 꽃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 선종에선 법을 이어받은 순서대로 달마 스님께서 1조가 되고 2조가 혜가 스님, 3조가 승찬 스님, 4조가 도신 스님, 5조가 홍인 스님, 6조가 혜능 스님입니다.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열린다는 말씀은 다섯 분(혜가, 승찬, 도신, 홍인, 혜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분이 중국 전 대륙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선(禪)을 알리고 선의 꽃이 활짝 피어 열매 맺게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달마 관심론(觀心論)'이 연재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남의 허물 볼수록 분별심 깊어지니 그저 방하착하라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평소 정진하며 잘 사는 것이 바로 웰다잉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져야 공부길에 들어설 수 있어

따사로운 겨울햇살이 한 낮의 화엄사 도량을 채우고 있다. 연기(緣起) 대사의 눈에는 백제 땅을 휘감고 있는 지리산이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신령스런 산으로 느껴졌다. 부처님의 원융무애 한 '화엄사상'을 펴기에는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지리산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하여 연기 대사는 지금의 화엄사에 절터를 잡은 것이다.

각황전 옆으로 나있는 백팔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하나를 밟을 때마다 번뇌 한 가지를 버리면서 올라오라는 의미일 터이다. 계단의 끝에는 노송으로 둘러싸인 사사자(四獅子)3층사리석탑이 자리 잡고 있다. 연기 대사의 효심이 서려 있는 석탑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하다. 석탑의 스님상은 연기 대사의 어머니가, 석탑과 마주하고 있는 석등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차를 공양하는 연기 대사가 조각되어 있다.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 대사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공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석등의 형태로 조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사자석탑을 외호하듯 바로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견성당(見性堂)은 현산 스님의 거처이다. 조석으로 드나들며 석탑과 연기 대사에게 눈 맞춤한 세월도 십여 년에 이른다. 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다.

견성당에 들어서려면 성적문(惺寂門)을 지나야 한다. 공부의 길은 성적을 여의지 않아야 하는 법,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져야 비로소 공부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온 몸으로 전하고 있다.

사미승 때부터 제방의 선원을 다니며 공부한 그 햇수를 헤아려보니 반 백 년의 세월이다. 산천에 꽃이 피고 지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부가 참으로 다급했기에 좌복 위에서 100안거를 훨쩍 넘겼다. 스님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마음공부'가 결코 쉽지 만은 않다고 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 세상 어영부영 살다 보면 눈은 곧 침침해지고 백발이 찾아오고 세월은 금방이라. 내 면목 모르고 살아온 시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지 못한 것이 '죄업'인 것을 안다면 하루가 다급하지."

현산 스님은 출가 전부터 '화두참선'을 알았고 화두참선을 원 없이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아마도 전생에 익힌 습이 있어 그랬던 모양이라"면서 출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점지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어머니는 광주 약사암에서 백일기도를 했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가사 장삼을 수하신 스님 한 분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태몽이 되었고, 스님은 출생과 더불어 집안에서 '스님이 될 아이'로 특별하게 생각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대흥사 스님이었던 한문 선생님에게 <반야심경> <능엄경>등의 경전을 배웠다. 부처님 가르침에 절로 환희심이 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전을 공부했다. 그때 화두참선도 배웠는데, 물질의 세계가 아닌 고귀한 정신세계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된 경이로운 사건이었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출가를 해야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장남이었기에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은 "원래 스님이셨던 분이 우리 집에 잠시 아들로 온 것인데, 정해진 길로 가야지"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을 뿐더러 "꼭 도인이 되라"고 축복 해주시더란다. <본생담(本生譚)>의 한 구절을 듣는 듯하다.

도천 스님을 은사로 입산하여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고나서 선방을 떠돌았다. 일생을 선방에서만 보내온 만큼 동산 스님, 전강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춘성 스님, 금오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었다.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잠깐 공부했는데,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에 두루 능통하셨고 특히 계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청정하신 분이라 그런지 열반하실 때도 참 깨끗하게 고요하게 가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량청소하고 선방에서 정진하고 나시더니,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가보아야겠다'고 하시더니 그날 오후에 열반에 들었어요. 이것만 보아도 보통 공부한 분이 아니지요.

인천 용화사에 선방은 없고 조실채만 있을 때 전강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어요. 스님은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12시만 되면 눈을 뜨고 계속 정진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행력을 보였습니다. 그때 스님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판검사가 되려고 해도 병이 생길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데, 만법의 왕인 마음을 공부하는데도 그만한 대가와 시간을 들여야 한단다. 세세생생 몸에 익혀온 습을 바꾸려면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무엇이든 오랜 시간 몰두해야 성취할 수 있잖아요. 참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며 허황된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솟아나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혜안을 갖추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쭈었다.

"첫째는 불견세간우(不見世間憂)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다 내 업장이고 내 탓이지,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허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다 보면 진심(嗔心)이 일어납니다. 진심이 일게 되면 결국 육체가 병들어 무너지고, 마음 또한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옛 조사님들은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다만 나의 허물을 잘 살필 것이며, 산란한 마음을 화두로 돌이켜서 '이뭣고'를 참구하라고 일렀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자니 육조 혜능 스님의 일화 한 토막이 떠올랐다.

혜능 스님의 명성을 듣고 신회 스님이 찾아왔다. 혜능 스님께 예배하고 나서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혜능 스님은 벌떡 일어나서 신회 스님을 몽둥이로 세 번이나 때리고 나서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더냐, 아프지 않더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말씀하였다.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 말씀에 신회 스님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고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보아서 무엇 하랴.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분별심만 깊어지니 그저 방하착하란다. 평생을 선방 수좌로 살아오신 현산 스님은 마음공부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단다.

"내 면목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하고 듣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은들, 자식을 아무리 잘 키운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깨달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겠지. '이 뭣고' 한번 잘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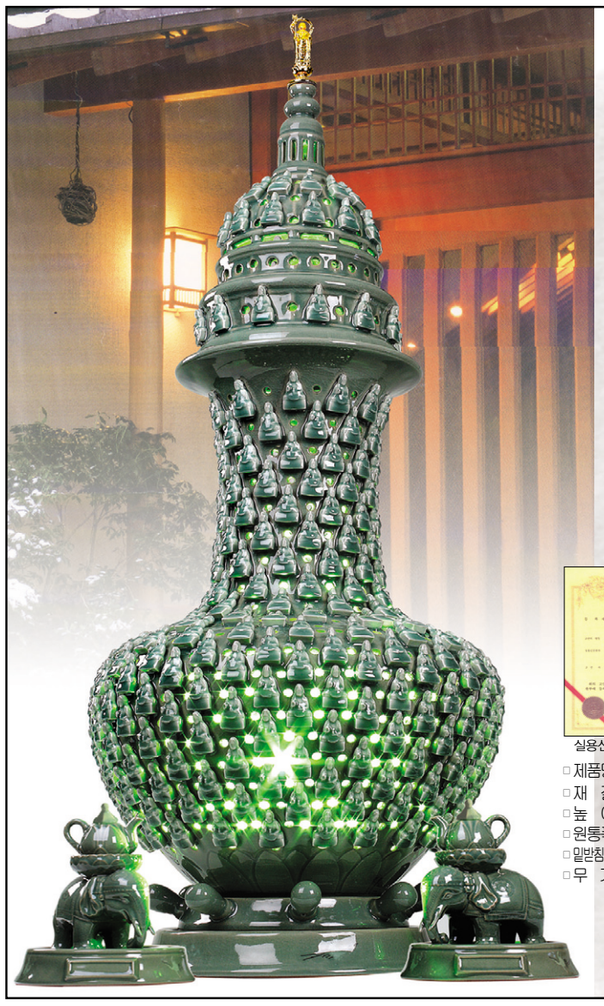


현산 스님은 ...
1961년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0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사미 때부터 전국의 선방을 다녔고 산철결제까지 합하여 100안거를 성만. 동산 스님, 전강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춘성 스님, 금오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 지금은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다.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한 번도 깨달음 의심하지 않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 안타까워요. 수행이 쉽지만은 않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세세생생 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

한 마음 깨치고 보면 들끓던 욕망과 번뇌와 어리석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구하는 바 없이 기도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면서 우선 이러한 기도부터 해 보기를 권했다.

스님은 한 때는 몸이 아주 쇠약하여 선방에서 방부도 잘 받아주지 않을 정도였다. 주변 사람들이 스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공부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현산 스님은 '선방수좌가 공부하다 죽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숨 내놓고 공부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졌다면서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참선에 다 있음"을 강조했다.

사대성고취(四大成苦聚)
삼계진화택(三界盡火宅)
여아구출몰(汝我舊出沒)
겁해종난식(劫海終難息)
사대가 고통이 모여 이루어졌으니
삼계가 다 화택이니라.
너와 나 나고 죽음을 계속하기를
겁의 바다가 다하도록 쉬기 어렵구나

"세상은 덧없고 몸뚱이는 한량없이 덧없어요. 세상에 나오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 아닙니까. 더구나 다치게 되면 몸뚱이가 온통 고통의 덩어리임을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언제 죽음과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고(苦)에서 벗어나려면 참선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도(道)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는 것이 곧 도(道)라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복을 빌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과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을 애지중지해도 병과 죽음이 불시에 닥치면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해요.

부처님은 삼계를 불난 집에 비유했어요.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탐진치(貪瞋癡) 오욕번뇌 속에 살고 있으니, 불난 집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번뇌를 끊지 못하는 한 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요즈음 '웰다잉'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던데, 평소에 정진하면서 잘 살았다면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종정이셨던 혜암 스님의 은사스님은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언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해인사 원당암에서 좌탈입망(坐脫立亡)할 정도로 엄청난 수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동산 스님께서도 깨끗하게 열반하신 것을 보면 선정(禪定)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스님은 '참선전도사를 자청하신 것 같다'고 했더니 호탕하게 웃었다. 스님은 화두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더란다. 평생을 선방 수좌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깨달음에 대해 의심을 해 본 일이 없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신심이 모든 보배 가운데 제일'이라 했듯이 신심이 장해야 공부가 잘 되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금강경>을 반복해서 독경하다보면 화두가 들리게 된단다. 또 <보현행원품>을 염송하고 몸으로 행한다면 그 또한 큰 공부가 되어 깨달음에 이른다고 했다.

"애를 쓴다고 금방 되지는 않지만 깨달음 그 자체에는 빠르고 더딘 것이 없어요. 순간에 대오했건, 천생만생 선근을 닦아 깨달았건, 깨달음의 당체는 한 결 같이 똑같습니다."

동안거 결제를 며칠 앞 둔 터이라 방부를 들인 스님들이 인사차 찾아왔다.

"선등선원의 기운이 어느 선원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진을 하다보면 피곤하고 기운이 쇠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정진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난다고 그래요."

아마도 지리산이 뿜어내는 힘찬 기운 탓이 아닐까 싶다.

스님이 우려 낸 차맛은 일품이었다. 차맛이 좋다고 했더니 화엄사에서 직접 채취한 야생차라 했다. 연기 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할 때 차씨를 가지고 와서 절 주변과 장죽전에 심은 것이다. 선방 스님들이 차를 애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눈꺼풀에 무겁게 내려앉는 수마(睡魔)를 쫓아내기 위함도 그 중 한 가지이다. 현산 스님께서 수마를 쫓기 위하여 마신 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100안거를 훨씬 넘긴 그 이면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터인데 화두참선을 용광로인양 모든 것을 녹여낸 스님의 가멸찬 수행정진을 가늠해 보았다.

날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날이기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날마다 새롭다는 스님, 그만큼 하루를 온전하게 치열하게 살아낸다는 의미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라'는 스님의 말씀 오롯이 받아들고, 지리산을 향해 큰 숨 한 번 들이 쉬고 내쉬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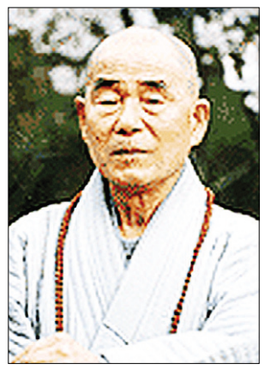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4. 춘명 대선사

종단 초월해 공부시켜… '수륙재연기' 등 작성해 불교의식 개발

1950년대 불교분쟁이 생긴 이래 1960년대 불교정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지역마다 특출한 인물들이 있어서 그 지역 불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절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최태종 교장선생님, 충청도 지방에서는 이재복 교장선생님이 있다 하듯이, 전라북도 지방에는 춘명 스님(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18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춘명(1918~2002) 스님은 1927년 송광사에서 연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3년 전북불교연합강원에서 대교과를 수료한 후 1945년 일본 임제대학을 졸업했다. 1961년 조계종 전북교구 교무국장, 1979년 화엄종 전북 종무원장, 태고종 승정 등을 역임했다. 특히 춘명 스님은 태고종 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훌륭한 조계종 스님들을 키워낸 스님이시다.



1960년대 동국대학교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각 지역 사찰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골고루 뽑아 장학금을 주었는데, 63년 재단이사가 바뀌면서부터 내 종단사람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하여 생으로 은 · 법사 갈이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춘명 스님은 백학명 노스님으로부터 청정비구 매곡 스님에 이르기까지 지녀온 가풍이 있기 때문에 내 종단, 네 종단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추천하여 공부하게 하였고, 전국 사찰을 순회 포교하면서 어리석고 몽매한 불자들을 깨우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1987년 전주불교총연합회장에 피선되어서는 불자의 화합에 총력을 기울이되, 이왕에 결혼한 스님들은 가족과 함께 불교를 하고, 독신수행자들은 청정비구가 되도록 길을 인도하였다. 말하자면 태고종 스님으로 계시면서도 상좌를 조계종 강원에 보내 새로운 법사스님을 정하도록 해 그의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해 주었으며, 화엄종 스님들과 함께 전북불교영산보존회를 구성해 전통불교의식을 살려 1988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국내 불교뿐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불교에도 관심을 가져 틈만 있으면 선배, 후배들을 모시고 성지순례에 가서 국내외 불교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고, 큰 절, 작은 절 가림 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살펴 그 공덕을 기렸다.

富興山頂古基庵(부흥산정 옛 절터 암자)/ 新築寶宮生瑞氣(새로 지은 보궁에서 서기가 생하니)/ 爲法忘軀大功德(법을 위해 몸을 잊은 큰 공덕이라)/ 萬古光明長不滅(만고에 광명이 오랫동안 멸하지 않으리)

옛 절터 산 봉우리에 조그마한 암자를 지은 어떤 스님 절에 가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부종수교(扶宗樹敎)하는 것을 찬탄한 글이다.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화동주(身和同住)하고 구화무쟁(口和無諍)하며 의화무위(意和無違)하여 같은 견해로 같은 계를 지키며 똑 같이 이익을 나누어 잘 살도록 하자고 강조하셨다.

특히 '수륙재연기'와 '천혼축원문'들을 작성해 불교의식을 새롭게 개발코저 한 공적은 널리 칭찬해야할 점이다. 사실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다. 전통적인 불교의식을 현대화해 대중 가운데서 살려나간다면 민족 문화예술도 더불어 살려가면서 우리 불교를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5월 19일 전북 김제 원각사에서 세수 84세, 법랍 75세로 입적한 춘명 스님은 열반 3년 전에 <방하착>이란 제목으로 자서전을 펴냈다. 춘명 스님이 이 책을 쓴 1999년에 3년 뒤 입적하실 것이라는 대목이 보이는 것을 보면, 이미 가실 날을 예견한 스님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5월 21일 춘명 스님의 다비에는 100과의 오색사리가 나왔다. 그렇게 스님은 마지막까지 청정수행을 강조한 무언의 법문을 남기신 것이다.

춘명 스님은 자서전의 제목처럼 당신의 은사인 매곡 스님의 "방하착(放下着: 놓아버려라) 하라. 버리려고 하면 살고, 가지려고 하면 죽는다"는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고, 이를 후학들에게 남겼다.

다음은 춘명 스님의 임종게(臨終偈)다.

운산수류거(雲散水流去)하니
적연천지공(寂然天地空)이로다
곽락태허공(廓落太虛空)하니
낙조춘명월(落照春明月)이로다
뜬 구름 같은 이 몸은 흩어지고
파도 같은 번민이 흘러가니
천지는 고요하도다.
만상은 모두가 공이니
무변허공에 왕래하던
춘명(春明)의 빛은 사라지도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



부츠(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 물

조각무명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20,000원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8>

'자리이타원만' 실천하는 경제활동 돼야

자신의 행복 바라기 전에 타인의 행복도 돌아보라

영어로 business는 busyness이다. 일본어로 '忙しい'라고 하는 말의 한자도 재미있다. '忙'을 좌측과 우측으로 분해하면 '마음이 절멸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세로로 조합한다면, '忘' 즉 '행복의 본질을 잊어 버린다'로 되는 것도 정말로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처럼 신흥 부르조아지의 모습을, 행복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형태로 이상화해서 그렸던 것이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었다. 이 책에서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종교가 중에서도 칼빈(Calvin, J)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칼빈은, 신(神)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신의 영광을 현세에 실현해야만 할 비즈니스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이익)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쓰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직업은 신이 내린 천직(calling)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막스 웨버에 의해 중시된 미국 자본주의의 개척자 벤자민 플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富)에 이르는 길은, … 확실해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근로와 검소, 이 두 가지에 관련되고 있다. … 정직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남김 없이 손에 넣고, 얻어진 것은 남김 없이 절약(저축)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유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학)에 관한 확실한 철학이 있었다.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을 신고전파 경제학으로서 집대성한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다. 자본주의는 스미스가 생각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미 빛으로 꽃핀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었지만, 마샬은 '경제기사도'를 설명하고 기사도 정신과 철학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영국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운영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침체하여 버리지는 않는가, 그 활력은 무엇에서 구해져야만 할 것인가는,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이다. J.A 슘페터는 기업가가 행하는 혁신(innovation) 가운데서 경제적 활력의 원천을 구했다. 경제 주체의 역할은 이노베이션에 있고 이노베이션의 이러한 결과 낮은 생산비에 의한 이익, 새로운 상품 개발로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창업자 이익이라 부르고, 이윤의 본질은 이 창업자 이익이라고 했다.

슘페터가 저술한 <자본주의 · 사회주의 · 민주주의>(1942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경제가 인간의 주체적 · 창조적 활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대경제학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정밀한 경제이론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장난감 철포'여서 기업가의 혁신에 의한 경제변동의 본질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경제주체의 또 한편의 역할자인 노동자에 관해서 스미스는, 분업에 의한 노동의 단순화가 노동자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고 이런 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개입을 옹호하고 정부의 교육에 의한 인간성의 보완 향상을 원했다.

마르크스에 이르면, 분업과 빈곤에 의한 인간성 손상을 '인간소외'라 부르고, 마르크시즘 경제분석의 중요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공산주의 혁명의 담당자로서 최고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면 불교경제학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역할은 어떠한 것일까?



우선 스미스가 강조한 '자기이익 추구'에 상당하는, 불교경제학의 경제주체의 활동동기 · 뜻(innovation)이라고도 해야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것은 '자리(自利)'에 대해서 '자리이타원만(自利利他圓滿)'의 추구이다. 이익의 추구란 자리와 이타가 하나(一法)로 된 행위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기능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스미스에 있어서 '자리'의 강조는 중상주의적 정부가 국가이익이라는 명분하에 당시의 부르조아지에 간섭 통제한 것에 대한 반항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자본가이자 냉철한 사업가였던 헨리 포드는 당시의 기업가의 영리추구경영의 상식이었던 '노동자는 가능한 한 싼값으로 고용하고, 고객에게는 가능한 한 고가로 판다'고 하는 상식과는 정반대를 행한 것이다. 노동자를 고임금으로 고용하고, 고수익이 보장된 그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대우했다. 후세에 포드 · 시스템으로서 전해 내려온 유통작업방식에 의해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고, 염가 판매에 성공한 것이다. 노동자도 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로스토우가 명명한 '대중 소비시대'는 이와 같이 개막하여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자리이타원만의 실천이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교세라 회장을 비롯해, 일본의 불교적 경영자 가운데에는 자리이타원만을 추구해 성공을 거둔 실례가 많은데, 두개의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YKK로서 알려지고 있는 지퍼의 요시다(吉田)공업주식회사이다. 세계의 지퍼 생산왕이라 일컬어지는 동사 창업자인 요시다 다다오(吉田忠雄)는 젊을 때에, 미국의 제철왕 카네기의 "타인의 행복을 원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에 감격하고, 궁리하고 절약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술개량과 신규설비에 투자하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꾀했다. 또한 그것을 투자, 재투자하는 반복 속에서 세계적인 지퍼메이커가 된 것이다. 요시다는 그런 반복을 '선순환'이라 명명, 동사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후지 다이즈(dies) 주식회사의 예다. 사장인 신조 다가요시(新藏 應義)씨는 군인출신 경영자이며, "불교성전을 경영에 살리는 모임"의 회장이다. 후지 다이즈는 산요(山洋) 특수강에 나사를 끊는 공구인 다이즈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였다. 그런데 산요특수강은 전후 최대의 도산사태에 휩쓸렸다. 도산 소문이 나돌기만 해도 은행을 비롯한 거래 회사는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은행은 비오는 날에 우산을 빼앗는다"고 욕을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산요특수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던 회사는 후지 다이즈를 포함하여 3사가 있었지만, 2사는 도산을 염려해 일찌감치 공급을 중단했다. 그리고 후지 다이즈 1사만 남았다. 신조 다가요시 사장은 "자고 있는 병자에게 약 값 안낸다고 약을 중지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일"이라며 제품의 공급을 최후까지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후지 다이즈는 거액의 불량채권을 떠안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산요특수강의 갱생 과정에서 재건후의 오늘까지, 동사는 후지 다이즈를 유일한 공급회사로서 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부터 결과를 기대해서 행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손님에 봉사한다"고 하는 근본정신의 발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의 근원인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한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자체를 목적으로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경영자들의 공통 인식인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㉘ 인도기행

허달의 불교와 코칭

일년에 한번은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자

코칭 워크숍의 어느 과정에선가 달라이 라마의 새천년 법어(法語)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19개 항목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었지만, 한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일 년에 한 번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라."

금년에는 연간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여 5월에는 튜니지아, 10월에는 중국의 장강 삼협(長江 三峽) 여행을 다녀왔고, 11월 말에는 8박9일 간 인도여행을 다녀왔다. 북인도 지역의 여섯 도시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바라나시 등을 엮는 조금 벅찬 일정이었다.

튜니지아 여행을 일컬어, 지중해 해변의 맑고 짙푸른 하늘과 바다, 사하라 사막의 희고 고운 모래 구릉, 작열하는 태양 아래 오렌지와 퍼플 색조를 내뿜는 신기루 같은 염호(鹽湖), 황야를 달리는 '붉은 도마뱀 열차', 황무지의 일몰 무대를 내려 덮는 짙은 보라색의 벨벳 커튼 같은 어둠, 그리고 별이 쏟아지는 오아시스의 천막야영 등을 보석 꿰듯 엮어 그린 아름다운 수채화라 부른다면, 장강 삼협 여행은 하늘에 닿아 흐르는 물길, 자욱한 안개가 여백 되어 펼쳐진 비단 화폭 위에, 깎아지른 푸른 암벽과 수목, 그리고 옛 시인묵객의 시부(詩賦) 운률까지 담채(淡彩)로 그려 담은 여러 폭 동양화의 신운(神韻) 체험이었다고 할까?

인도 여행을 무어라 표현하면 좋을까? 믿을 수 없이 다양한 인도적 삶이 7천 년의 세월을 연면히 흘러 오늘에 이르는 어김 없는 현장을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바라보며 얻는 찬탄과 탄식의 태피스트리 직조(織造) 같은 것. 섬세함과 거친 터치를 자유자재로, 호사로움과 암울한 채색을 부사의(不思議) 하게 뒤섞어 그린 오래된 유화(油畵)를, 덮인 먼지 후후 불어 내고 눈 비비며 보는, 다소 불편한 그런 감동.

아그라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 대리석 묘묘(墓廟) 타지마할에 담긴 황제의 애비(愛妃)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 섬세하고 호사스러운 아름다움의 극치를 직접 두 손으로 쓰다듬어 몸에 담아두었다. 다음날, 카주라호에 이동하여 천년 전 찬달라 왕조에 의하여 건설되었다는 사원군(寺院群)의 미투나상(像) 조각에서 만난 자유분방하고 에로틱한 천녀(天女)들의 모습, 익살스럽고 창의적인 카마수트라 교합상(交合像). 성(性)의 희열을 열반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당시 인도인들의 천연덕스러운 소망이 예술성의 바탕 위에 에로스의 모습으로 꽃 피워 응집된 것을 찬탄한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오래된 도시 바라나시로 이동, 자전거 인력거인 릭샤를 타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해 체험한 저자바닥은 오전에 황홀했던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충격 그 자체였다. 매연, 소음, 오물 냄새, 자전거, 오토바이, 삼륜차 택시, 그 사이를 경적 요란히 울리며 비집는 승용차들, 쏟아져 나온 행인, 혼잡을 집 삼고 유유자적 어슬렁거리는 주인 없는 소들과 버려진 개들의 무리, 비둘기 떼는 또 얼마나 극성이었든지. 틈만 보이면 '원 달러(One dollar)'를 구걸하며 여행객의 옷깃을 잡는 걸인들도 거리의 당당한 주역이었다. 이 흐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

저자 바닥을 간신히 벗어나면 힌두교도들이 '어머니 강'이라고 부르는 간지스강(Ganga-불경에 나오는 恒河)의 서쪽 강둑에 이르게 된다. 다음 날 새벽 해 뜨기 전 이 강둑에 다시 와, 노 젓는 나루 배로 강을 오르내리며 마침내 앞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았다. 강 동안(東岸)에서는 붉은 일출이 새벽을 장엄하고 있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이들이 맞는 새 아침이었다면, 서안(西岸)에 위치한 노천 화장터(Cremation Ghat)에서 새벽 일찍 장작을 지핀 장례 두엇은 누군가가 살고 간 삶의 마침이었다. 같은 시각, 인접한 목욕 터에서는, 이들은 아랑곳 없이, 순례자들의 침례 의식과 신도들의 아침 목욕이 어머니 간지스에 바치는 아침예배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그런 일상이 펼쳐진다.

2,500년 전, 35세의 고타마가 체험했던 깨달음의 순간에도 먼동은 네란자라 강 동쪽 둔덕에서 그렇게 떠올랐을 것이다. 사성제의 첫 가르침이 베풀어진 바라나시의 사르나트(鹿野苑) 유적지, 반쯤 무너진 스투파를 세 번 돌고, 예배처에 절 하고 잠시 좌선하면서, 초전법륜(初轉法輪)에 참여한 복 있는 다섯 사문을 머리에 떠올리고 미소 지었다.

삶도, 죽음도,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기약 없는 여행의 일부일 뿐이다. 여행을 통해 얻은 코치의 새삼스러운 자기성찰이다.

달라이 라마 새 천년 법어에 기억 나는 말씀이 떠오른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때때로 대단한 행운의 시작임을 기억하라."

■ 한국코칭센터 고문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공 고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산하에 등록된 일붕법왕종을 제외한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스님, 국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일응(도천)스님, 대한불교 아미타여래종 총무원장 현송스님 외 37개 종단은 2009년 12월 1일부로 본 재단 산하에서 상기 종단을 해체하기로 결정되어 이에 공고하오니 각 종단과 사암에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2010년 2월 중순부터 본 재단 부설 통합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재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등록할 예정이오니 앞으로 이들 종단에서는 법왕청 산하 종단의 명칭을 사용중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이사장 담화

“중은 식탐이 많으면 안 된다 오늘부터는 하루 한끼만 먹는다”



도행 스님이 문수암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올라 웃으며 말했다.

“암자생활이 좋긴 한데 혼자서 오래 살다보면 말하는 것이 싫어지고 괴팍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떨어져버린다니까요. 하하하. 그러나 중이 수행하는 것은 자신만 잘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돌려주기 위해서지요.”

정견 스님도 동감했다.

“깊은 산중 암자에서 혼자 살다 보면 괴각으로 변합니다. 수행은 원만해지기 위해 하는 것인데 오래 살다 보면 둥글지 못하고 모가 납니다. 실제로 제가 혼자 살아보니 사람이 싫어집디다. 저잣거리 사람들은 오신채를 먹으니 냄새가 나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집디다. 그러나 모가 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산중 토굴에 살다가도 모가 날 때쯤이면 대중생활을 하러 산 아래 큰절로 내려갑니다.”

두 스님의 얘기에 대연거사는 부러움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두 스님의 언행에는 뾰족한 모가 보이지 않았다. 비바람에 오랜 동안 깎인 돌부처처럼 편안하고 원만했다. 정견 스님이 문수암 가는 길에 놓인 돌계단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우리 노장님께서 40대에 원각 스님을 데리고 놓은 돌계단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응달 산자락에서는 산삼을 캔 사람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돌멩이 한 개와 풀 한 포기까지 정이 든 순박한 말투였다. 그래서 정견 스님을 잘 아는 도반들이, 지리산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한 스님을 두고 ‘지리산 반달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지리산 벽송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이곳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19살에 중 돼 가지고 상무주암에 오니 늦여름이었습니다. 노장님께서 사형 여연 스님과 서너 명을 데리고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대연 거사는 여연 스님을 떠올리고는 상무주암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산등성이에 가려 상무주암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대연 거사는 몸을 떨었다. 지리산 허공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처럼 생긴 상무주암처럼 수행자들의 심혼(心魂)에 불을 붙인 처절한 토굴도 없을 것 같았다.

강진 백련암 다실에서 들은 여연 스님의 얘기가 대연 거사의 심혼에도 불을 당겼다. 가슴을 뜨겁게 했다.

“78년도 강원 졸업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우리스님은 남해 용문사에서 대중을 지도하시다가 태백산 동암으로, 다시 나와 해인사 극락전에 계시다가 칠불선원으로 가셨지요.”

여연 스님이 기억하는 은사 혜암 스님의 행장은 정확했다.

혜암 스님은 53세 때 남해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 후 처음으로 회상을 열어 운수납자들을 지도했고, 54세 때는 해인사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각화사 동암으로 올라가 2년 동안 현우, 현기 수좌 등과 함께 두문불출 용맹 정진하였던 것이다.

이후 1975년 겨울에는 송광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나고 이듬해에는 지리산 백장암을 거쳐 칠불암에서 하안거와 동안거를 마쳤는데, 이때 정진대중은 현우, 활안, 성우, 현기, 인각, 원융 수좌 등 20여 명이었다.

칠불선원에서의 정진은 중국 백장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청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혜암 스님은 대중 모두에게 지게를 하나씩 지급하여 낮에는 운력하고 밤에는 공부하도록 했다. 대중들은 외부에서 공양물이나 보시정재가 들어오면 쌍계사 입구까지 내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게질을 하였다.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예외 없이 지게를 지고 오르내렸다.

그해 겨울 대중이 칠불암의 운상선원을 중수하던 중, 혜암 스님은 먼지 속에서 홀연히 나타난 백의노승을 만났다. 노승이 혜암 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게송을 전해주었다.

혜암 은 지리산 백장암 거쳐 칠불암서 정진
20일간 대중에게 용맹정진 · 단신시켜
대중은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혜암에게 ‘눈물’

塵凸心金剛劇
照見蓮攝顧悲
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금강검으로 베어내서
연꽃을 비추어 보아 자비로써 중생을 섭화하여 보살피라.

그런 뒤 백의노승은 혜암 스님에게 ‘취모검을 들지어다(拈起 吹毛劍)’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우리 스님은 칠불 운상선원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셨던 겁니다. 백의노승의 게송 중에 ‘중생을 섭화하여 보살피라’는 부분은 하화중생의 시절인연이 도래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그건 우리 스님의 일이고, 저는 스님께서 동암에 계실 때부터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여연은 해인사 강원시절 해제를 하면 반드시 혜암 스님에게 인사하러 갔다. 각화사 동암까지 버스를 타기도 하고 차편이 없는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스님한테 인사를 가는 데 힘들었어요. 대구에서 봉화, 영주가 엄청 먼 거리거든요. 당시 해인사에서 대구 나가는 데 4시간 반 걸렸습니다. 거기서 또 영주 가려면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김천으로 나가 봉화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했어요. 춘양부터는 걸어서 가는데 지금 무여스님이 사시는 축서사를 지나 산길을 돌고 돌아 각화사로 갔어요. 각화사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랬는지 각화사 주지스님이 자고 올라가라고 만류하는데도 촛불을 켜들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린다는 동암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여연이 동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다. 그때까지도 혜암 스님을 비롯하여 네다섯 명의 수좌들이 큰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정진하고 있었다. 여연은 문득 허기를 느꼈다. 촛불을 들고 동암을 오를 때는 오직 은사스님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배가 고팠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사먹을 줄도 모르던 학인시절이었다. 오신채가 든 음식을 먹지 못하던 때였다. 한 번은 자장면이 생각 나 중국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이것저것 빼라고 간섭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었다.

여연은 대중정진이 끝날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렸다. 혜암 스님이 죽비를 치자 그제야 수좌들이 가부좌를 풀고 밖으로 나왔다. 여연은 혜암 스님에게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혜암 스님은 말없이 화장실로 가버렸다. 한 스님이 여연을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석유곤로를 피우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다. 이북에서 내려와 출가한 현우 스님이었다.

“현우 스님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도인입니다. 상을 내지 않은 훌륭한 도인이신데 그때 나에게 수제비를 끓여주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우리스님은 모른 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연은 정신없이 수제비를 먹었다. 현우 스님이 끓여준 수제비를 다 먹어치웠다.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터라 자신도 모르게 과식했다. 피곤한 데다 과식하니 몸이 천근처럼 가라앉는 것 같았다. 결국 이튿날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수제비를 먹은 탓이었다. 한 스님이 민간요법을 썼다. 온몸에 물푸레나무를 태운 재를 발라주었다. 혜암 스님이 여연의 불룩한 배를 보더니 ‘저 음식귀신 봐라, 저 귀신!’ 하는 것처럼 혀를 찼다.

“동암에서 우리스님에게 힘들게 인사드리고 해인사로 돌아왔다가 강원 졸업하고 상무주암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송광사에서 살고 싶어서 미리 방부를 들여놓고 인사를 갔다가 우리스님에게 붙잡혀 상무주암에서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혜암 스님은 상좌들에게 늘 지리산의 삼대 토굴로 함양의 금대와 상무주암, 그리고 남원의 백장암을 지목했다. 금대는 3일만에, 백장암은 5일만에, 상무주암은 7일만에 도를 깨닫는 명당이라고 말했다. 여연은 할 수 없이 7일이면 깨닫는다는 상무주암에서 붙잡혀 정진하고 싶었던 송광사 선방으로 가지 못했다. 햇중 정견도 와 있었다.

“힘이 장사인 내 사제 정견 스님도 왔어요. 젊은 우리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을 때입니까. 그러나 은사스님이 소식을 하니 바루를 펴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눈치만 보았지요.”

혜암 스님의 정진가풍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혜암 스님 혼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할 뿐, 다섯 명의 대중에게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중이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내버려두었다.

이윽고 한 달이 지나자 대중을 다잡았다. 혜암 스님이 대중이 다 모인 데서 말했다.

“중은 식탐이 많으면 안 된다. 오늘부터는 하루 한끼만 먹는다.”

여연과 정견은 일종식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을 몰래 먹었다. 비구니가 사는 문수암으로 가 허기를 달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혜암 스님이 밥을 훔쳐 먹는다는 것을 알고서 먹을 만큼만 내주고는 부엌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문수암을 가지 못하게 금족령을 내렸다.

날이 갈수록 정진의 강도는 더해졌다.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데서 도가 익는다며 날씨가 추워져도 방에 불을 때지 못하게 했다.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무를 아껴야 한다며 목욕물도 많이 데우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벌벌 떨면서 몸에 미지근한 물을 한두 번 끼얹는 것이 상무주암의 목욕이었다. 대중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아, 독하다, 독해! 장작이 얼마나 든다고 방에 불도 때지 못하게 하시나.”

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용맹정진과 단식을 시켰다. 잠을 자지 않고 장좌불와하는 것이 용맹 정진인데, 거기에다 단식까지 보태졌다.

“해인사에서도 일 년에 두 번씩 하는 용맹정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단식 용맹정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십일째에는 정말 괴롭고 괴로웠어요. 망상이 막 들어요. 영감을 죽일 수는 없고 어디다 밀어뜨려버릴까 하는 망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정도 망상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와 포기했지요. 망상으로 이틀을 버티었으니 얼마나 기막힌 망상입니까.”

단식 용맹정진에 들어간 지 14일째부터는 자신감이 생겼다. 가끔 물을 마실 뿐 아무 것도 먹지 않는데도 몸에 힘이 생기고 만사가 개운했다. 혜암 스님이 대중의 변화를 눈치 채고 말했다.


그림 / 최문정

“내 모습이 이러했던가 이럴 수 있을까 발레리의 상징적인 시들이 막 스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20일을 채워버리자.”

대중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20일을 채웠다. 모두가 심신의 변화를 체험했다. 여연은 단식 용맹정진을 끝냈다는 생각보다는 깊은 동면에서 깨어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눈부셨다. 지리산의 모든 생명들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도 눈이 부셨다. 거울에 비친 창백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했다.

“내 모습이 이러했던가. 이럴 수 있을까. 발레리의 상징적인 시들이 막 스쳐가는 겁니다. 소위 깨달음이라는 암호가 풀어질 것 같아 황홀했습니다. 지견 같은 것이었지요. 그걸 계속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그때가 해제를 15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번에는 혜암 스님이 백팔참회문을 외게 하면서 절을 시켰다. 일주일 동안 만팔천배를 하게 했다. 절은 문수암에서 사는 두 명의 비구니도 동참했다. 단식한 뒤였으므로 죽도 먹지 못하고 미음을 겨우 목에 넘기면서 절을 했다. 일주일 동안 대중 모두가 만팔천배를 마쳤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대중 모두가 울었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감동했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혜암 스님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계속〉

본회 연제분〈49〉회는 본지 761호에 게재되어야 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재의 순서에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워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평생 부처님 법대로 산 큰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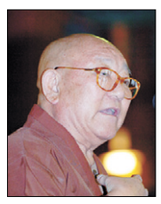
불기협,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의 대종사들' 펴내




법전 스님.


종산 스님.


설정 스님.


무진장 스님.

얼마전부터, 나라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대통령에서부터 대법관, 국회의원, 교육감, 교장에 이르기까지 귀감이 돼야 할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손가락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아래가 모두 혼탁한 세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면 세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시대의 참다운 어른들이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평생 부처님 법(法)대로 살아온 큰스님들이 바로 그 분들이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가 창립 20주년 맞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 30인의 수행담을 소개한 <한국의 대종사들>을 펴내 화제다. 조계종 '대종사(大宗師, 비구)'와 '명사(明師, 비구니)'라는 최고 법계(法階)를 품수 받은 스님들은 40년 이상을 수행 정진하며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살아있는 선지식들이다. 생명의 존엄성 마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이 시대, 태산처럼 흔들림 없고 바다처럼 넓은 스님들의 도(道)와 덕(德)에 절로 안도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소식이 아닐까.

불교기자협회 소속 26명의 기자가 인터뷰 한 대종사 27인과 명사 3인은 이미 일흔의 세수를 훌쩍 넘겼지만, 공통적으로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과 목소리를 지녔다. 그리고 스님들은 한결 같이 새벽 두세 시에 일어나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참선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서 젊은 시절 수행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국의 사찰 곳곳에서 취재를 하는 가운데 몇몇 기자들은 언론 노출을 달가워하지 않는 스님들로부터 "뭐 하러 내려왔느냐?", "인터뷰 안할란다.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며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기왕에 왔으니 차나 한잔하게"라는 말씀에 한시름 놓고 조심스럽게 묻고 듣기를 거듭한 끝에서야 겨우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한겨울 다섯 되의 쌀이 떨어지기 전에 공부를 마치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일념으로 암자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매진했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수행 일화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수행담은 불자들의 발심을 되살린다. 그 외에도, 널빤지에 못을 박아 앞에 세워 놓고 잠을 자지도, 눕지도 않으며 용맹정진 한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한겨울밤 맨발로 눈 속을 걸어 출가하기 위해 수덕사를 찾아간 설정 스님, 파고다공원에서 거지들을 상대로 매일 법문을 한 무진장 스님 등 대종사들이 털어놓은 출가수행의 길은 치열함 그 자체였다. 이제 그들은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어른으로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우리 시대 정신적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큰스님들의 법문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화두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것,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일체 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을 지니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일상속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참다운 성품을 찾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닮아가는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없는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책 서문에서 불교기자협회 안직수 회장은 "대종사 선양 작업을 통해 수행 가풍을 세우고 일반인에게 한국불교의 우수함을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종사들 | 한국불교기자협회 | 조계종출판사 | 1만8000원 김성우 기자

'명상'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하나의 기술

호우사이 아리나, f명상 · M만트라 제시



일본의 명상지도자 호우사이 아리나씨가 쓴 <자기계발을 위한 15분 명상>은 명상법의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설명한 책이다.

"명상은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하나의 기술(technique)"이라 주장하는 저자는 자신이 창안한 명상법인 'f 명상'과 'M 만트라'를 제시한다. 'f 명상'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번뇌망상이 없는 無念의 상태를 의미함)에 이르기 위해서 'M 만트라'(옴 남 스바하)를 사용해 편안하게 명상하는 것. 즉, 무의식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명상이다. 저자는 "명상으로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알게 되면 집중력, 이해력, 판단력이 증진되고 기획력, 창의력, 통찰력이 향상된다"면서 "뇌기능이 향상 되어 마음의 힘이 커지면 사고의 패턴을 바꾸는 힘이 강해진다"고 주장한다.

자기계발을 위한 15분 명상 | 호우사이 아리나 저, 이필원 역 | 불광 | 1만원 김성우 기자

삶에 대한 감사 · 행복 · 희망

우학 스님 '명상일기' 펴내



간화선을 응용한 선관쌍수(禪觀雙修)로 수행을 지도해온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이 무상한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 희망에 대한 명상의 말씀을 전하는 <無-우학스님의 명상일기>(전2권, 좋은인연)를 펴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학 스님의 일기를 읽다 보면 명상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자연, 수행, 부처님, 그리고 다시 본연의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無-우학스님의 명상일기 | 우학 지음 | 좋은인연 | 2만4000원

불교방송 부처님 법음 모아

바른신행 · 수행 지침서



불교방송(사장 김영일)이 개국 20년 동안 B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루도 쉼 없이 인기 탤런트 김용림씨의 낭랑한 음성으로 전해준 부처님 법음을 모아 <新신행 365일>을 펴냈다.

이 책은 경전과 어록의 법문을 쉽게 365일 날짜별로 재미있게 풀이한 에세이집으로, 진리를 바로 보고 바른 신행과 수행에 매진하는데 필요한 신행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 김용림씨는 "불교인으로서 신행생활에는 부끄러움이 많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행 365일'을 진행하고픈 마음"이라고 전했다.

新신행 365일 | 불교방송 마케팅국 | 불교방송 | 1만원 김성우 기자

불교를 세계종교로 만든 아소까 왕을 만나다

일아 스님, '아소까-각문과 역사적 연구' 펴내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누구일까. 인도 국기에 등장하는 법륜상과 인도의 여권이나 화폐, 우표 등에 사용되는 국가 문장(紋章)에 보이는 사자상과 법륜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불교가 세계종교로 성장하는 초석을 놓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 답은 바로 불교역사상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포교사로 손꼽히는 아소까 왕이다. 부처님 열반 후 약 200년. 기원전 250년에 통일 인도를 통치한 아소까 왕은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왕이기도 하다. 전쟁 대신 국민의 행복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 다양한 복지활동과 자선활동을 실천한 탁월한 정치가, 행정가, 건축가이자 출가승 이상의 성자였던 아소까 왕은 2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바위와 돌기둥에 새긴 각문을 통해 진정한 전륜성왕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해 말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으로 주목받은 수녀 출신의 일아 스님이 이번에는 <아소까-각문(刻文)과 역사적 연구>를 펴냈다.

미국 LA 로메리카(Lomerica)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한 일아 스님의 오랜 연구 성과물을 담은 이 책은 아소까 왕의 일생과 그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함께 판독 가능한 38개 각문을 완역하고 국내외 연구성과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감동적인 아소까 각문에서 말하는 담마('아소까 법칙'이라 번역됨)와 빠알리 경전에 나타난 담마를 비교해 양자가 똑같은 흐름임을 증명했다. 아소까 각문의 핵심이 자선활동과 복지활동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아소까 왕이 남긴 유산과 인도에 끼친 영향도 분석했다.

책 서문에서 일아 스님은 "아소까 왕이 아니었다면 불교는 힌두교나 자이나교 처럼 인도에 국한된 지방종교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복지 및 자선활동을 실천한 점에서, 8만4천 개가 넘는 불탑과 승원을 지으며 인도 전역과 주변 국가에 불교를 전파한 면에서 아소까 왕과 비교할만한 사람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없다"고 밝혔다. 일아 스님은 "담마에 따라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며, 담마에 따라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왕국을 지킨다고 한 아소까 각문은 불자는 물론 이 시대 모든 정치인, 행정가, 복지가 등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지침서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아소까 | 일아 지음 | 민족사 | 2만5000원 김성우기자



일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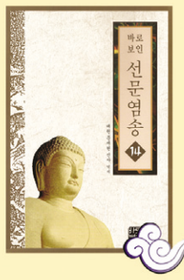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사는 즐거움	보경	뜰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마음선원
8	부처되는 공부	우학	뜰
9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10	인도에 갈 때는 숟가락을 가져가세요	대연	이스트워드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둥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중약대사전, 당본초, 영남채약록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둥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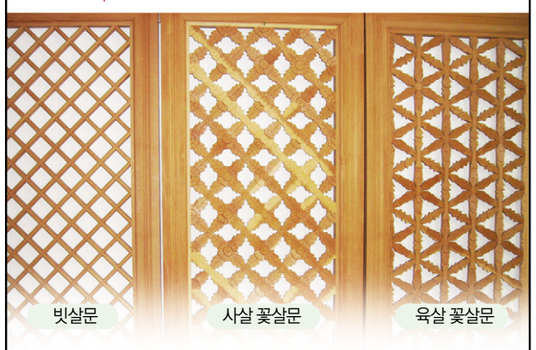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자비♥사랑 가득한 크리스마스 연극 영화 콘서트 '풍성'

불교에 '부처님오신날'이 있다면, 개신교에는 '예수님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가 있다.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밤, 거리를 장식한 트리.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는 한해를 마감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모두의 가슴을 적신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는 솔로들에겐 한숨의 대상이요, 연인들에겐 로맨스의 시간이기도 하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크리스마스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수 보살 탄생일, 한해의 마지막 연휴 등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크리스마스는 이미 종교를 떠나 만인의 축제가 됐다.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만 느껴지는 크리스마스에 무작정 '방콕'만 하고는 있을 수 없을 터. 연말을 맞아 가족을 비롯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껏 풍성해진 문화공연을 감상하며 종교를 초월한 자비와 사랑의 의미를 느껴보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보자. 이은정 기자



#크리스마스 캐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성의 회복'을 주요 테마로 해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동화적 판타지 작품. 영국 소설가 찰스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과 함께 환상의 시간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 년간 스크루지 역을 맡아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박석용과 서울예술단 40여 명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뮤지컬에는 꼬마스타 왕석현군도 함께 출연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비로소 행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스크루지의 판타지 여행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껴보자. 12월 3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02)410-1114

#이은미 20주년콘서트 '소리 위를 걷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가 그녀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09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미니 앨범 '소리 위를 걷다'를 선보이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투어 중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나 그녀의 화끈하고 환상적인 라이브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맨발의 디바 이은미. 벗어던진 신발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그의 감동 무대를 느껴보자. 12월 26~27일, 연세대학교 대강당.(02)2123-2114

#이승환 20주년 기념 콘서트-공(空)

라이브의 황제, 어린왕자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승환이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이승환 20주년 기념 콘서트는 크리스마스에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최고의 이승환 밴드와 13인조 브라스 빅밴드가 만들어내는 화려하고 완벽한 사운드, 세련된 무대, 영상, 상상을 초월한 특수효과 등 역대 최고다. 또한 이승환의 가슴 벅찬 히트곡들과 새롭게 발표된 신곡들로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누구나 이승환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2월 24~26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02)410-1114

#그대를 사랑합니다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1000만 독자를 울린 강풀의 원작만화로 10만 관객을 감동시켰다. 노인들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이 연극은 젊은 세대부터 부모님세대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다. 이 시대에 소외된 노인의 현실이 담겨 있어 한 해가 다가고 있는 연말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가슴이 훈훈해 지는 작품.

온기가 필요한 계절,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가 절로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12월 31일까지, 대학로 더굿씨어터(구 씨어터일). (02)742-9005

#뮤지컬 웨딩싱어

유쾌한 웨딩파티를 그린 뮤지컬. 영화 '웨딩싱어'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작곡가가 꿈인 결혼식 파티 가수 로비 하트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결혼식 웨이트리스 줄리아 설리번의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세대를 넘나드는 흥겨운 디스코 음악과 열정적인 안무가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며, 80년대를 유행했던 패션스타일도 이 뮤지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볼거리 중의 하나다. 주인공인 로비 하트역에는 배우 황정민과 박건형이 더블캐스팅 돼있으며 줄리아 설리번역에는 방진의가 출연한다. 2010년 1월 3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 (02)2230-6600

#연극 베니스의 상인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낭만희극으로 돌아왔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사회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베니스의 상인'. 인간 군상에 대한 통찰과 그 삶이 가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대를 넘어 관객들과 소통한다. 이번 연극은 이윤택 감독이 연출을 맡아 장르를 넘나드는 그만의 해석과 표현법으로 '베니스의 상인'을 선보인다. 현대에서 고전을 좀 더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샤일록 역에는 배우 오현경, 포샤 역에는 윤석화와 김소희, 안토니오 역에는 정호빈이 출연한다. 2010년 1월 3일까지, 명동예술극장. (02)1644-2003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유럽 인상주의파 대가들의 걸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모네에서 피카소' 展에는 우리나라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96점이 동시에 전시된다. 미국 5대 미술관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2007년 성황리에 개최됐던 도쿄전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것. 작품은 반 고흐 2점, 르누아르 7점, 세자 3점, 모네 4점, 마티스 7점, 모딜리아니, 피카소, 고갱, 드가, 마네, 루소의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2010년 3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02)580-1300

#좋아서 만든 영화

인생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기에도 짧다. 일명 '문지마 밴드'도 아니고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좋아서 하는 밴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쿠스틱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서울, 부산, 제천 등 초대받지 않은 투어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멤버들은 좋아서 시작한 일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님을 깨닫고, 진정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 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웰컴

영화 웰컴은 17세 쿠르드인 청년 비랄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35.4km 도버해협을 건너기 위한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단순히 떠나간 연인을 만나겠다는 일념하나로 수영으로 도버해협을 건너겠다고 결심하고 전직 수영선수였던 시몬을 만난다. 시몬 역시 아내가 집을 떠난 상태. 시몬도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비랄을 돕기 시작한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비랄의 도전. 비랄을 보며 진심으로 그의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시몬. 과연 35.4km 너머의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동심 두드리는 찬불동요 '소복'



좋은벗풍경소리 29집 발매

어린이 찬불동요를 만들고 보급하는 좋은벗풍경소리(종재 지현)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새 앨범을 들고 나왔다.

찬불동요집 29집에는 '눈이 모면 신이나' '운문사 소나무' '호호 손이시려' '산사의 겨울새벽' '스님머리 반짝반짝' '관세음보살님Ⅱ' '연' '눈이 와요' 등 8곡의 노래를 소복이 담았다.

10여 명의 젊은 작사 · 작곡가 들이 만든 찬불동요는 눈 덮인 겨울 풍경과 어울리는 불보살들의 마음을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에게 따듯하게 전하고 있다. 음반에는 어린이들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전하는 노래와 반주음악이 동시에 실려 전국 단위 연수회와 강습회의 교재나 일선 법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좋은벗풍경소리의 음반은 방학 시즌을 맞춰 매년 여름 · 겨울 두 장씩 제작 발매하고 있다. 전 노래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운영하는 키즈붓다 사이트(www.kidsbuddha.org)에 전곡이 등록돼 무료로 음원과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좋은벗풍경소리는 12월 2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3,4대 회장 스님 이 · 취임 법회 및 붓다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붓다콘서트에서는 제4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자용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자용 스님은 BBS불교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룸비니동산'을 20여 년째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승가대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노인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 원장으로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콘서트에는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 청소년 찬불가 합창단 '소리마루', LMB Singers, 소프라노 유현주, 꼬마풍경 등의 음성공양이 준비됐다. (02)723-9836 이상언 기자

"비워사는 길이 내 인생의 길"



허허당 스님 '허허당, 비고 빈 집' 선화집 내

"30년 전 문득 내 안에서 '허허당, 비고 빈 집'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죠. 결국 비워 사는 길이 내 인생의 삶이자, 길임을 깨달았죠."

선화를 그리며 수행을 하는 허허당 스님이 자신의 그림과 시를 함께 실은 책을 출간했다. <허허당, 비고 빈 집>(도서출판 고인돌)의 시와 그림들은 허허당 스님이 자신의 토굴에서 방바닥에 건빵을 뿌려놓고 건빵으로 공양을 하며 용맹정진한 열매들이다.

허허당 스님은 이번 선화집을 내는 까닭에 대해 "고해의 바다에서 중생과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같이 하려는 자화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수행의 원력으로 그림을 그리며, 상처받은 중생의 비원을 화폭에 담고, 시를 쓴다.

"중생의자유, 행복, 진리, 공생, 자비, 평화, 사랑을 빼앗고 억누르는 그 어떤 것도 용납 못한다는 것이, 수행자의 절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원력은 생명에 대한 절대자유와 존재의 기쁨, 시와 그림이다. 허허당 스님의 작품을 두고 소설가 이외수 씨는 "허허당 스님의 시와 작품은 가시가 살에 박혔을 때처럼, 아!하는 탄성을 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작곡가 김영동은 "스님의 작품은 '음악'"이라며 "생명이 생명을 춤추게 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다.

"수행자의 삶은 하나의 시여야 한다"고 말하는 허허당 스님.

허허당 스님의 수행과 원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선화와 시를 '허허당, 비고 빈 집'을 통해 만나보자.

이은정 기자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행복을 감염시킨 행복 바이러스
붓다의 행복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회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

행복한 삶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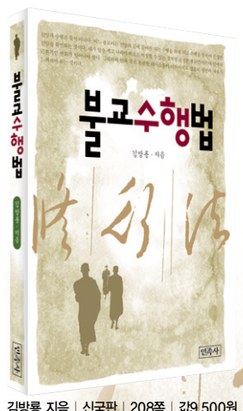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의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스님이 쓰고
『1리터의 눈물』을 번역한 한성례 선생님이 번역한 행복 쓰나미.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한성례 역 | 46판 양장 | 198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모든 종교의 알맹이는 신앙과 수행이다.
그 중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문이 생길 때
이 책은 수행법 전반에 대한 알기 쉽게 소개한 수행의 입문서이다!



김방룡 지음 | 신국판 | 208쪽 | 값9,500원

불교수행법

불교수행법의 핵심적인 문제만을 뽑아 소개
"절 수행 · 간화선 · 염불 수행 · 위빠사나 수행 · 간경 수행
사경 수행 · 계율과 참회 수행 · 사불 수행 · 조사선 · 주력 수행"

누구나 이 책으로 불교 수행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7 밥은 경험- 박 아줌마 편

'일체유심조' 적 편식 탈출 육아법

수년째 기고하고 있는 한 월간지의 편집장인 박 아줌마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는 카페로 향했다. 겨울햇살이 제법 따사로운 오후, 커다란 머그잔에 든 커피를 들이키며 그녀와 나의 수다는 쉼 없이 계속돼 대화는 편식이 심한 나의 음식성향으로 이어졌다.

초등학생 아이를 둘이나 둔 박 아줌마는 편식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편식을 방지하기위한 나름의 육아법에 대해 잠시 들려주었다.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뭘 강요하진 않는데 대신 처음 몇 번은 무조건 해보게 하는 게 내 원칙이야. 음식도 싫어하는 게 있으면 일단 맛을 보게 해서 정 싫으면 관두라고 해. 가령 우리 큰 애는 조개나 물컹거리는 걸 못 먹거든. 그래서 하루는 조개를 조그맣게 잘라 요거 하나만 먹어보고 도저히 못 먹겠으면 먹지마라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했지. 당연히 애는 지난번에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네가 요만큼 컸으니까 지난번 너랑 지금 너랑 똑같은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입맛도 변했을지 몰라.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보게 우리 또 한 번 먹어보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애가 못 먹는 음식이 점점 줄었어."

'일체유심조'의 법을 이렇게 잘도 활용하다니, 불교적 사고관에 입각한 박 아줌마식 육아법이 실로 위대해 보이는 순간, 그녀가 한술 더 떠 부연설명을 덧붙인다.

"처음에 맛없다고 생각해서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커서도 못 먹을 수 있잖아. 실은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몸 상태랑 맞지 않았다던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잠시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냐. 또 입맛도 변하는 거니까 틈틈이 다시 느껴보는 시도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하고 성격이 상당



어릴 때 길러진 편식습관은 성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히 밀접하다고 보거든. 먹기 싫은 음식도 자꾸 먹어보면 그 습관이 일에도 적용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것에 대한 선입견도 줄일 수 있고…"

솔직히 이 땅에서 '아줌마'라는 존재는 여자로서의 교양이나 자존심은 멀찍이 던져버린 소위 극성맞은 '전사'내지는 '여편네'와 같은 이미지와 직결되곤 하는데, 그 또한 박 아줌마의 말마따나 오랜 편식 습관에서 온 나의 선입견이었을까? 진정 아줌마다운 지혜와 매력에 도취돼 "뭐 또 재미있는 얘기 없어?"라며 응석을 부리고는 밥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재하며 때때로 소재가 부족해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 뜬금없이 "내가 자기한테 교도소 다녀온 얘기 한 적 있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식어가는 커피를 서너 모금 홀짝이고 있을 때였다.

"누가? 아줌마가?"

양갈이 순하고 착하기만 한 박 아줌마와 교도소라는 장소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아, 커피를 두어 모금 다시 들이키고는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군부정권에서 벗어나려고 한참 대모를 할 때였거든. 그때 내가 4학년 인문학부 대표라 대모에 참가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집에 형사들이 들이닥쳐 끌고 갔어. 북한을 찬양하는 지하조직으로 몰아붙이면서 보름인가 조사받다가 교도소로 넘겨져 독방 수감됐었어.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본 거 있지.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 욕심을 버리면 그냥저냥 먹을 만해. 특이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갈치국도 거기서 처음 먹어본 거 있지."

박 아줌마는 당시 상황들을 찬찬히 떠올리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야기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6-끝 체질 감별법

'내 체질' 꼼꼼히 관찰해 정확히 알자

어느 한의원에 가면 '당신은 태음인입니다'라고 말한다. 다른 한의원에 가면 '당신은 소음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상체질에 관한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무래도 자신이 소양인 같다. 한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혼란을 한번쯤 겪어보았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내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체질 판정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태양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가지 본성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대 또는 격세를 넘어 잠재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이다. 유전되는 경우의 수가 3대만 거쳐도 256상(象)에 이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진다.

체질의학 책들은 대개 체질별 식단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각기 다르고 분류기준도 객관적이지 않다. 심지어 어떤 책은 사상의학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체질감별법도 혼란스러울 만큼 다양하다. 감자, 오이, 무, 당근을 이용한 오링 테스트 O-ring Test, 금은반지를 이용한 체질기(體質氣) 테스트, 한약재를 이용한 테스트, 관상이나 골상을 이용한 형상판별법 등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 수가 없다.

방법론상으로 장단점이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100% 정확한 체질 판단법은 없다. 혹자는 '이 방법이야말로 100% 정확하다'며 고집하는데, 아직까지 확고부동한 판별법을 보지 못했다. 다양한 체질판정법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적어도 그 가설이 타당해야 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상의학은 제맘대로 판정하는 주관적인 의학인가? 절대 아니다. 사상의학의 효능은 양방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체질에 따른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체질 판정을 둘러싼 통일되지 않은 기준에 있으며 모든 책임은 한의사에게 있다.

한의사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당신은 어떤 체질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일반인이 자기 친구에게 '너는 이런 체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체질 판정에 대한 대혼란이 생긴다. "당신은 소양인 체질로 보여지지만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니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자신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과거에 비해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만성질환은 변화가 다양하여서 증상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힘들다. 또 다양한 생활환경으로 사람들의 성격도 복잡해져서 체질감별이 더 어려워졌다.

현재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은 치료효과로서 판정하는 것이다.

화장품을 생각해보자. 처음 화장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몇몇 제품을 써보다가 자기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게 된다. 화장품처럼 꼼꼼한 주의와 관찰을 한다면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한방차를 일주일간 마셔보자. 구기자(소양인), 황기(소음인), 갈근(태음인), 모과(태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차부터 시작해본다.

처음 2, 3일은 숙변이 나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해보고 그 결과를 꼼꼼히 비교해보자. 제일 먼저 대소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소변색이 투명해지고, 대변이 황금색이 된다면 그 한방차가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이다.

한방차	구기자	황기	갈근	모과
체질 분류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한양방센터 삶 대표원장 이경제 (02-576-7575)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동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생활정보 | 21 | 제763호 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메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 · 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빙의, 전생, 우울, 가위눌림
2. 역학,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3. 속성과정 (출장지도 가능)
4. 신들림병 상담환영
5. 스님에 한해 특별 할인혜택
010-2484-5001
031)943-8094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 잠을 설치고 헛것이 자주 보이는 분.
- 가위눌림이나 조상꿈을 자주 꾸는 분.
- 이유없이 머리가 자주아파 괴로우신 분.
- 빙의, 신병, 우울증으로 힘드신 분.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김 현산 작명 역리원
◎ 작명 ◎ 사주 ◎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불 자 결 혼
- 초, 재혼
- 20-50대 가능
- 국내, 국제 가능

010-4485-8888
혜덕 스님
051)515-1933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능은 무궁
016-606-565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010-7232-0384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천사 총무원
부산 영남
070-8791-7845

주위 소나무 숲 청정지역
불사하면서 여생을
가족처럼 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봉화
010-4878-9559

- 운전기사 구함
  ▷나이 : 40-55세
- 공양주 구함(한분)
  ▷서울
- 절을 운영하실 분
  ▷비구 스님, 안성

011-249-6755

조용한 암자에서 기도 스님 또는 처사님 모십니다
061)332-7588
011-9604-473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31)773-7746
천 인 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군 용문면, 40-50대
010-8922-11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10-6373-3243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 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며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초반 비구승무불합장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참선,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60대 비구 기도정진할 사찰을 찾습니다
041)356-495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세수 50세 이상, 승납 10년 이상
▷경기 여주
010-8819-8988

체용 사주원리 요해 무료강좌
▶강사 : 김영진 선생님 (故 이석영 선생님 제자)
▶일시 : 2010년 1월 9일 (토요일) 시작
(오후 2-5시까지)
전화 : 02)306-7988 / 010-5624-1365
수색 광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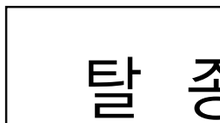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불사안내
소승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도움 주시는 분에게 월하 큰스님 서예 2점을 보시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3389-1237
경북 안동 만성 합장

기복, 방편을 쓰지 않고 정법을 실천하는 납자입니다.
거제도나 부산 근교에 사찰이나 터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요.
011-9143-009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행자 모집 합니다
사찰운영 및 기도정진, 주지스님 시봉하시다가 주지스님 열반 후에 본인 앞으로 사찰 등기 가능함.
(세수 35-45세까지)
* 신심이 확실한 분만 전화하세요.
010-3499-3721

조계종 수번 생활광고하여도 전화만 올 뿐, 답답하여 다시내니 객관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노승이 그만 쉬고자 **4-50대 답사하여 안착운영관리 바랍.** 그리고 조용한 도량에 의지있고 불심있는 **4-50대 공양주 연락바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054)653-1180
010-6353-1180

탈 종 공 고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 귀하

- 사찰명 : 연화사
- 창건주지 : 회암 (정영춘)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상기 사찰과 주지 회암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이에 탈종을 공고하나이다.

2009년 12월 21일

탈종인 연화사 주지 회암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鑑定)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하므로 강의를 들을수록 실감이 날 것이다. 역학(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고전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과 五行의 변화법칙일 뿐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 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20여 년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선생의 강의를 듣는 순간 눈이 휠짝 열릴 것이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 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관운은 있느냐 없느냐, 시험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사업운이 있느냐 없느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좋지 않으냐, 교통사고는 어느 달에 생기느냐, 관재 구설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이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생생하게 직접 듣는 것과 같다. 더욱이 실존했던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상세하게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현재 대구에서 23기 강의 중. 수강희망자 환영)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테이프와 교재대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참선용맹정진 안내

부산 화명동 참선도량 **여래선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국의 재가불자와 함께 용맹정진을 개최합니다.

새해와 함께 5일간의 장좌불와 정진은 불자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주는 환희요, 소망일 것입니다. 인연을 갖추십시오, 귀중히 모시겠습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29일 오후8시~ 2010년 1월 3일 오후6시
- 준 비 물 : 법복, 바루, 세면도구
- 참 가 비 : 8만원
- 접 수 처 : 여래선원 총무팀 051) 362-0339 010-4546-5797
- 접수마감일 : 2009년 12월 24일

여 래 선 원
부산 북구 화명동 2315-8번지 금강빌딩 4층
(수정 전철역 1번출구)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000외 3,000
- 가액 : 14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14억 5천

- 위치 : 동해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인법당 : 45평
- 명당터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선원
- 부지 : 90평
- 법당 : 7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5천

- 위치 : 강원산사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9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 총 대지: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 요사채 80평(방 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산세수려(큰 바위산) 계곡접
- 약 30억 불사
- 가액: 12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개정동
- 평수: 135평(3층, 4층, 5층)
- 3층 : 방 5개, 화장실
- 4층: 방 3개, 공양간 및 화장실
- 5층 : 대법당,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2599-6020

사찰 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전기시설 완비,
-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62평
- 가액: 17억
  (지하철 1분)

017-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3층건물 3층, 50평
- 법당20평, 방 3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가능

010-8761-1628
070-8279-1628

사찰실버타운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 가액: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 법당 18평, 대지 112평
- 요사채 2동
- 가액: 1억 3천만원

016-742-2122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율현마을 751번지
- 평수: 대지 250평, 법당(40평),
- 이층 산신각,요사채 20평
- 별장으로 사용 가능함
- 가액: 상담후 결정

055)277-3569
011-847-15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2번출구
- 4층 건물중 3층(50평)
- 삼존불 청동불, 최신 인테리어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45만원(부가세별도)
- 시설비 6천만원

010-5851-4984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 법당 : 30평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010-5340-6357
053)324-535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최고시설
- 삼존불 냉난방 완벽시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최저가 인도

018-622-98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A급,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

055)372-3563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3천만원(전세가능)

011-816-9104
011-815-9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 교 원 안 내

- 10년된 포교원
- 원불 300불 모셔진 안정된 곳
- 바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1-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
  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주지스님)
010-3550-6771(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
- 가액: 1억 9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화 신도시 정왕동 E마트사거리
- 대형공원과 아파트 대규모
  단지로서 포교최고지역
- 4층건물중 4층, 전체 약 110평,
  옥상전체, 화장실및 복도 전체사용
- 법당: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
  영단, 인등단(관음인등 108불)
  큰방 3개, 사무실 1개, 창고1개
- CCTV설치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시설비 8천5백만원

010-4340-88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왕시 내손동
  평촌 롯데마트앞
- 안양 평촌요지 교통편리
- 평수 45평, 5층 ●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031)426-0555

암자(급)안내

- 위치: 전남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종각
- 요사채, 화장실 1동
- 평수: 344평, 건물허가
- 실사용 1천평
- 가액: 8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061)322-1961
011-491-5086

사찰 요양 원적지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대구근교)
- 풍부한 양과 질좋은 지하 암반수
- 허가된 창고 40평
- 기도하기 적합한 굴이 있음
- 약 2,50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5383-24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
- 가액: 1억 9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앞 동성로
  (지하철 1분거리)
- 4층 약 30평(정원있음)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상담 포교 최적

010-2446-26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인천
  제물포역 5분거리
- 역세권 밀집지역
- 평수 : 35평 내외
- 법당, 방2, 주방, 후불탱화 포함,
- 박달나무목불, 지장보살님 2자 7치,
  좌대 1자 1치, 좌우 무독귀왕,
  도명존자 3자, 좌대 5치 분리
- 가액: 보증금 300만원,월 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010-8549-01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 평수 : 430평, 건평 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 방4, 공양간, 화장실2, 창고
- 가액: 6천 5백만원

010-9870-10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광안
  전철역 3분거리
- 현재 비구니 스님 상주
- 대지 100평, 건물 2층 55평
- 가액: 3억 6천(절충가능)

010-9009-6666

단독건물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최중심지(지하철역근)
- 건물(3개층) 및 주차장 옥상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시설(법당, 종무소, 황토방 등 최고)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천만원(조절가)

010-6780-6271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
  (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전통사찰(급)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27억 5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중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1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2억 9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융자포함 양도가능)

011-707-5552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서울도심포교원

- 위치 : 서울역 10분 거리, 갈월동 버스 정류장
- 법당 : 약 20평
- 4층건물에 3층 법당, 방 2, 부엌, 화장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법당시설 잘 되었고, 불기 및 주방기구 일체

011-9105-0024 (현경)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2753-708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정남향 별장식 토굴

- 위치 : 경남 마산 (내서에서 승용차로 신호준수
  15~20분내, 함안가야 10분, 마산진동 10분거리)
- 대지 436㎡, 소규모 채소밭, 과일밭, 죽림, 산
- 건물: 임법당대1, 방4개, 주방식당2, 해우소겸
  욕실세탁소2, 다용도실 ,창고1, 통나무휴게실1,
  옥외해우소1, 기타시설완비, 자연석괴석, 정원화단,
  표고버섯 24거루식재, 주차장, 온실, 밭 200평사용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 발전전망: 마산내서에서 여항국도5호선
  터널개설 2011년 본격추진

055)583-1418
011-567-1413

암 자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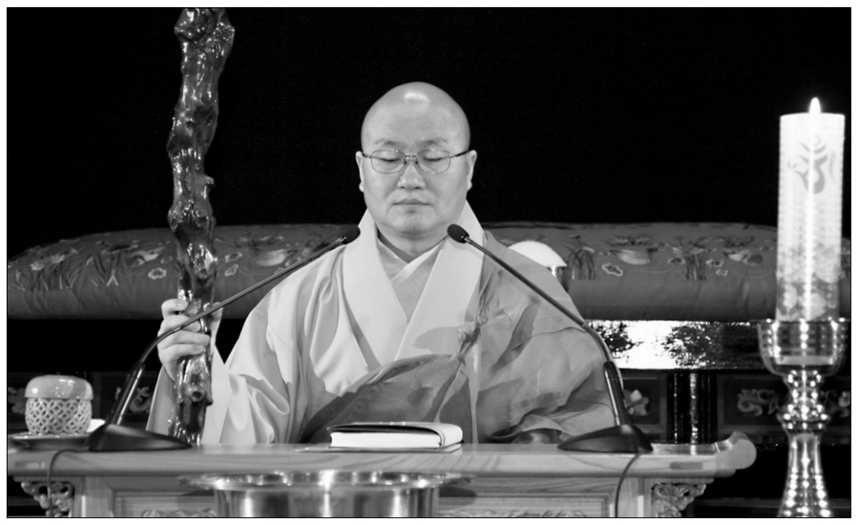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내 안의 부처’ 확인한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자

강 사 : 심산 스님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주 제 : 진여(眞如)의 회향이란
장 소 : 양산 통도사 설법전
주 최 :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화엄경〉은 7곳에서 총 8회에 걸쳐서 설해진 그야말로 ‘대광방불화엄경’이다. 대승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향’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작은 선근공덕을 모든 중생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즉,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근공덕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동체대비의 마음이 회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화엄산림대법회 중 ‘10회향품’에서 ‘진여상회향’ 속에 담긴 선근공덕의 회향에 대해 법문한 심산 스님의 설법을 경청해 보자.


‘진여의 회향’을 주제로 화엄법문 하는 심산 스님.

#참 회향은 ‘내가 곧 부처’임을 알고 행하는 것

회향, 회향, 계속 회향입니다. 무엇이 회향일까요. 가장 훌륭한 회향은 어떤 회향일까요. 가장 훌륭한 회향은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나누겠다’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생을 살고 마지막 갈 때 까지 스스로 내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출발은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저 부처님을 저 먼 곳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곧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말을 하고 행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아름다운 회향이 됩니다.

#우리가 부처로 살아야 하는 10가지 이유

여러분은 부처님입니까. 우리는 왜 부처여야 할까요.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확신 속에는 다음의 10가지 공덕이 함께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정화됩니다. 더 이상의 미혹이 존재하지 않으며 확연해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고, 부처의 마음으로 챙겨서, 부처의 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정심(決定心)이 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데 조금도 흔들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결정심이 생깁니다.

셋, 환희심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뻐야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로 늘어납니다. 어차피 사는 삶인데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쁘게 산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 싫증이 사라지고,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만약 짜증이 나면 ‘아,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섯,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수희(隨喜)의 마음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부처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배가 아픕니다.

여섯, 내가 부처면 다른 사람도 부처님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나질 않습니다.

일곱, 내가 부처면 수승하는 마음이 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욕심이 치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덟, 내가 부처면 다른 이를 칭찬, 찬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아니면 칭찬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다른 이를 칭찬하는 것이 곧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 같고, 남이 잘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아홉, 내가 부처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는 확고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없으면 모든 신심과 원력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 내가 부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부처가 아니면 사랑과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10가지를 보면 우리가 왜 부처로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그렇다면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가 진정한 불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서 부처님이 움직여야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자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성명으로 ‘박 누구’, ‘김 누구’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어떤 인식된 그 분이 부처님일 때 내가 부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확고함을 우리가 삶 전체에서 완전하게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속에 과연 부처님이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그 가르침 안에서 행복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안 하고 있는지. 인생에 관한 대만 불광산사 성운 대사의 질문을 통해 느껴봅시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이로움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부모님과 스승 등 어른들의 은덕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보답하였는가?

나는 온갖 좋은 인연을 누리고 살면서 얼마나 보답을 하고 살았는가?

세상은 나에게 의식주의 즐거움을 주었는데, 나도 그들에게 이러한 인연을 주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물질적인 것, 종교심이건 진리이건 얼마 만큼 이웃과 나누며 살았는가?

자신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극락과 지옥을 오가는지 세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듯 ‘주었다’ ‘나누었다’는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삼세인과(三世因果)를 보면 이 세상에 올 수 밖에 없는 인연을 전생에 지었습니다. 또 어디로 갈 것인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히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묻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선근공덕이라도 존재해야 회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선근공덕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보고, 거기서 얻은 조그마한 선근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회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베푸시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회향입니다. 회향은 진여의 모습으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쁘다고 더 주지도 않고, 밉다고 덜 주지도 않는 그 마음으로 평등하게 베푸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보리회향입니다.

#삶을 아름답고 원만하게 사는 게 ‘회향’

중생의 회향은 스스로의 선근공덕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곧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복밭에서 번뇌를 떠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청정한 마음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원만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수승한 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화엄산림, 법회, 수행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부처의 행이 되고, 부처의 마음이 되고, 부처의 말이 되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 또한 회향이 되어야 합니다.

선근회향의 공덕은 진여가 온갖 꽃에 두루하여 끊임이 없는 것처럼 끝도, 걸림도 없으며 무량해 경계를 지을 수도, 머무르지도 않아 구체적인 모습의 성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 선근인연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진여상 회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면 모든 것이 평등한 진여의 모습이 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 나누면 곧, 화엄세상

여러분이 가진 선근의 인연공덕을 모든 사람에게 나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될 것이고, 다 부처님이 되면 모든 시간과 공간, 부처님과 보살 등 일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 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서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챙기고, 그 인연 공덕을 함께 나눈다면 이 세상이 곧 화엄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법문 이대로 행하면 행복한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은 재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서로 웃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화엄산림의 모든 공덕을 회향하기를 발원합니다.

정리=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아름다운 삶의 출발은 내가 곧 부처라는 마음부터
자신의 행복을 모든 사람과 나누겠다는 것이 ‘회향’


심산 스님의 화엄경 법문을 경청하는 통도사 신도들.

회 원 모 집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회원종단 : 한국불교일대원조계종
대한불교우주대법왕종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종)서류
●입회(종) 신청서 1부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사진 3매
●기타 서류
▣ 특 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계불교우주대원종발전총연합회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31)953-7045. 4077 / 011-286-2439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49재및 천도재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교대학 선학원 학장 일해스님
접수및 문 의 053)986-1080 011-9361-5566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 문 과 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시 : 1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 실습위주 집중교육)
■ 보 시 금 : 120만원 (선착순 12명만)
■ 입금계좌 : 대구은행 010-13-072143 (예금주: 보금정사)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보 금 정 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536-6번지
053)474-5959 / 010-3535-9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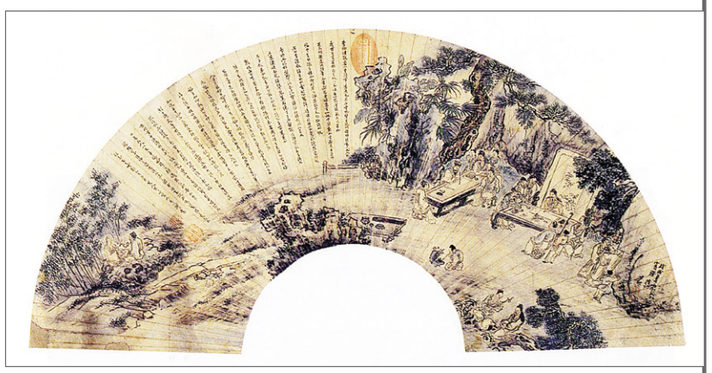
陰陽針法
음과 양의 조화가 무너져서 인체에 발생하는 병인을 단 4혈만 시침하여 1회 시술만으로도
통증이 70% 경감되는 침법
■ 한약처방 : 생월에 맞추어 8가지 한약재만 처방하여 잘 낫지 않던 병을 완화시킴.
■ 중국 평형침법 : 단 1혈을 시침하여 즉석에서 병증이 완화 경담되는, 중국인민군부에서만 극비에 전수되었던 침법
■ 교육일시 : 2010년 1월 9일 오후1시부터 1박 2일
(이후, 초보자 누구라도 시침법부터 전문인이 될 때까지 교육생 편리한 날 전문교육 추가 보시금 無)
■ 보 시 금 : 100만원 (선착순 10명만 선입금 예약요)
■ 입금계좌 : 농협 284-12-119538 김애성
※음양침법 또는 평형침법을 이미 배운분은 사상침법 (2혈만 시침, 외과적 병증 즉시효과)을 교육함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전화 041)855-7114 / 016-552-2159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⑱ 서원아집도

시·서·화 일치에 유·불·도 합일의 희구 담아

조선후기 정조년간(재위 1776~1800)은 문예 부흥기이다. 이 시기를 대표한 인물로는 사상에 다산 정약용, 문학에 연암 박지원이 있다면 예술에는 단원 김홍도가 있을 것이다. '무소불능(無所不能)의 신필(神筆)' 또는 '가장 조선적인 화가'로도 불리는 그는 전대에 완성된 회화적 전통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개인의 천재적인 능력만으로 자수성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후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 표암 강세황(1712~1791)이 있었다. 강세황은 조선후기 예림(藝林)의 종수로 시·서·화에 뛰어났던 문인화가였다. 그는 멀리 청나라 황제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명필로 명망이 높았고 시문은 고풍스러웠으며, 회화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강세황의 문집에는 소년 김홍도가 그의 집에 출입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의 회고가 담겨있다. 이후 이들의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통할 정도(知己)에 이르게 되는데 사제 간의 신분과 나이의 벽을 넘은 아름다운 교류로 발전했던 것이다.



김홍도, '서원아집도', 선면, 1778년(34세), 지본담채, 27.0x80.3c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부채그림으로 제작된 '서원아집도'는 1777년 강세황이 화기(畵記)를 쓰고 이듬해에 김홍도가 그림을 그려 완성한 작품이다. '서원아집도'는 중국에서 처음 그려지기 시작한 소재로 북송의 사대부 왕선(王詵)이 자신의 별서 정원인 '서원(西園)'에서 소식, 미불, 이공린을 비롯해 당시의 유명한 시인과 묵객이 모여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담론하는 아회(雅會)를 담은 그림이다. 또한 모임에 참석했던 미불이 당시의 정황을 묘사한 도기(圖記)를 쓰고, 화가 이공린이 그림에 담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림의 화면중앙의 윗부분에는 모임의 중심인물인 소식(蘇軾)이 탁자에 앉아 시를 쓰고 있다. 그 오른쪽으로는 이공린(李公麟)이 두루마리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서예의 대가인 미불은 절벽의 바위 위에 시를 쓰고 있다. 다시 오른편 하단에는 도사인 진경원(陳景元)이 거문고를 타고 있으며, 고승인 원통 대사(圓通大師)가 무생론(無生論)을 강론하는 모습도 보인다. 소식과 미불, 이공린은 북송시대의 시문과 서예, 그림을 대표하는 명사이다. 한편 소식과 진경원, 원통 대사는 각각 유가와 도가, 불가를 대표하는 현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문예와 종교적 대표성을 지닌 이들의 만남은 당대 사적인 모임의 성격을 넘어 '문예일치와 유불도 합일의 경지에 대한 희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들이 교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한자리에 모여 서원아집을 가지고 그림이나 기록을 남겼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 이들의 모임이 후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일화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서원아집도'는 소식을 중심으로 한 문예집단의 이상향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이들의 사상은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림으로 꾸준히 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중앙의 여백에는 차동이 화로에서 찻물을 달이고 있다. 다른 '서원아집도'에서는 좀처럼 보이는 않던 차동이 등장한 것이다. 소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에도 친구에게 차 씨를 구해 재배할 정도로 차를 즐겼고 여러 편의 다시(茶詩)를 남기기도 했다. 김홍도는 소식이 차를 좋아했던 정황을 잘 포착해 그림에 담은 것이다.

강세황은 물과 불의 음양이치를 본 따 태극로(太極爐)라는 화로를 특수 제작할 만큼 차를 애호했고 그의 문하에 있던 김홍도 역시 강세황과의 교유를 통해 차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원아집의 한 가운데에 찻물 달이는 화로를 둔 것이리라. 결국 그림속의 인물들이 추구했던 시·서·화(詩書畵) 일치와 유·불·도(儒佛道) 통합은 탈속의 운치와 함께 차가 있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림 밖에 있는 강세황과 김홍도의 만남은 옛사람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재현해 그림을 제작하도록 했다. 결국 '선면 서원아집도'는 단순히 중국의 고사 인물화를 그린 사실을 넘어 조선 문인이 추구했던 사상을 드러내고 김홍도와 강세황의 교류를 담아낸 생생한 증거가 됐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⑮ 만장(輓章)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일까. 만장이 법구를 따라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통곡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람에 펄럭이고, 글자마다 글썽거리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눈길 위에 떨어질 듯 했다. 백양사는 온통 하얗고, 법구는 그 하얀 눈길을 걷고 있었다.

2003년 12월 19일 백양사. 입적하신 서옹 스님의 영결식이 끝나고 다비장까지 법구 이운을 하고 있었다. 생사(生死)가 둘이 아니라고 하나 법구를 따라 걷는 불자들의 마음속엔 오직 떠나간 이의 시간들로 가득했다. 무거운 발자국 위를 걷는 고개 숙인 얼굴들. 그 얼굴 위에서 슬픔의 문장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로 떠나가는 이와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스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말로는 따라갈 수 없어서 일까. 만장이 법구를 따라가고 있었다.

詩가 있는 도량

▪ 신발

할아버지 신발 벗으셨네

둥근 주목나무 우듬지에 슬쩍 신발을 벗어 놓으셨네
햇살 고운 바람 불면 두둥실 하늘길 탈 것만 같네

평생 걸어온 발길이 허공을 짚자는 심사네 허공으로 뜨기 전 첫발을 띄워보자는 심사네

키 낮은 주목나무 공손히 떠받친 힘으로 깨끗이 마르겠네

할아버지 신발 벗어두고 어디 가셨나

–이계열, 시집 〈우리공〉

옛 판화의 세계

황제가 조개를 좋아하다 문제기합(文帝嗜蛤)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불심이 강했던 문제가 조개를 먹다가 조갯살 속에서 나투신 관음보살상을 보고 희유한 일에 대해 유정 스님에게 그 이치를 물어보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유정(釋惟政)은 당나라 문제 때 스님으로 속성이 주씨이며 평원사람이다. 문제로부터 스승의 대우를 받았다. 문제는 불도에 귀의한 독실한 불자였다. 그는 틈만 있으면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큰스님을 청해 설법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내전에 불당을 따로 마련해, 관음상을 모신 뒤 조석으로 예불과 기도를 올렸다.

본문의 내용을 풀어보면 "문제는 불교에 귀의한 후 다른 어육은 다 금할 수 있었으나 유독 조개만은 좋아했다. 어느 날 수라상에 쪼개도 입을 열지 않는 조개가 있었다. 황제는 기이하게 생각하고 곧 향을 사르고 기도하니 조개가 열리면서 관음보살을 나투며 광명을 발하는 것이 하도 신기해 종남산 유정 선사를 모셔왔다. '스님, 관음상이 조개 속에서 나왔습니다.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불상이 나온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관음보살상이 나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다. '이는 32상으로 응화신을 나타내 중생을 교화하시는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32상 가운데 조개신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32응신의 화신이라고 합니까' '불신은 백억화신을 나투신다고 했는데, 백억화신 가운데 어찌 조개로 나투는 화신인들 없겠습니까' '<관음경>에 보면 관음보살이 각각 그의 형상을 응해 제도시킬 자는 각각 그 형상을 나투어 설법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개는 비록 관음상은 나투었으나 설법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폐하께서는 이 조개에서 관음상이 나온 것을 아무 사람이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희유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나는 깊이 믿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설법 듣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 후 문제는 천하의 사원에 조서를 내려 각기 관음상을 건립하게 했다."

중생을 자비로 구원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모습이 문제와의 인연담으로 표현되고 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인연들이 불보살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새삼 느껴야 할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문제기합(文帝嗜蛤)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대행 스님

모가 난 것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불을 밝혀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도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고마운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 마음을 참 많이 밝게 해 준 한 계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숨쉬고 있는 제 자신까지도, 제 몸까지도 감사함을 그때 좀 느꼈습니다.

큰스님: 정말 감사하군요.

질문자1(남): 실은 이 감사함을 스님께 말씀드리고자 나왔는데, 아까 스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됐다 한다든가 좀 뭐한 것을 봤을 때 생각을 내서 마음을 돌려 주는 것과 생각이 나서 마음을 돌려 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내기 이전에 벌써 뭐가 닥치면 그 닥치는 대로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닥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 무슨 생각을 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래서 닥쳐왔으니까 '아, 이것을 어떡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그냥. 생각이 났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오게 한 것도 너니까 해결하는 것도 너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을 일부러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없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또 하지 마세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말을 할 땐 말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지어서 마음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야 그것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천 마디 하고도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한 마디를 하고도 그냥 수없이 많은 말을 한 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별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용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냥 거기다 돌려 놓고 지켜보는 그런 멋있는 멋쟁이가 돼야죠.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 내려가서 저희 지원장 스님한테 꾸중 들을 폭 잡고 나온 김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림 · 최주현

큰스님: 하하, 괜찮아요.

질문자1(남): 다름이 아니오라 부처님 뜻과 우리 큰스님 원력과 지원에 계시는 저희 스님들 힘을 빌어 광주에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을 짓는 것도요, 불사를 하게 되는 것도 정신계로는 일체 만불(萬佛), 그 빈손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해 주는 거고요, 산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내서 전부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 만든 사람한테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예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느 회사가 양회를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벽돌을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무를 켜서 말려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죠. 뭐 물, 불 다 들죠, 거기. 그러니까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없고,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혼자 한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대신에 너희도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쪽에서 준 것도 없고 이쪽에서 한 것도 없으니, 없는 가운데 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천세계의 묘법이 광대무변하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왜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몸뚱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보살들이 들어 있는데 보살들이 부처님하고 더불어 같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보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 마음에서 한생각을 내면 보살들이 되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아촉이 되고, 미륵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그냥 한생각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수백억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그 한마음 속에서 탄생을 해 가지고 그냥 모두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거는 부처님이 애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동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많은 생명들에게 한마음으로 항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2(남): 질문이 몇 가지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한 가지씩 물어요.

질문자2(남): 네. 저희가 관법(觀法)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 하고 '한마음 주인공' 또 '마음의 선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이 귀신 망치야!' 이래도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지극하게 했다면 '이 귀신 방귀씨야!' 이래도 되는 거죠. 허허허… 사실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먹는 뜻이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놈 저놈 한다고 해서 "아휴, 부처님더러 어쩌면 요놈, 저놈, 너, 이러느냐." 하는데 '너' 이러는 건 그냥 보통 말하듯이 '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하게, 너무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본다면 모셔야죠. 지극하게 모셔야 되지만,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너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나 이게, 그건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재(豫修齋)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주 법계의 일체제불 불보살님 등, 귀신까지도 전체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데, 그때의 예수재라는 거와 또 조상님 천도했을 때의 그 마음 천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큰스님: 예수재는요, 지금 우리 부모가 어디 먼 데를 간다고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사십시오.' 하고, 당장 가서 방을 얻고, 당장 가서 뭐 쓸 때 쓰고, 뭐 살 걸 사고 그래야 하니까, 또 뭐 사 잡숫고 싶은 거 사 잡숫고 이러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미국으로 보내 드린다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노인네들이 금방 옷을 벗으면 혼이 벗어나서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죽어서도 감을 다 잡죠. 거기다가 감만 잡는 게 아니라 인도자까지 생기죠.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생기는데, 보살들이 이끌어 주죠.

그런데 공부를 영 모르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혼백이 그냥 아는 집으로 떠돌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 떠돌거나 그래서 '나는 저기 가야 할 텐데 배가 없어 못 가고 있다.' 고 하는 혼백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죠.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간다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모습이 있으니까 타 죽고, 모습이 있으니까 빠져 죽고, 그렇게 살던 습이 있어서 죽었는데도 모습이 없이 의식적인 마음만 있다는 걸 모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떠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다가 잘 걸리면 좋지만…, 영혼들이 원래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다가, 단속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이름을 불러서 개개인을 차원대로 보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떠도는 혼백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덕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제10기 (2010년도) 치악산 구룡사
원주불교대학 학생모집 요강
귀의 삼보하옵고,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치악산 구룡사에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부처님의 법과 자리 이타의 이념을 널리 홍보하여 재가 불자님들이 보살정신을 실천하고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불교 대학을 개설하여 제10기 불교대학생을 모집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과정 : 1개년 과정 (2010. 1. 9 ~ 2010. 12. 11)
2. 교육요일 : 주1회(매주 토요일 15:00 ~ 16:40) 100분간(2시간)
3. 법 사 진

법사명	과목	적요	법사명	과목	적요
정념스님	참선의생활화	월정사 주지	김응철박사	포교방법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적천스님	금강경	구룡사 주지, 학장	심효섭박사	불교문화	인천 가천박물관
해공스님	경전의이해	구룡사 총무	최봉수박사	불교교리	동국대학교 교수
송강스님	아함경	구룡사 교무	김경집박사	불교역사	동국대학교 교수

4. 모집인원 : 80명 선착순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 1매
사 진 (3*4cm) 4매 교재대 ₩50,000원정(10기생만)
등 록 금 ₩250,000원정 (포교사고시 합격자 ₩200,000원정)
6. 원서접수 : 2009. 11. 1 ~ 2010. 1. 15
7. 특 전 :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 인정
8. 문 의 처 : 치악산 구룡사 TEL : (033) 732 - 4800
FAX : (033) 732 - 1211
불기 2009년 12 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구룡사 주지 원주 불교대학 학장 적천

새해맞이
141회 3000배 용맹정진
서울숲 법왕정사 새해맞이 3000배는
예쁜 마음으로 미소 짓고
또 웃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며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9년 12월 31일(목) 저녁 9시 ~
2010년 1월 1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 전철 : 2호선 뚝섬역 7번출구 우측으로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buddhanews.com

공부를 하려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25면에서 계속

분들을 위해서 천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서너 번 해야 되는 집이 있고, '아, 저 집은 참 갸륵하다. 모두 잘들 지내고 잘들 살아서 저렇게 천도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자손들이 하겠다고 그럴 때는 '그러면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건 자손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기리는 마음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도재를 안 해도 되는 집이 많아요. 덮어놓고 돈이나 벌고 그러려면이야 뭐, 그저 누구나 다 그냥 하라고 하겠지만 난 어떤 땐 그래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러죠. "이다음에 벌어서 부모한테도 효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럽니다. "어려운 집에서 남의 돈 취해다가 하면은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 하고 도로 줍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볼 때는 어려운 집이니까 조금 가져와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집에서 몇십만 원이라는 것이 큰 돈이죠, 어려운 집에선요.

질문자2(남): 그리고 국내외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뭐 출가자도 있을 수 있고, 기복 불교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관법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국내 전체로 해서 천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천도가 되는지, 아니면 불법만 믿어도 그냥 천도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게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을 가지고, 내 집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주인이 있다면 금방 닥쳐오는 거를 팍 대치를 해서 그냥 탁 처리하는데, 기복으로 믿는 사람은 불러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죽고 난 뒤에 오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지은 대로 산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질문자2(남): 결국은 천도가 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큰스님: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 신도님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주인을 믿느냐에 따라서 집 주인이 얼마나 대치를 해 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질문자2(남):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선원에 한 4년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어떤 땐 선원이라고 하고 저도 어떤 땐 절에 간다고도 하는데 만약에 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면 스님께서 특별히 선원이라고 이름을 안 지으셨을 것 같아서 그 표현이 틀리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절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절하는 데가 절이죠, 하하하…. 그런데요, 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참자기를 찾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선법에는 예의를 지켜야 하고 절은 으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일부러 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질문자2(남): 그러면 저희 선원에서는 절이란 말을 안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니,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요, 그냥 대부분 사찰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부를 때는요. 그냥 꼭이 절이라고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하진 않죠.

질문자2(남): 그리고 저희들이 법회 있을 적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태껏 저희 대중들은 질문을 했는데 스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못 봤습니다. 옛날에 육조 스님 시대나 그때도 동시에 다 같이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또 저희로서는 저희가 질문을 드려도 또 보충 질문을 스님께서 하시면 저희 질문 차원도 높아지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려다가 미뤘다가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큰스님: 스님네들은 승단(僧團)에서 스님네들끼리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럽니다. 이거는 불가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단과 이게 지금 폐단이 생기니까요. 이 승단은 여러분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스님네들끼리 때로는 토론하고 그럽니다. 어떡하면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을 잘 이끌어 드릴까 하고요. 하하하….

질문자2(남):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 백일 법문 테이프도 조금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들어 보니까 동시에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중에 스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그 스님들 마음의 공(空)자리에 귀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발승 제자분인 그분들한테 귀의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대통령을 믿으면 비서도 믿듯이 말입니다.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가 이 법을 모두 배출시키거든요, 법을 향해서. 불(佛), 즉 말하자면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깨쳤다면 모두 부처님이죠. 마음에서 이렇게 그 법을 정하면 그걸 받아서 불과 승(僧)이 둘 아니게 법을 배출시킨다라는 얘기죠, 중용으로.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머리를 안 깎았더라도 공부를 해서 법이 수승하다면 스님들께서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지요?

큰스님: 그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마힐 거사 당시에 부처님도 계셨고 유마힐 거사도 있었는데 그때에 부처님도 유마힐 거사의 그 마음을 동등하게 여겨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동등해도 유마힐 거사가 떨어지느냐 하면 벌써, 부처님 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가르쳐 주는 거는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동등하게 같이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유마힐 거사가 하시고, 유마힐 거사가 할 수 없는 거를 부처님이 하시고 이렇게요. 이게 마음을 깨달았으면 서로 둘이 아니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같이 돌아갔으니까요.

질문자2(남): 저희 선원에서도 역대 조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또 유마힐 거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우선 자기의 자성(自性)을 보려면 자성 화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지금 스님께서는 주인공한테 돌려 놓고 또 맡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외에 자기 참회나 요런 것이 더 어떻게 겸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외에 더 할 것이 있는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 외에 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회장직이라든가 또 고문직이라든가 또는 총무직이라든가 부회장님직이라든가, 또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공부가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그르고 옳고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공부가 벌써 아니 되죠. 모가 난 것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되죠. 요거는 요렇게 탈을 잡고 저거는 저렇게 탈을 잡고 이런다면, 그 탈이 난 거와 탈이 안 난 거를 한데 합쳐서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다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다 초월하고 대치해서 넘기려면,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그저 둘 아니게 보고, 저쪽에서 이쪽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고 듣더라도 그건 자기가 "그러냐." 그러고 듣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말을 또 저쪽에다 딱 그냥, 그렇게 잘못하고 나가느냐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를 하려면 둥글게 말할 줄 알고, 모가 난 것도 둥글게 행할 줄 알고, 우리가 원형으로써 하면서도 잘나잘나 법이 서 있단 얘기죠.

질문자2(남): 그 다음에 '동중일여(動中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오매일여(寤寐一如)' 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번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가 나투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지요?

큰스님: 같기도 하죠, 네.

질문자2(남): 그리고 몸은 물질하고 정신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인지 하는 것과 동시에 성불하신 분들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때의 그 마음은 어디….

큰스님: 나오지 않고 나오고가 어딨어요? 누가 그래요? 나오지 않는다고. (대중 웃음)

질문자2(남): 다시 이렇게….

큰스님: 나오지 않는 걸 알았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내가 나오지 말까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됐습니까? 지옥이면 지옥이고, 또 천당이면 천당이고, 왔다 갔다 그저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뛰려면 뛰고, 천천히 가려면 천천히 가는 거지 아니, 그놈의 게 그냥 규정돼 있어요? 싸움이 나면 칼을 들 수가 있고 싸움이 안 나면 칼을 끼울 수도 있는 거죠. 칼을 꼭 들어야만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질문자2(남): 그러면 어디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큰스님: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없다가도 그 하나가 딱 나올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전체 보살이 화(化)할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질문자2(남): 네, 질문 다 했습니다.

큰스님: 다 하셨어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 웃음) 하하하…,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을 함이 없이 선뜻선뜻 그냥 해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러이런데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냥 물어요. 그러면 아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놈의 거를 그냥 지어서, 책을 봐서,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고 묻는 거와 알고 묻는 거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면서 묻는 거는 남을 위한 보살행이고요, 또 모르면서 그냥 책에서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난 신뢰감을 갖지 않아요.

질문자2(남): 그런데 이거는 뽑은 게 아니고요.

큰스님: 예, 알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때는요, 마음속에다 씁니다. '아이, 뭐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한 서너 가지 마음속에다가 글을 써요. 써 놓고, 이게 책 아닌 책이죠. 써 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셨어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럼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하하하…. 하여튼요, 웃으면서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옷 벗을 날이 얼마들 안 남았어요. 옷 벗기 전에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자기 2세가 또 무의 세계에서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위 법문은 1994년 12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방(韓方)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 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정체성 비껴가는 광화문광장

지난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장 이래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잡스런 행사들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스노보드 대회까지 치러졌다. 아파트 13층 높이인 34미터 높이의 점프대를 만들어 일회용인 '2009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가 열린 것이다. 도심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이 대회를 두고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어느 나라의 광장에도 이토록 소란스럽고 난장 같은 광장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듯이 도시에는 도시마다 다양한 표정이 있고 특히 광장은 도시민의 독특한 정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광장의 역할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품격이 드러난다. 사람이 떠나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는 곳이 있다. 스쳐 지날 때마다 한조각 추억이 묻어나는 곳. 살아온 600년 세월의 두께만큼 광화문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광화문광장은 본래 옛 세종로 관청가의 옛 모습인 육조(六曹)거리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과거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려 국가의 상징거리로서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작금의 광장은 멋진 디자인은 고사하고 돌바닥 위에 온갖 이벤트용 천막과 분수, 해괴한 햇빛 가리게 따위의 인위적인 설치물들로 넘쳐난다. 오죽했으면 세계최대의 중앙분리대라고 까지 비하했을까. 그곳을 마치 넓은 보행통로처럼 만들어 놓고 볼거리 운운하며 백화점식 이벤트 행사가 줄을 잇는다. 한마디로 어수선 그 자체이다.

그동안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좁아진 차선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지만 시민광장이 만들어졌다는데 위안하며 참아왔던 시민들의 불만이 점차 늘어난다. 도심에 시민들이 가볍게 쉴 수 있는 광장다운 광장하나 없는 현실에 많은 예산을 들인 광화문광장 조차 마치 이벤트 행사장이 되어버려서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원칙과 격조는커녕 상설 이벤트 행사장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에 허탈하다. 전체적으로 조화나 여백의 멋이 담긴 도심 속 휴식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조차 광장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조악하고 어설픈 구조물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한다는 조급함이 곳곳에 엿보인다. 광장 지하에는 곧 이순신장군 기념관인 '충무공이야기'도 설치된다고 한다. '충무공이야기'는 세종대왕 전시관인 '세종이야기' 바로 옆에 둔다고 한다. 충무공의 성장과정과 난중일기, 동시대와 후손의 평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첨단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전시기법을 적절히 활용해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도대체 광장이 역사체험장인지 시민의 휴식공간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이벤트행사장인지 속내를 드러내야한다.

한편으로 살림이 어려울 때는 사소한 집수리 조차도 꺼리는 것이 우리네 생활방식이다. 정부도 연일 친 서민 정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일천 억이 넘는 홍보예산으로 브랜드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금강경>은 세상만사를 꿈, 허깨비, 물거품 같이 관(觀)하라고 가르친다. 만약 머리로는 최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얄팍한 아이디어나 꾀로 형상이나 허명에 매달리면 도(道)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라 한다. 삶이 팍팍한 서민들의 힘겨운 마음을 아우를 수 없을 때 온갖 화려한 치장이나 요술을 부려도 거긴 감동이 없다.

은행나무 그늘진 이전의 광화문 거리는 비록 빈약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친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과거 조상들의 미의식과 지혜를 빌어 본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된 정체성 있는 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고 필요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성보제자리 찾기 운동 확산을

43년만의 귀환. 1966년 발견된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그 다음해 국립박물관으로 떠난 지 43년 만에 조계종으로 돌아왔다. 12월 17일 조계사로 이운되어 고불식을 봉행했고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될 전망이다.

이 일은 단순히 하나의 성보가 불교계로 돌아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문화재 유물 가운데서도 불교의 성보는 당연히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현실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본래의 자리를 더나 박물관의 정원에 서 있는 탑과 부도가 얼마나 많은가?

문화재 당국으로부터 성보를 반환받는 문제는 어쩌면 쉬운 일 일 수 있다. 문제는 사유화 된 성보들이 성보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잃어버리고 골동품이나 장식물 취급을 받으며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량을 떠난 성보를 원래의 도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시간과 재원을 투자 할 사람은 흔치 않다.

이미 본래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보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있다. 문제는 반환을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만한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종단만 쳐다봐서는 안 될 일이다. 성보를 되찾아 오는 일은 불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반환을 계기로 성보 제 자리 찾기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한 해가 저무는 시간 위에서

2009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되돌아본다. 올 한해 불교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조계종과 태고종의 수장이 바뀌었고 신생종단이 꾸준히 설립됐다. 지리산 실상사와 백양사에서 야단법석을 열어 우리시대 불교의 모습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불교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뜨거운 토론의 자리가 있었다. 공공단체 등의 종교편향 사례와 강도는 작년 보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불교계의 대응이 그만큼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되짚어 보면 2009년도 다사다난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버리면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왜 그럴까? 아마 이 시점에 느끼는 허전함의 정체는 바로 '작년에도 그랬듯이…'일 것 같다. 2009년을 보내는 아쉬움의 대강들은 '미진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 '수행풍토 조성'에 대한 구호는 시끄러워도 실행을 위한 대책은 별로 없었던 점, 계율에 대한 승단 의식구조의 느슨함 등등 작년에 아쉬웠던 사항들이 올해도 그대로 아쉬움의 주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에 대한 커다란 희망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현상유지나 하자는 생각이 앞서는 지 모르겠다.

송구영신이란 바로 이런 씁쓸한 기분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저무는 한 해를 바라보며, 한 생각 돌리면 우주법계가 불보살의 영토임을 깊은 호흡으로 실감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따뜻한 문자 하나씩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작지만 큰 선물, 기부하는 연말되길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나의 2009년 다이어리 제일 앞장엔 올해의 목표 3가지가 적혀 있다. 첫째는 중국어 능력시험 10급 통과. 아…, 중국어학원 수강신청 후 5번 갔나? 시험준비를 위해 구입만 책만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둘째는 남친 만들기. 아…, 남친을 촬흙으로 만드는 거였으면 병마용처럼 한 부대를 만들었을 거다. 후회만 남는 1 · 2번 목표는 내년으로 미루게 됐지만, 세 번째는 올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목표다. '월 1회 사랑 실천', 3가지 목표 중 유일하게 내가 달성한 목표이기도 하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기부를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게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이었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 금액은 당연히 소액이었다. 처음에는 월 2000원을 장애인 센터에 기부했다. 소액기부를 가벼이 보는 사람에게는 "남인도 어린이들은 2만 4000원에 노예로 팔려가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돌을 캐내는 일을 한다. 2만 4000원이면 아프리카의 굶주린 가족에게 매일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한 마리 보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월 2000원은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이다. (물론 금액이 좀더 크면 닭 대신 농사지을 수 있는 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꼭 돈을 써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기부의 방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당신이 묵혀두는 신용카드의 포인트로, 신나게 웹 서핑을 하다가 기부 아이콘 찾기로,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물품 구매로,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 이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등의 핑계는 그만두자. 사랑 나눔 기부는 단지 실천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것 이니까.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 달에 2000원씩 모아 24000원을 받은 단체에서 보낸 글로, 내가 보낸 염소를 받아서 살고 있는 남매의 편지였다. 남매는 시커멓고 매우 말랐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기부단체에서 보내준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후원금으로 보낸 가축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나를 부끄럽게 했다. 자신들이 자라면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태어나서 한번도 이런 존경은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좋아하고, 외제차 좋아하고, 심지어 습관처럼 기부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가끔은 허세였던 허영 덩어리인 내게 남매의 편지는 큰 충격이었다.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자가 되는 것은 후원 받는 사람에게도 후원 하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일인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나눔으로써 모두가 더욱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당신의 2010년 DO LIST에 '기부로 나눔 실천'을 써 넣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나수현
넥센타이어 내수전략마케팅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화제의 불화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날 것이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기도속에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2009년 12월부터 삼재시작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상담 요)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앉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사찰스님 30%할인)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 불자용수저 다라니 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디자인도 세련 품질도 최고 !



사찰에는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사찰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다. 공양실의 첫번째 얼굴이 수저인데 대부분 공양실 수저를 보면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일 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가 오래되 긁히고 달아 보기도 깔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팅이 벗어지면 스탠을 만들때에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선진국에서는 3년정도 사용하면 가정이나 식당이나 교체를 한다.

■ 다라니 출시기념 공장도가 시판

다라니 수저는 고급 스텐에 수저 두께도 두꺼워 휘어지지 않으며 수저 상단에는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향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를 넣었다. 또한 3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을 넣어 제작해 드릴 수 있고,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 다라니 수저의 품질은 백화점에 Set당 5,000원에 판매되는 최고급 수준이며 공장도 가격 Set 당 1,500원씩 사찰과 불자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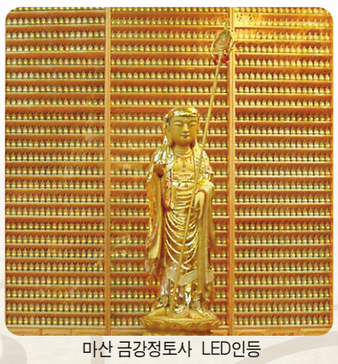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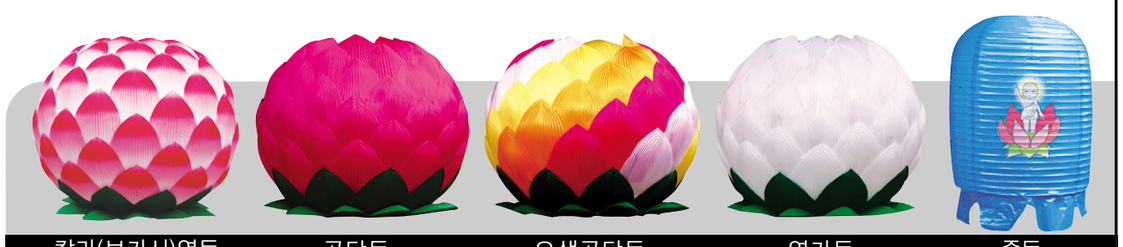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